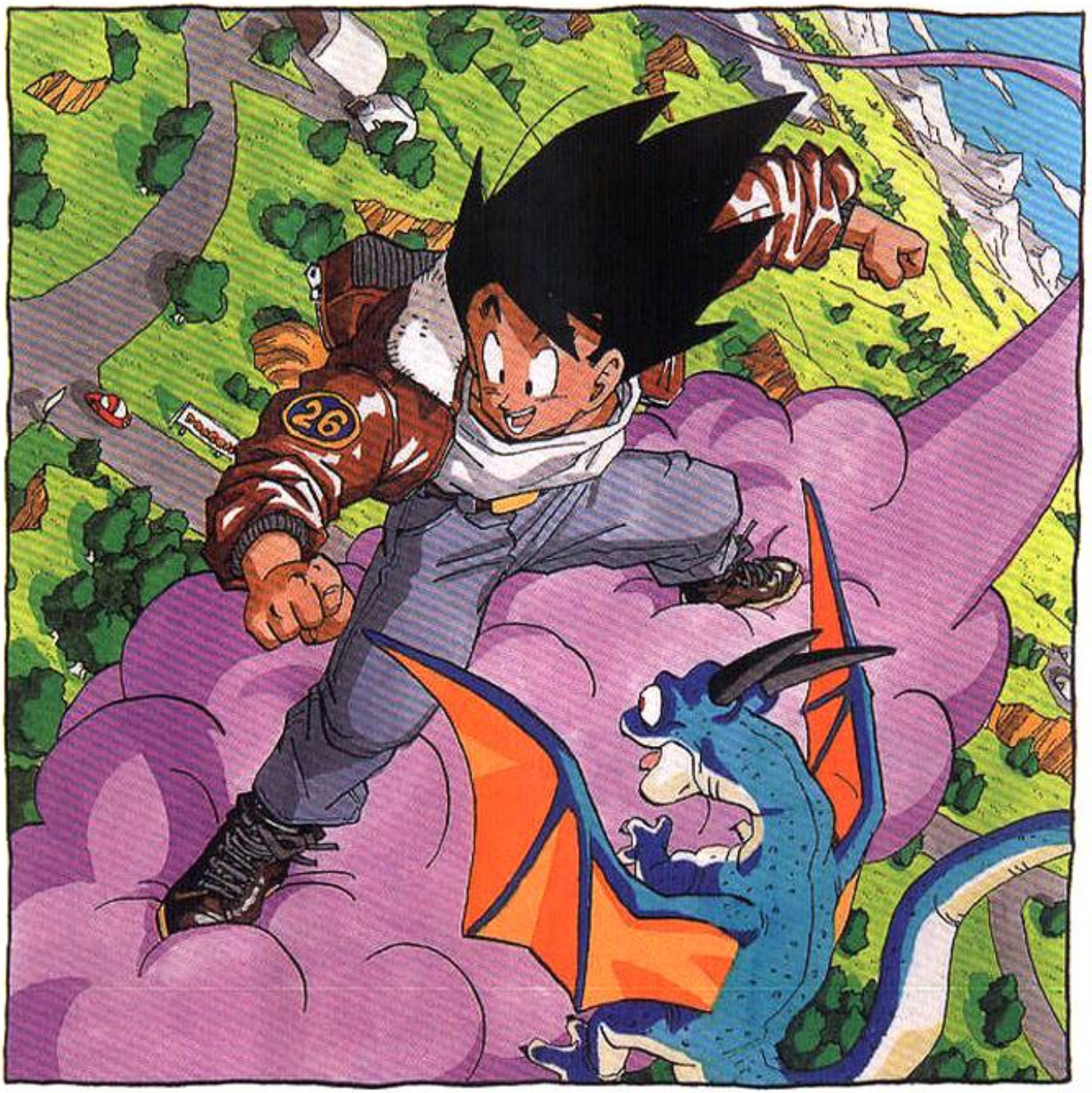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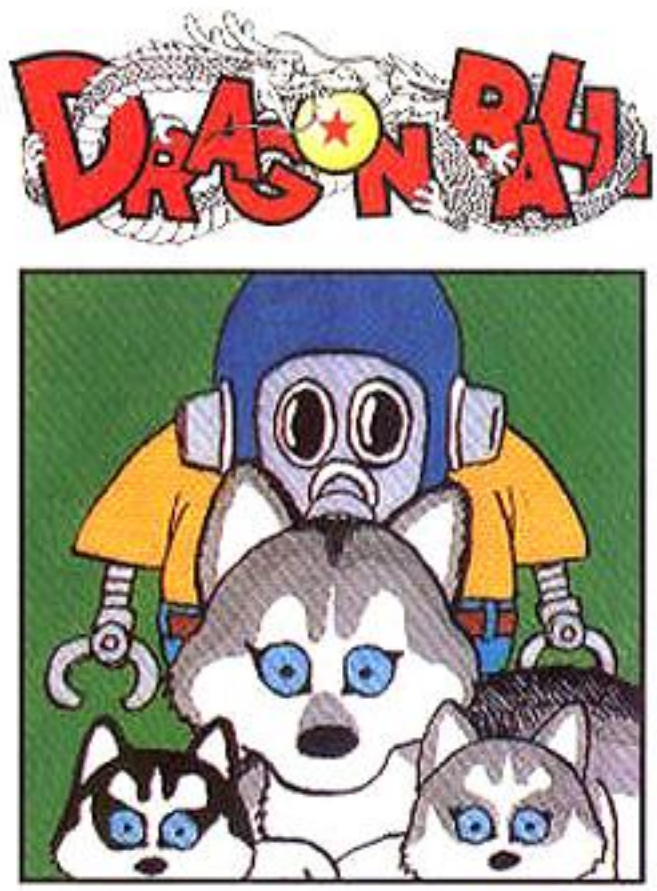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26 손오공…부활!!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우리집 애견한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마리가 태어났는데, 한마리는 안타깝게도 도중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2마리입니다. 옛날에 고양이가 출산할 때, 부모 고양이가 너무 서툴러서 탯줄을 잘라주거나 하며 도와줬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애견의 경우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며칠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열심히 잘 낳아주더군요. 남의 손에 보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2마리 모두 키우고 싶지만….

anned by raprnb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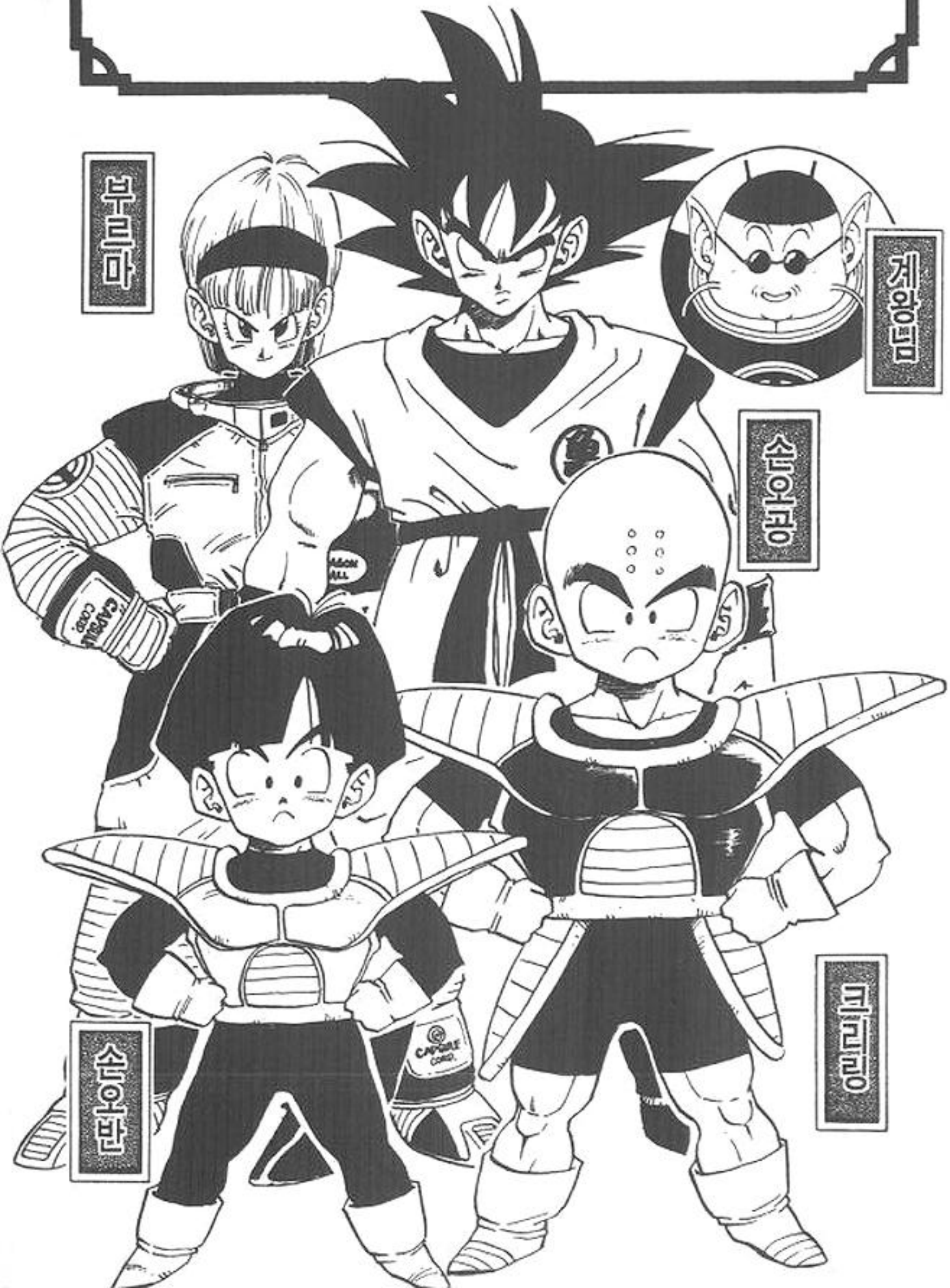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26편 손오공… 부활!!

AKIRA TORIYAMA

SC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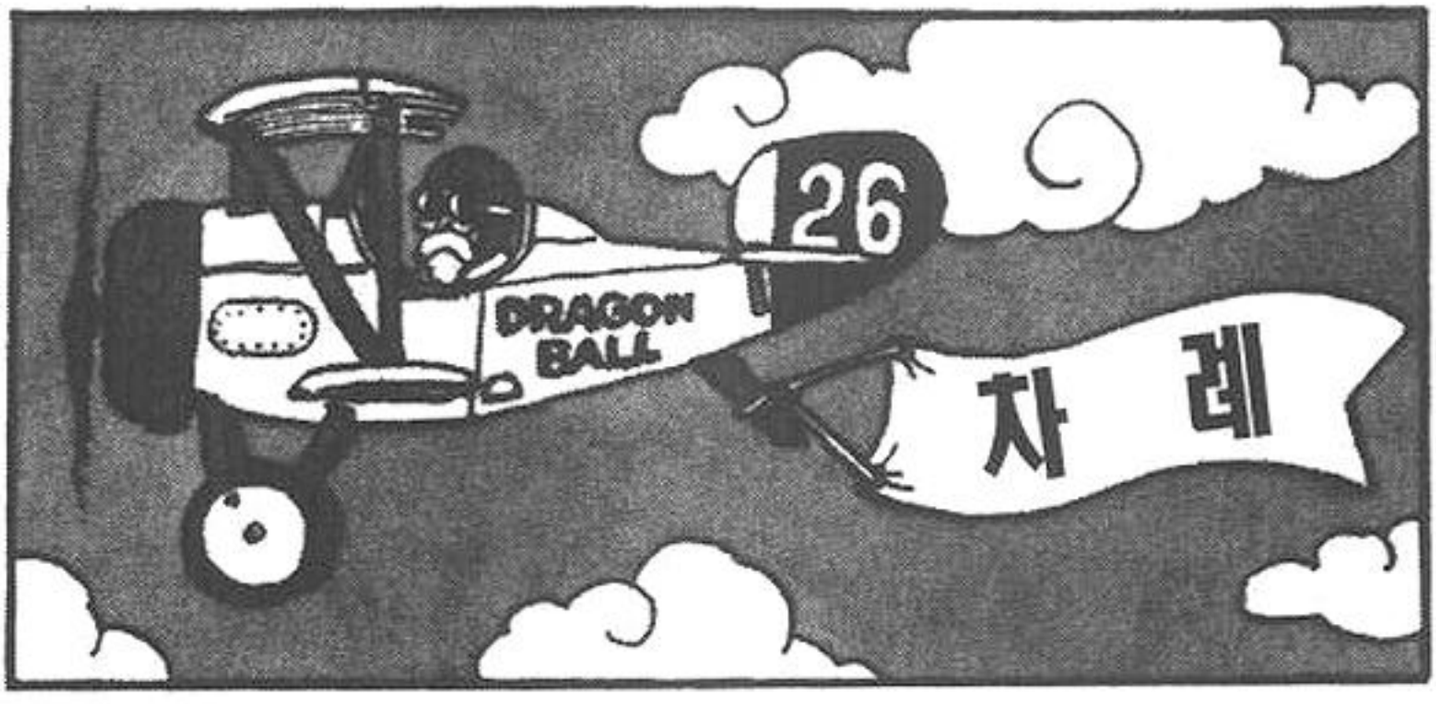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우승을 이룬다. 그후 지구를 습격한 베지터와 오공, 프리더 일당은 잃어버린 드래곤 볼을 찾아 나메크성에서 쟁탈전을 벌인다. 그리고 오공은 강적 기뉴한테 중상을 입고 대위기에. 하지만, 7개가 모인 구슬에 의해 부활한 원군 피콜로가 등장했다!!

DRAGON BALL 26

손오공… 부활!!



제301화 끝없는 격전!! …… 7
제302화 프리더 제2의 변신 …… 20
제303화 프리더의 승리 예감!! …… 34
제304화 초사이어인, 그리고 슈퍼 프리더 탄생!? … 48
제305화 프리더냐, 베지터냐!? …… 62
제306화 손오공… 부활!! …… 76
제307화 초결전의 포문이 열리다!! …… 88
제308화 베지터의 죽음!! …… 102
제309화 양보 없는 두 전사! …… 116
제310화 서로간의 탐색 …… 130
제311화 육탄전 …… 144
제312화 괴물 프리더 …… 158
제313화 20배 계왕권의 도박 …… 172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V …… 187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01화

끝없는 격전!!







주…, 죽여주네….
프… 프리더랑
막상막하로 싸워….

아니…,
아냐….

그 이상
이라구….

여…, 역시
굉장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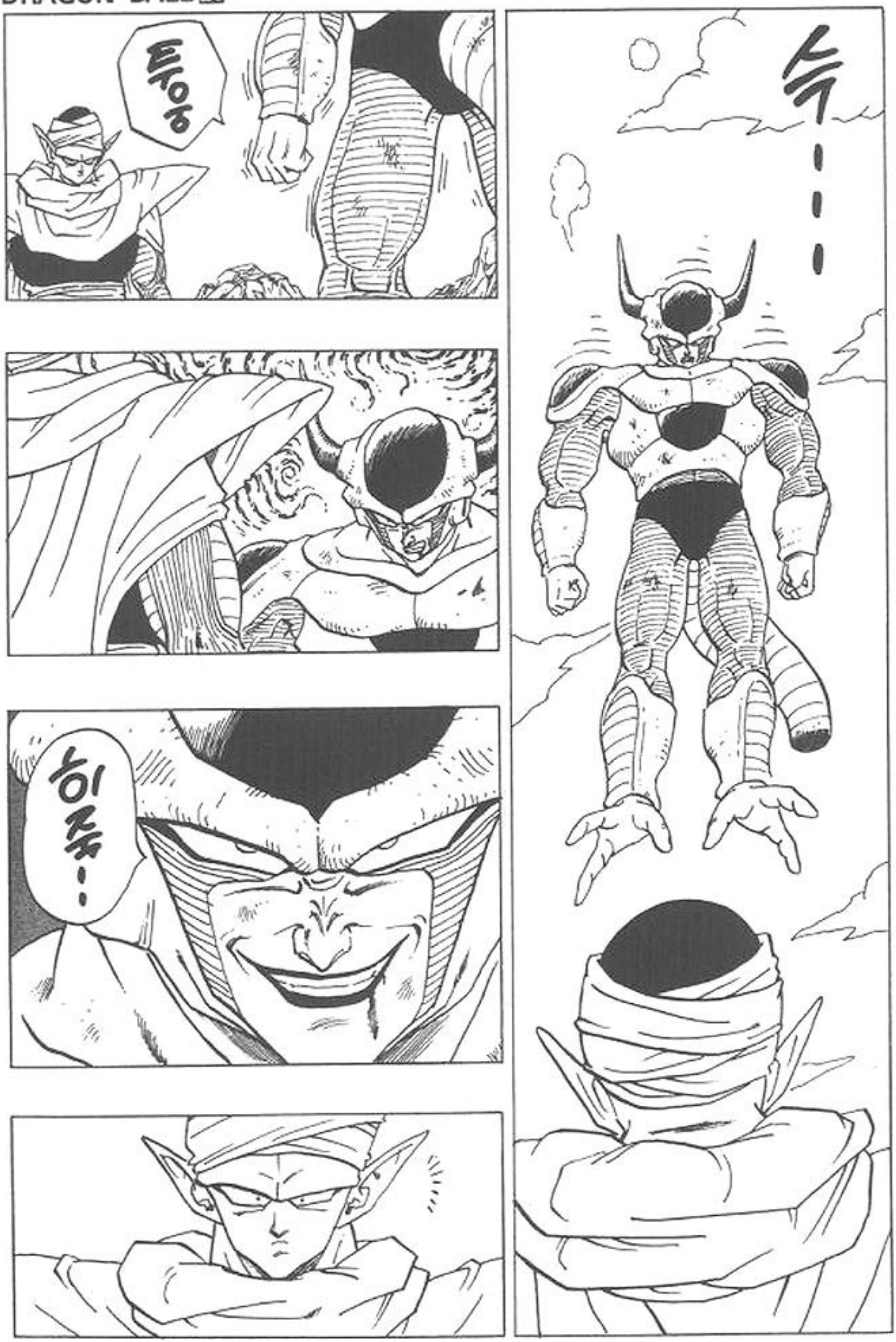
피콜로
아저씨
는!

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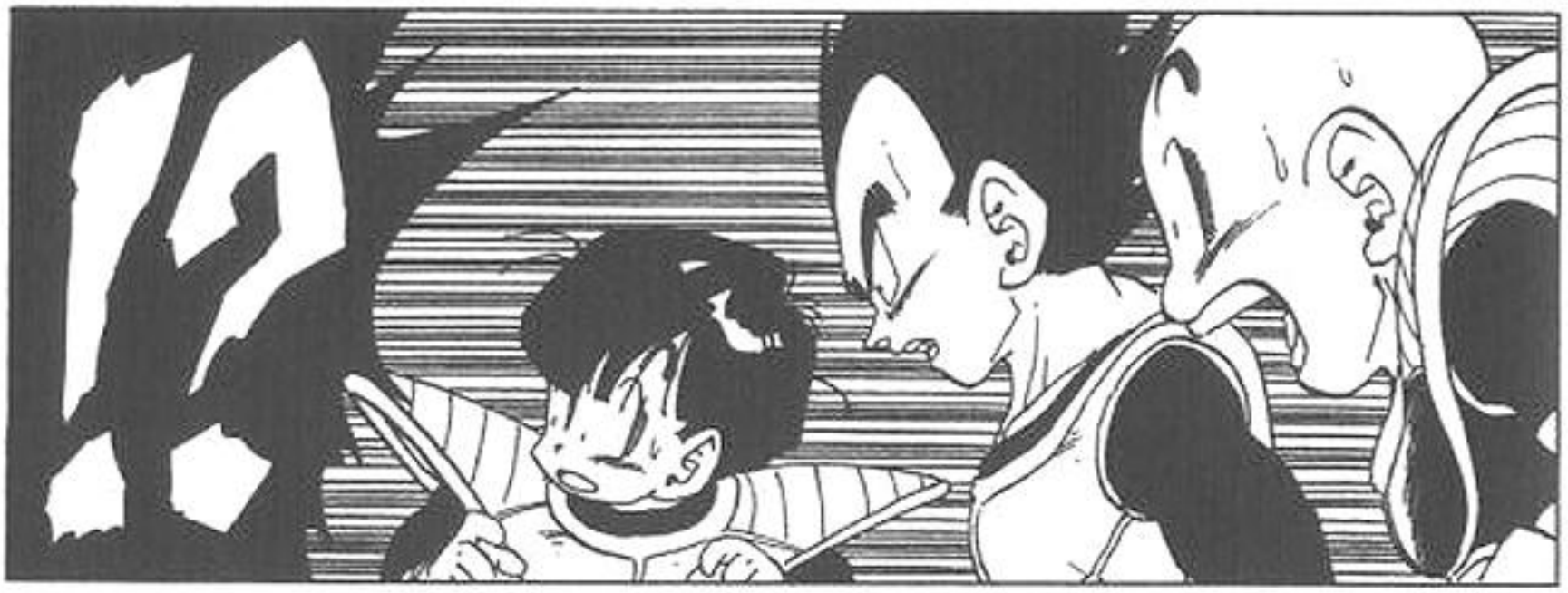
지구에서 놈을
죽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 우린
이제 살았다,
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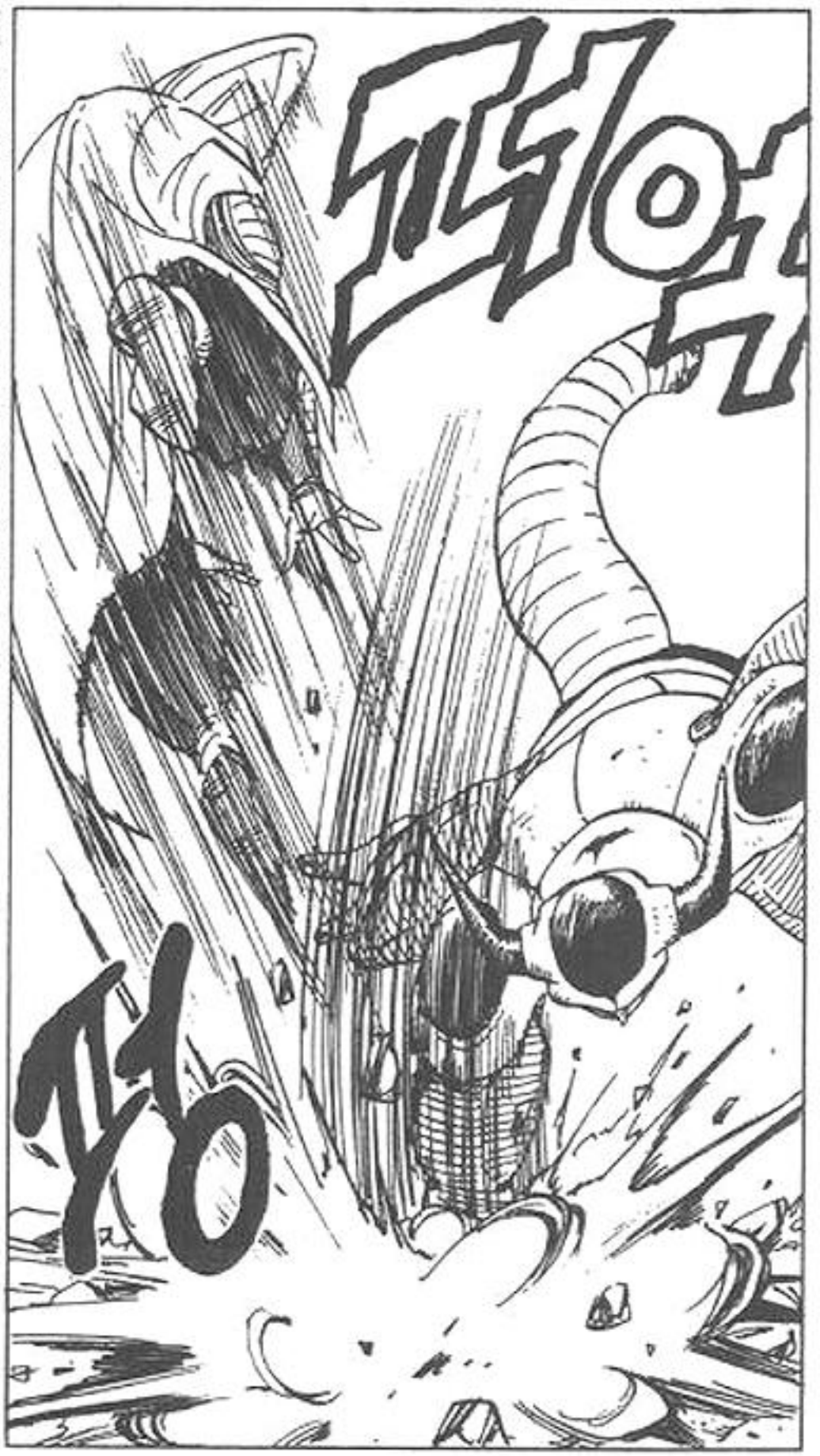
예스!!


슥……
투웅
히죽…


TOF
OF
T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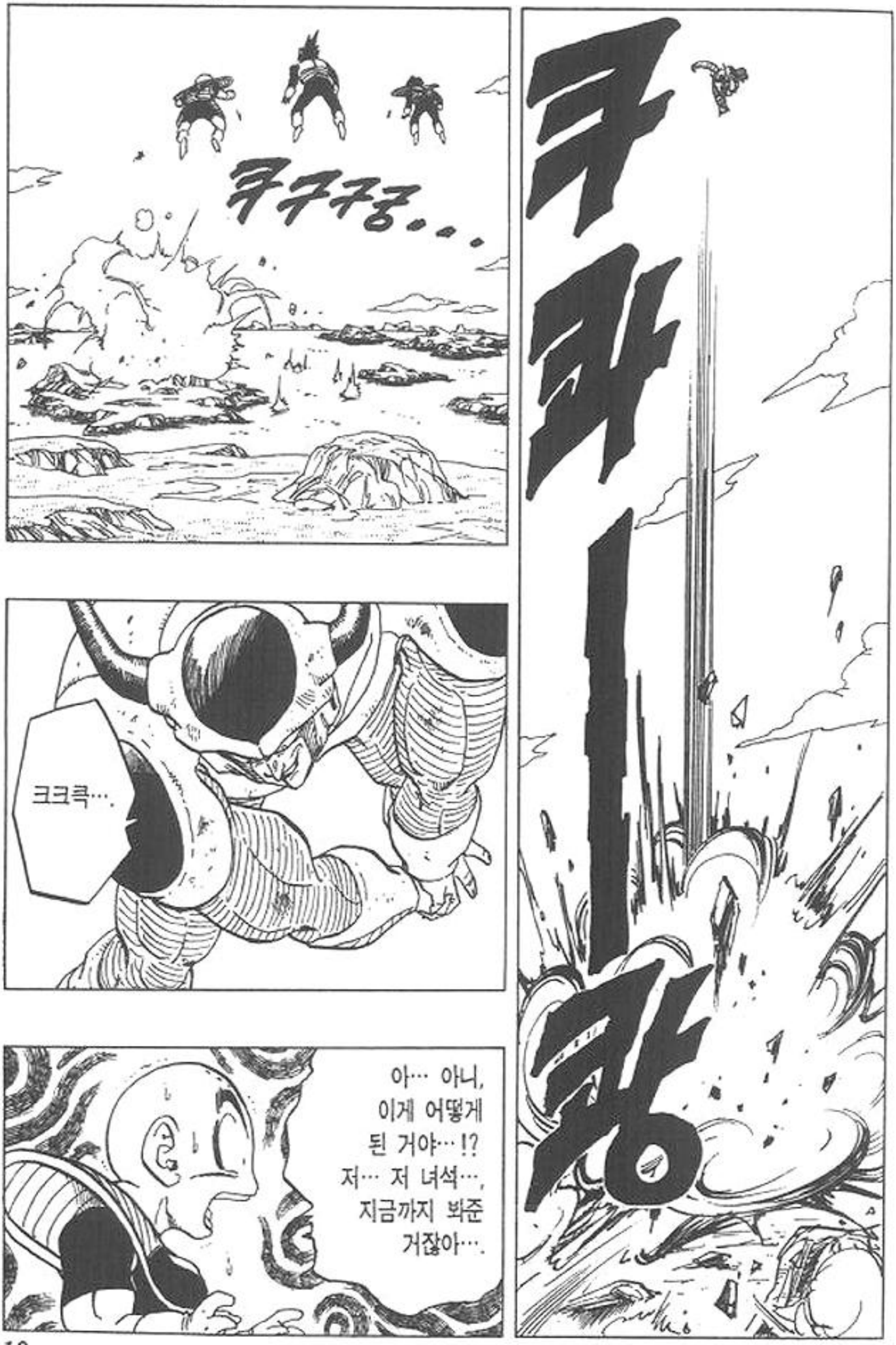

!?


ドカ
ドカ


ゴゴゴ
ドカ

야아앗!!

퍼억


크크큭….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저 녀석…, 지금까지 봐준 거잖아….

꿀틀

꿀틀

크….

크크큭….
아깐
미안했어.
널 너무 물로
봤구나.

근데
상상 이상으로
솜씨가 대단하군.
그래서 내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진짜 실력을 말야….

저… 저놈의 파워는 끝이 없구나….

내… 내가 저런 괴물과 싸우려 했었다니…. 끔찍하군….


쿠웅
……?
투둑 투둑
나도 마찬가지!
진짜로 상대해주지….

크큭…. 몰랐는걸, 나메크성인이 뻥까지 친다는 건….

지금까지는 그럼 장난이었단 말야?

곧 느끼게 돼….

뭐라고!?

피… 피콜로 녀석! 이…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런 무거운 망토를 쓰고 있었잖아…!

!?

그렇구나…!

그….

이길 수 있어!!

네놈들한테 죽은 나메크성인의 원한을 느끼게 해주마!!

지금 보여준 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냐!?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

변신이라고…?

뭐야!?

네놈한테도 선물로 주마. 베지터 애들처럼 나에 대한 공포감을…!

네놈은 지금 내가 변신한 몸이라는 걸 모르겠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 말야….

좋아! 먼저 절망감을 맛보게 해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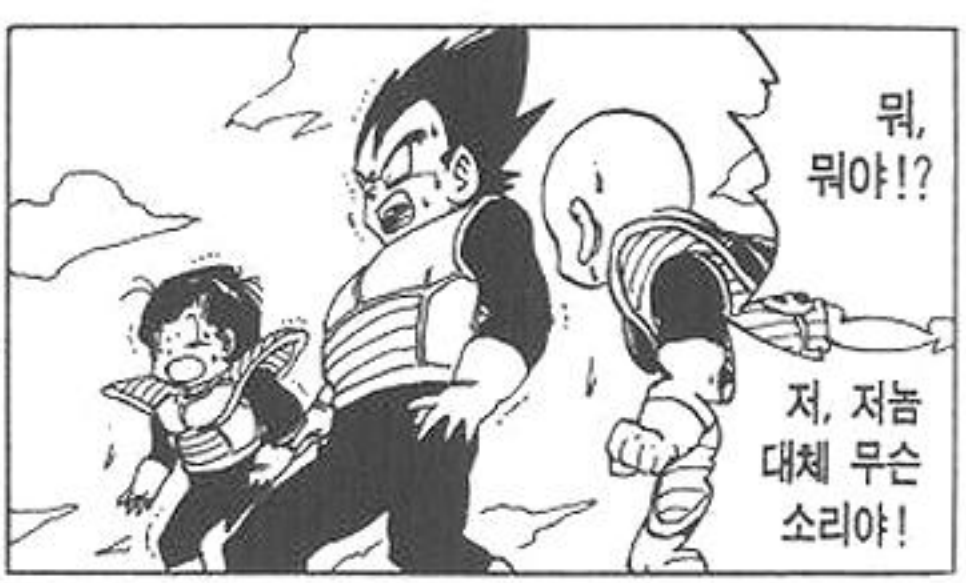
그런 변신을 나는 앞으로도 두번이나 남기고 있어….

나 프리더는 변신할 때마다 파워가 훨씬 세진다….

그 의미를 알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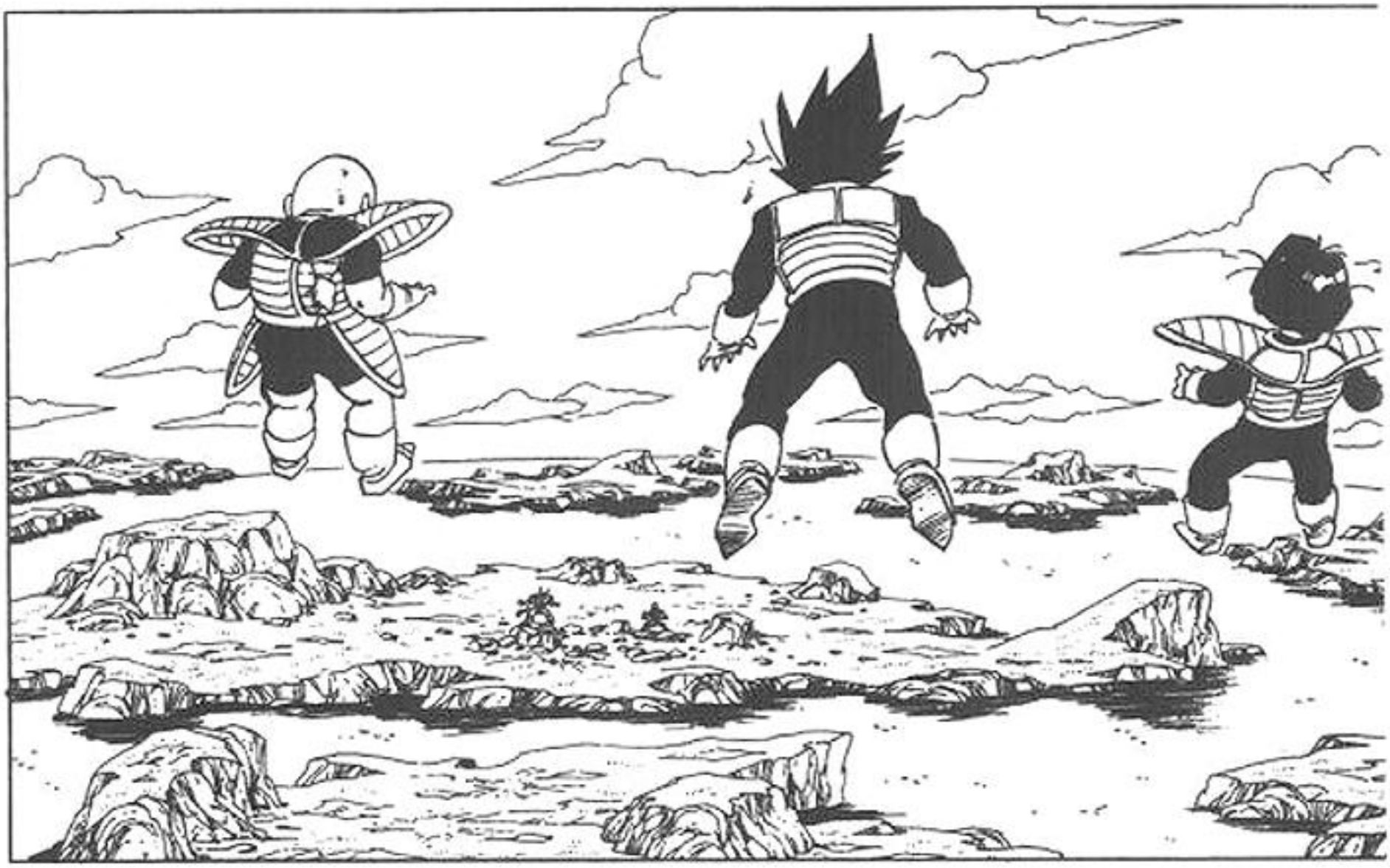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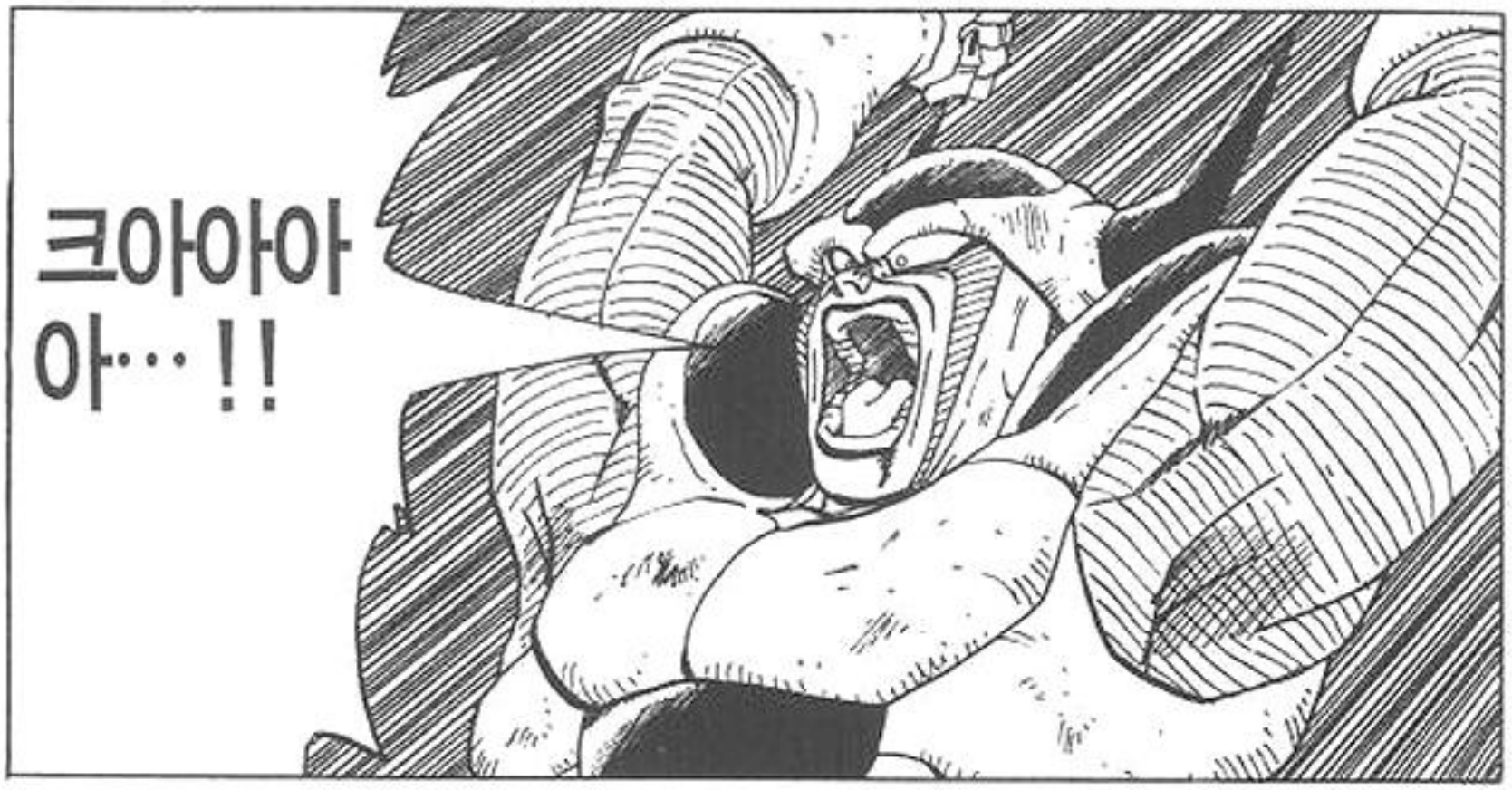


다음은, 제302화 프리더 제2의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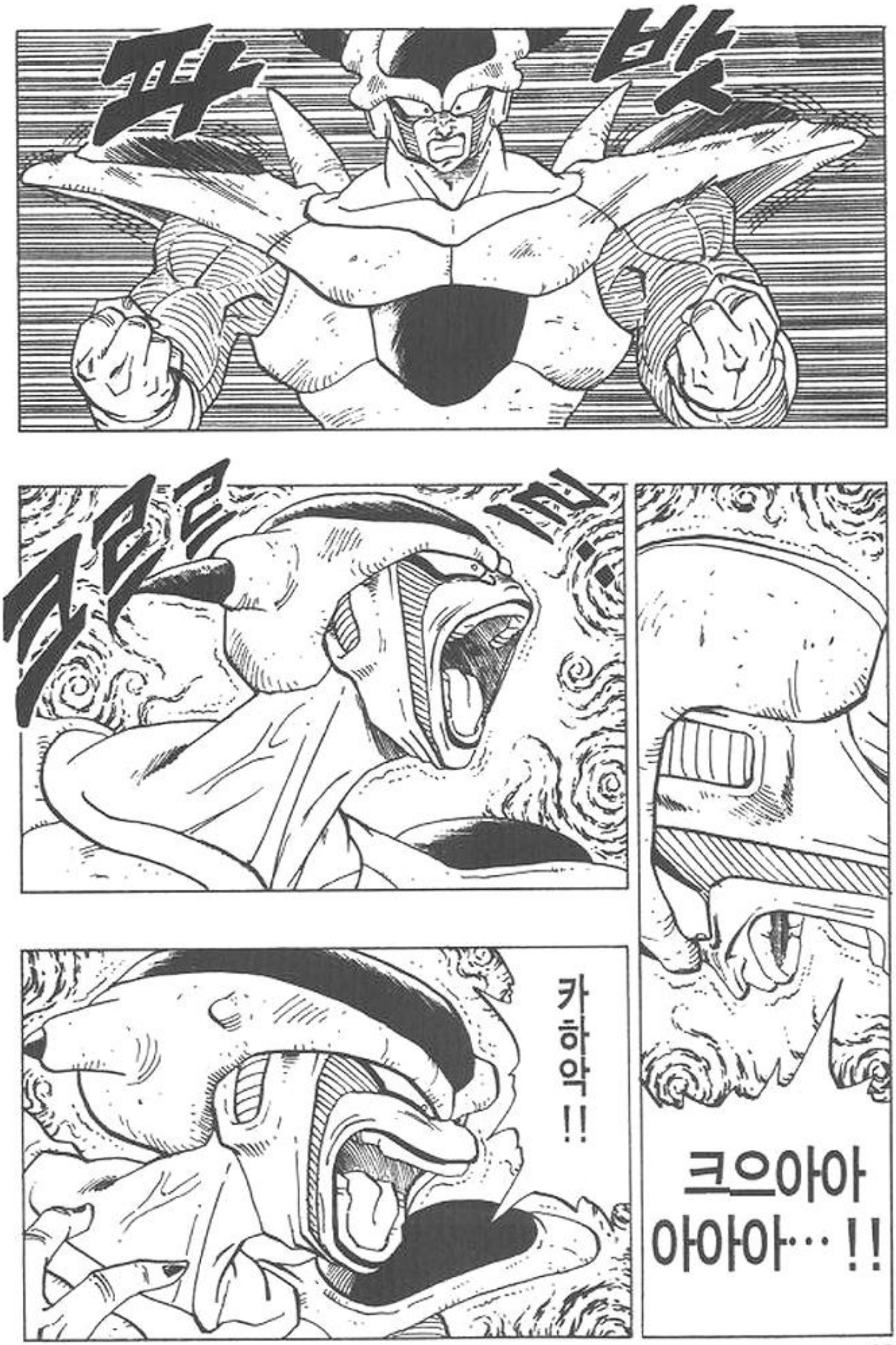

프리더 님의
제2단계
변신을!
으하하하!
잘 봐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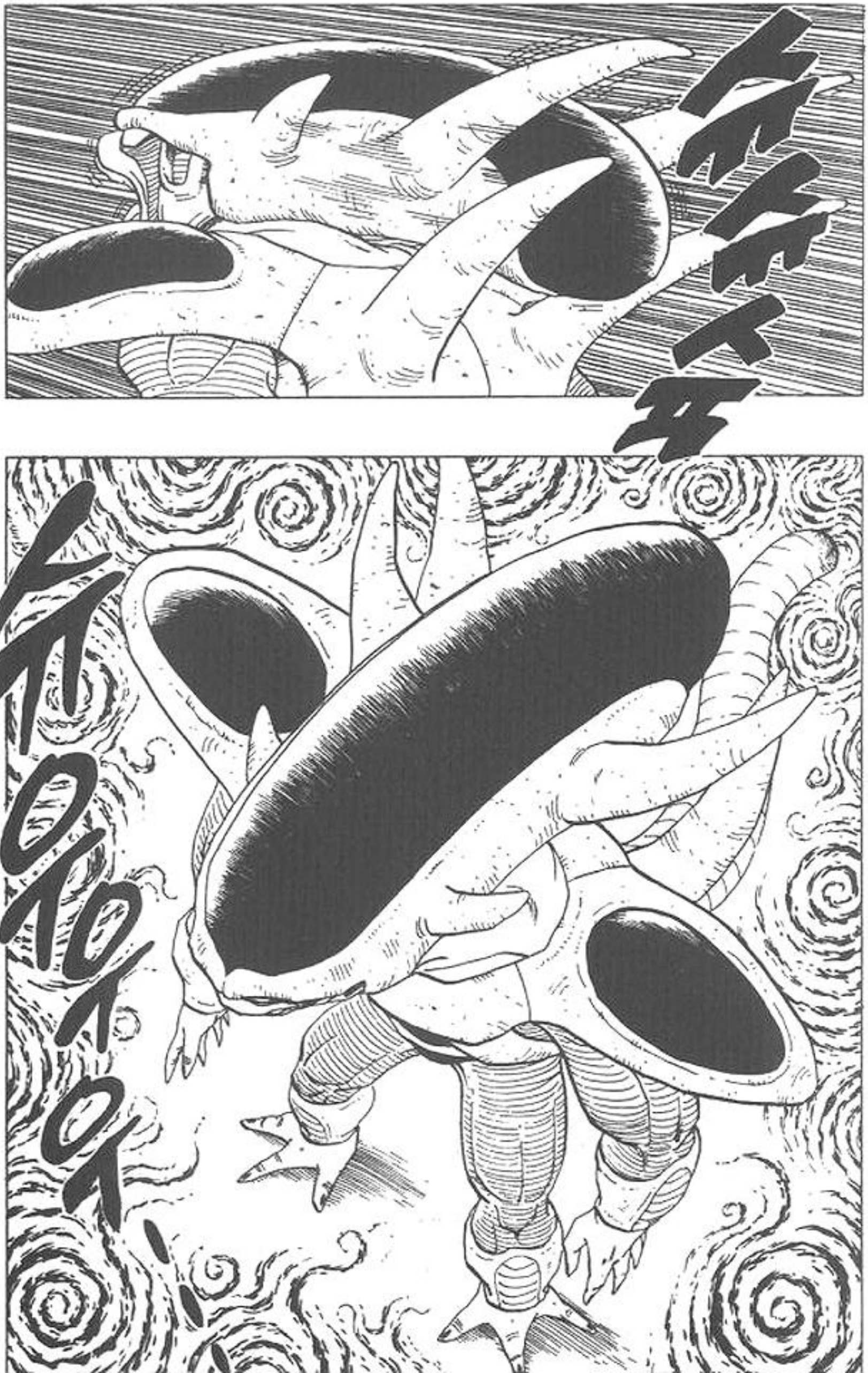

크아아아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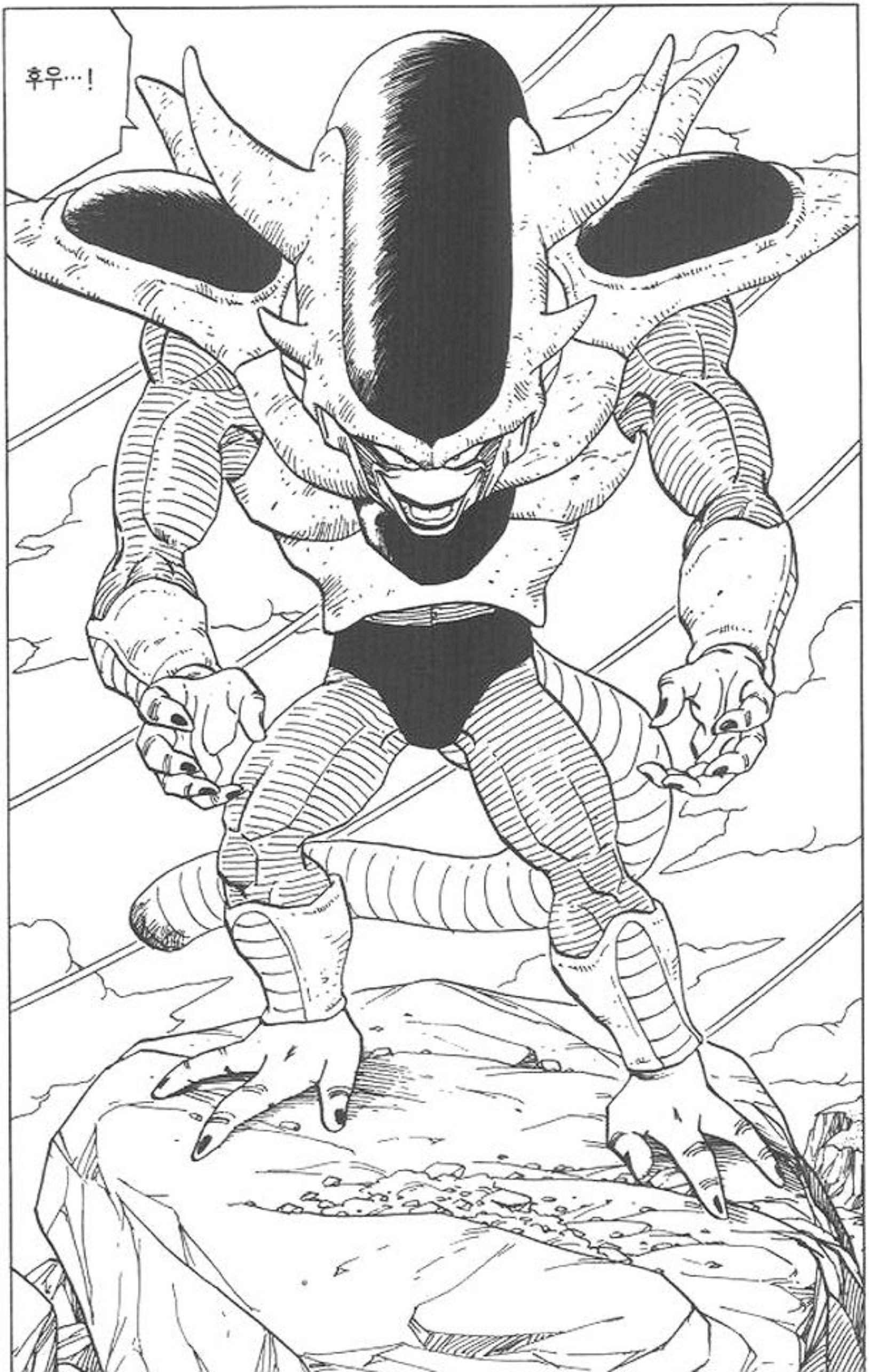

!!


파바바


1100
… !!


파
밧
크르르
크으아아
아아아…!!
카하악!!




후우…!

오래 기다리셨 습니다….

큭…!

자…, 제2회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

……

괴….

괴물 자식…!

머…, 멍청한 놈…! 잠재 파워를 느껴봐라…! 조…, 좀전과는 차원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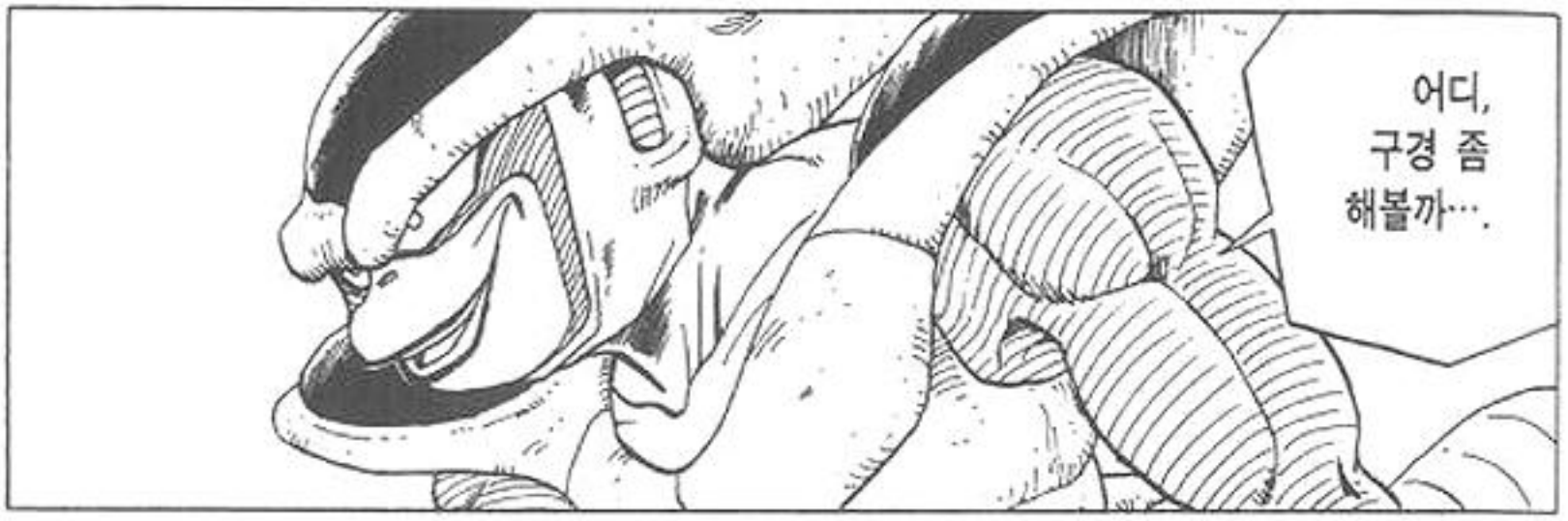
벼…, 별로 대단한 변신은 아니잖아…!?

……


그…
그런….
게… 게다가
또 안정을
되찾아
냉정해졌다….
저… 저놈…,
피콜로
아저씨에게
받은 부상도
없어졌어….


제기랄….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또, 또 프리더란 녀석의
기가 강해지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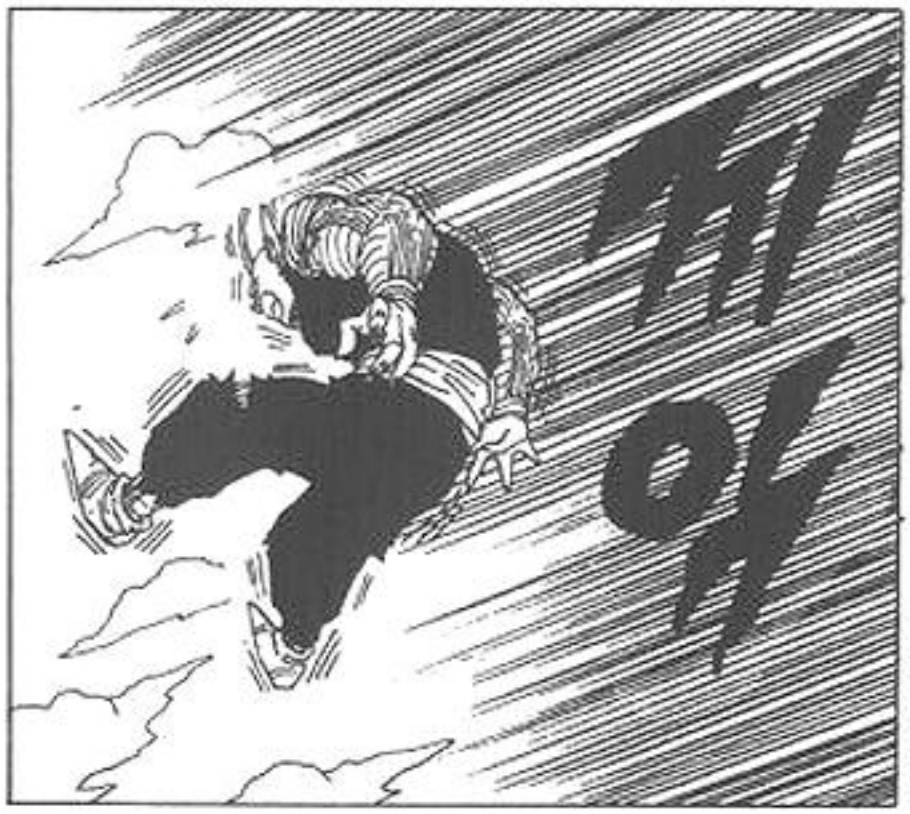

무거운 장비를
벗어서 몸이
가벼워
지셨나요…?
이… 이런.
내 몸이 다 나아도
이길 수 없을지
몰라….
어쩌지….
큰일이네….


어디,
구경 좀
해볼까….


피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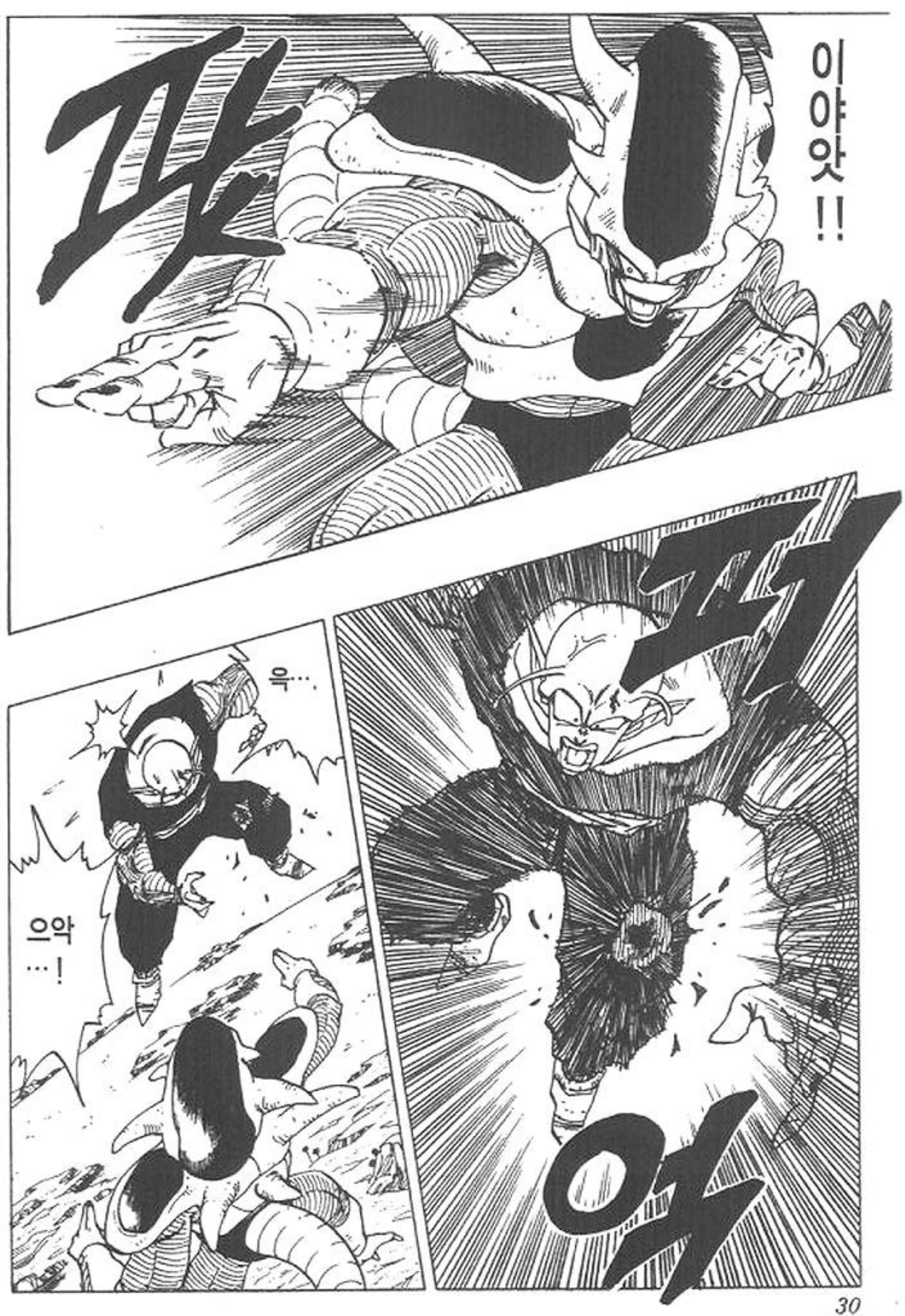

쾅


제기랄!!
네놈이 파워라면
난 스피드로
싸운다!
평생 걸려도
날 못따라
잡을걸!


HIT
OF




어이구,
형씨.
이거
오랜만
이군요….
이…
이런…!


이야앗!!
팟
쾅
윽…
으악…!


크!!
너…
너무
빨라…!!
하앗!!


으악!
퍼억
퍼벅
우히히히 히히…!!
하아아압 …!!
퍼버버버..벅
앗! 저건 절대로 피하지 못해…!!
노, 놀라운 스피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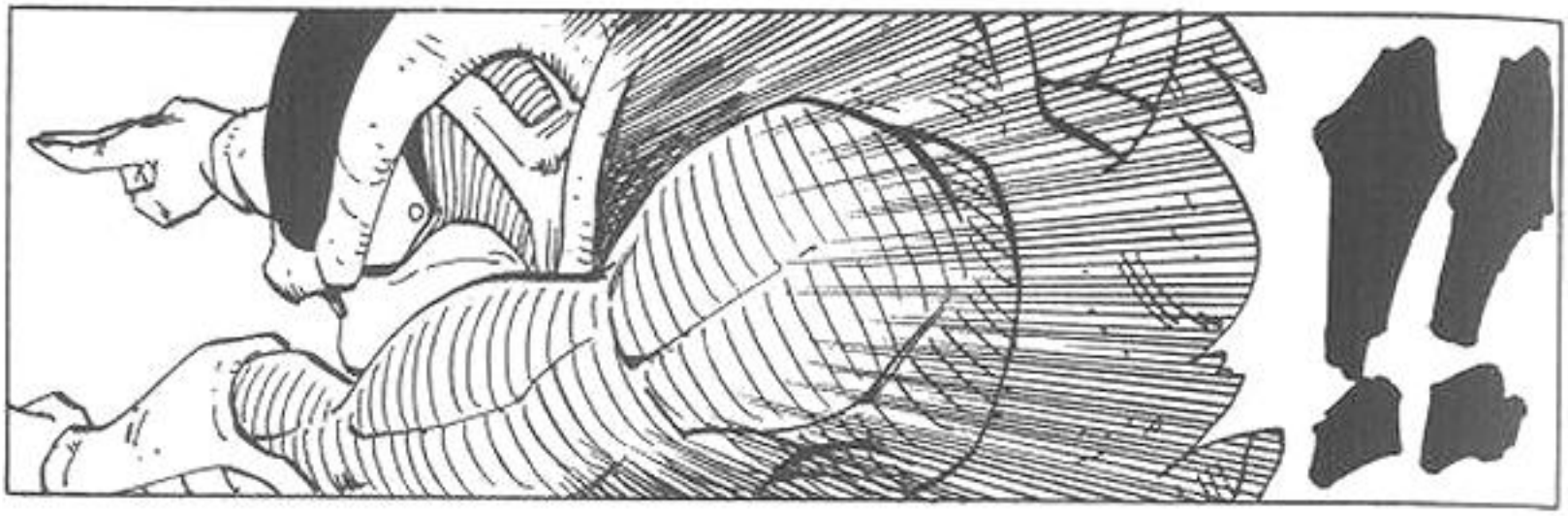
다음은, 제303화 프리더의 승리 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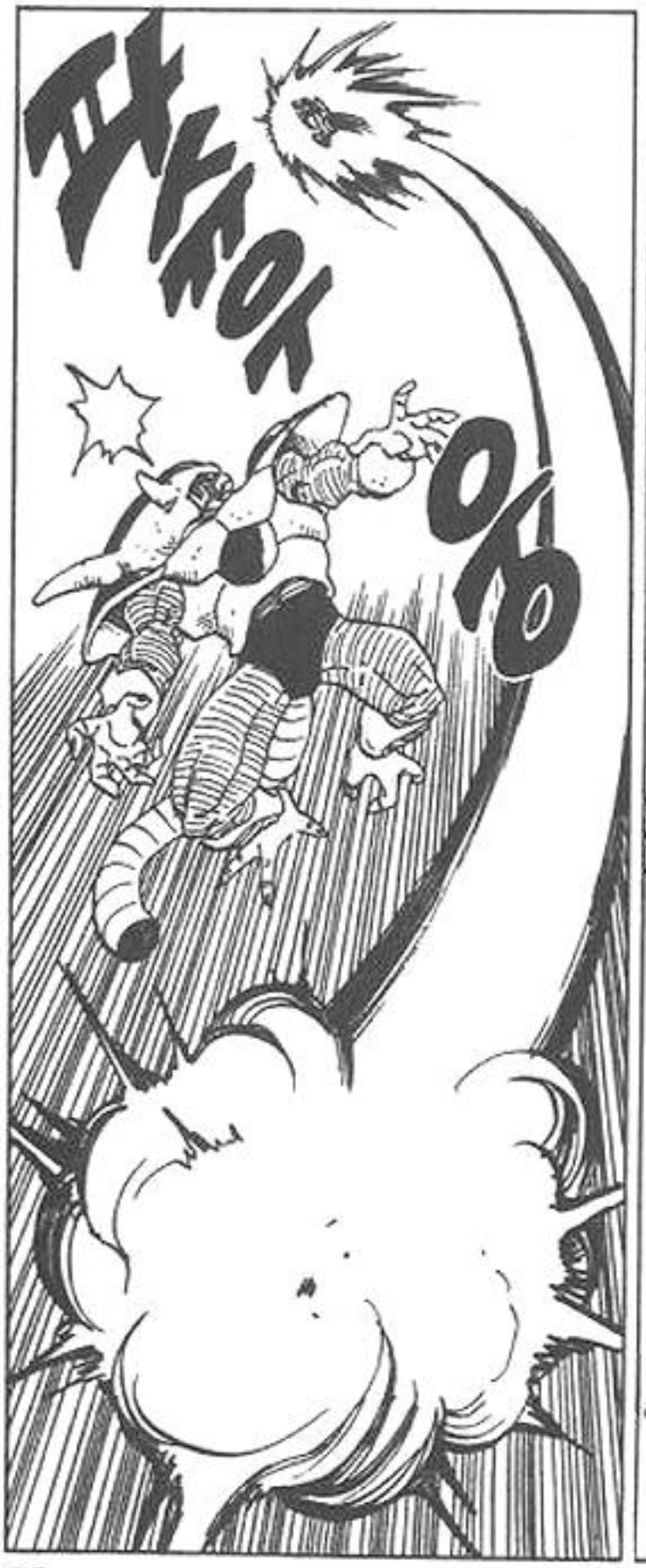




하하하하
…!!

타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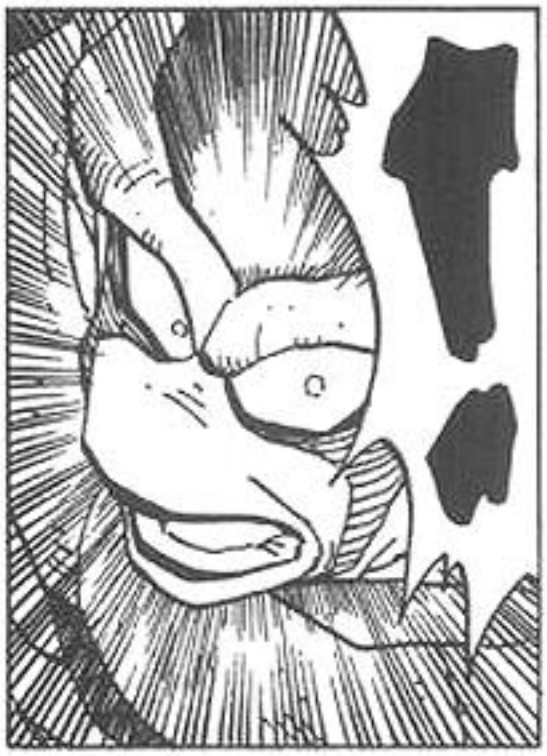

!!


퍽퍽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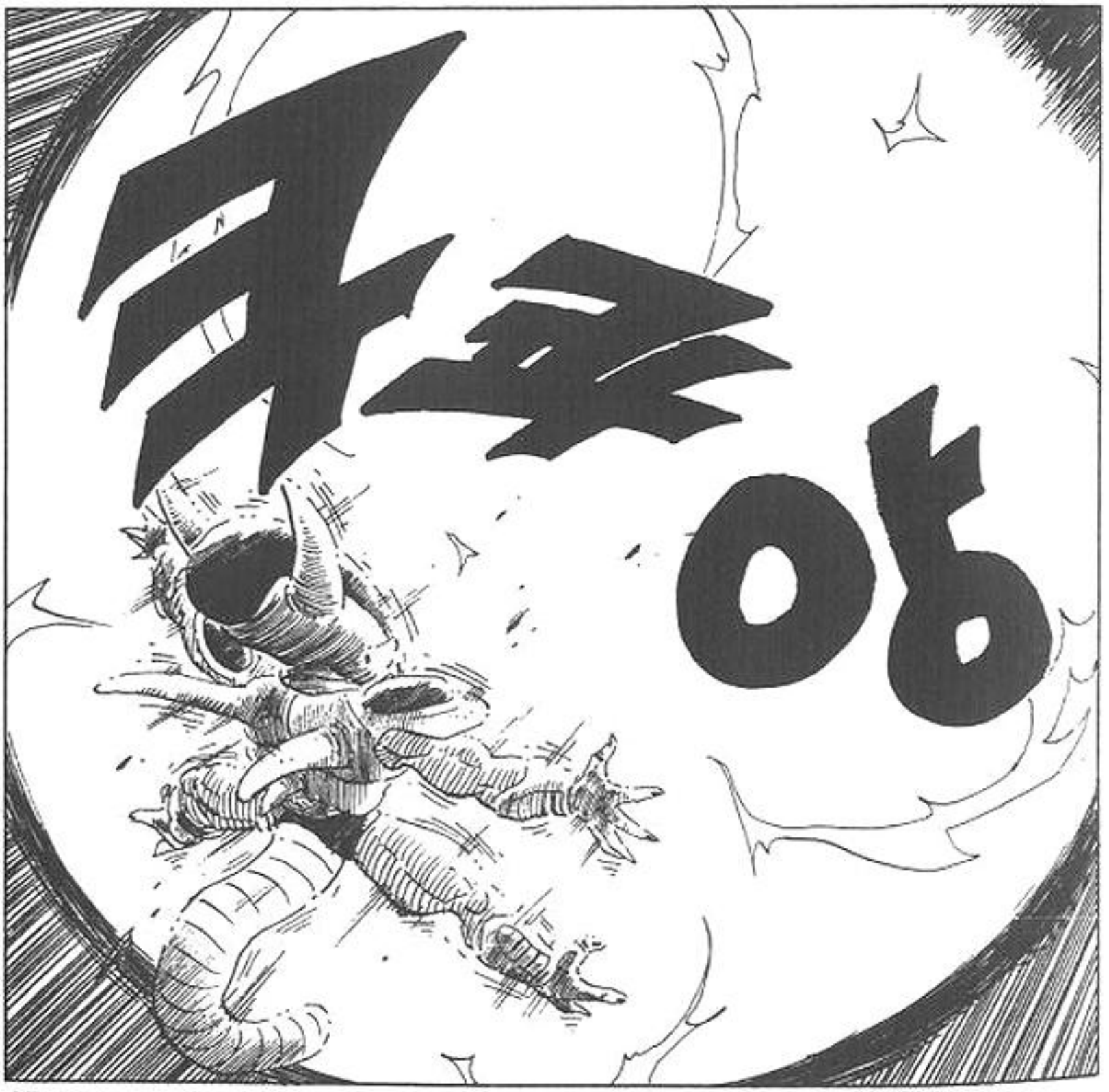

퍼퍽
부웅

풀
파워다
—!!

너 같은 놈은
지옥에나
가라!!




욱!!
퍼버버벙


퍼억

큭… 우오
오오오…!!

쿠우…
으으으
…!!


우아아
아악… !!
크아아아
… !!


히…,
힘내…!
오반…!
타앗—!!


!!
큭!!


허헉!
허헉!
휘이이이
고… 고마워,
피콜로
아저씨…!
허헉!


설마
…!


근데
누구의
자식이지
…?


후우!
이상하군요….
저 꼬마에겐
저 정도의 전투력은
없었을 텐데….
한번 죽을
고비에서 되살아
나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탁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헉

그… 그치만 이젠 틀렸어….

프… 프리더에겐 통하지 않다니….

헉

아… 아주 강해졌구나…, 오반….

나…, 난 정말 기쁘다….

지… 지금 공격은 비록 놈이 되받아치긴 했지만….

사이어인의 피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이어인은 이제 한놈도 살려두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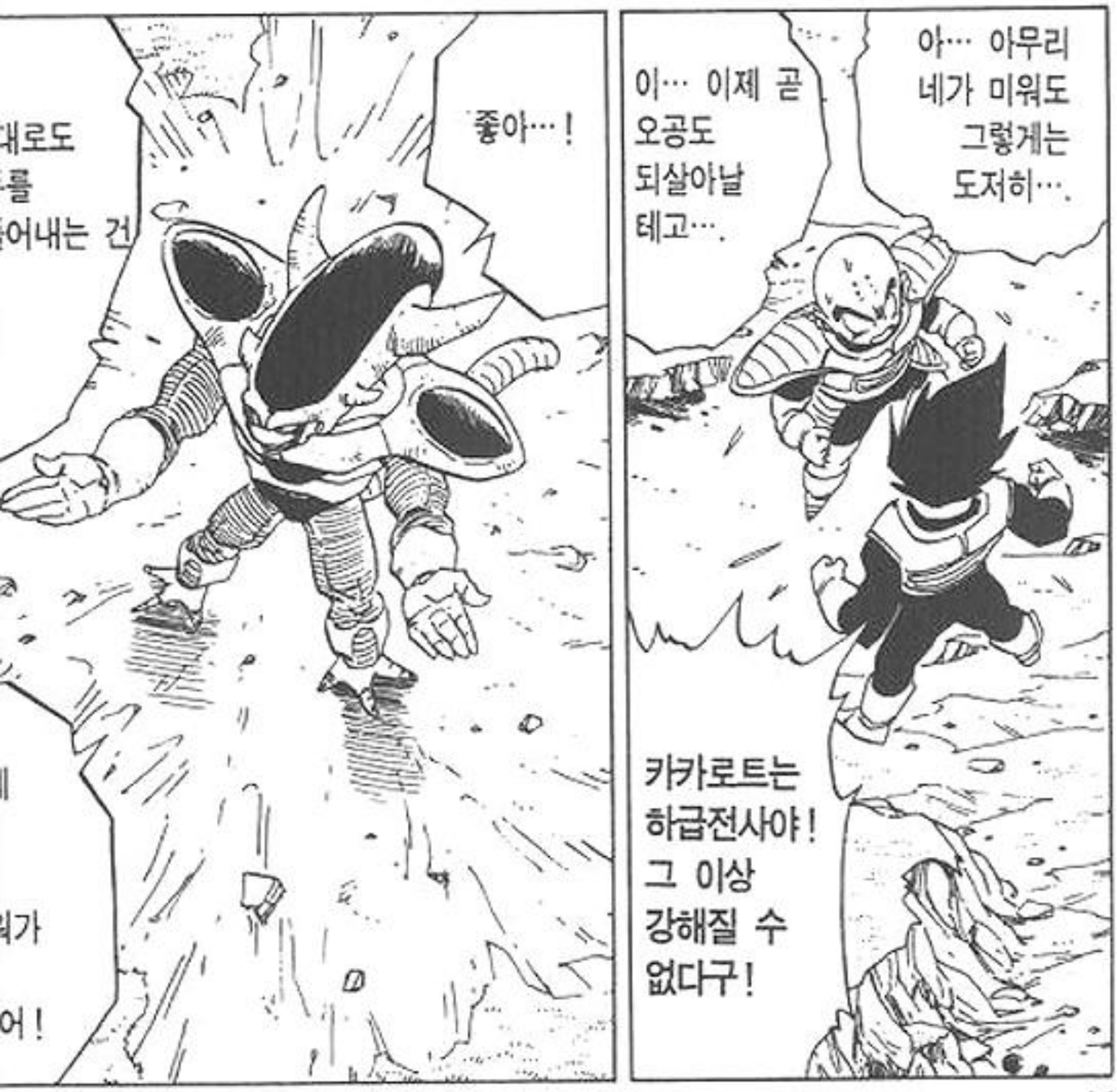
베지터나 내퍼와는 안 닮았어….

실제로 저 꼬마나 베지터는 자꾸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사상 최강의 초사이어인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전설은 믿지 않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말이죠….

라데츠의 자식인가…! 그래…,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야….


마….
을 한계까지
거야…!
료할 수 있는
인 꼬마가
는 건
니까…
빨리해!
프리더가
최후의 변신을
하기 전에!
이해되지!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어인은 죽음 일보
직전에서 부활했을 때
파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내…
내 힘으로
어떻게 너를
반죽음
시키냐…!
어서 날
반쯤 죽여줘!
내가 스스로 죽으려
하면 효과가 없어!
네가 해줘야 해!


대로도
를
어내는 건
좋아…!
아… 아무리
네가 미워도
그렇게는
도저히….
이… 이제 곧
오공도
되살아날
테고….
카카로트는
하급전사야!
그 이상
강해질 수
없다구!

뭐…
뭐라고
…!?

궁극의
뭐라는
거야…!?

움찔

내가
큰맘 먹고
서비스로
보여주마!

나의
최후의
변신을
…!

내 진짜
모습을!

아…
아아…!

지금이면
가능해!

빨리하란
말야—!!

으아아
아아…!!

우아아
아아…!!

펑 펑

초…
초사이어
인이….

드…
드디어
될 수
있다구….

우오오오
…!!

그…
그래….

이제
됐어….

앗!?

!?

다음은, 제304화 초사이어인, 그리고 슈퍼 프리더 탄생!?

크리링
아저씨가
베지터를….

왜…
왜….

어…
어서
이곳을
피하자
…!

오…
오반…!

예…
예…!!

아…
!!


괘…,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
괘…, 괜찮아…!? 피콜로 아저씨…!


덴데란 나메크성인이 고쳐줄 수 있다구!
걱정 마! 그, 그 상처 낫게 할 수 있어!


오반!
탁
크리링 아저씨!


탕앗!
아…!

나…
나는
고치지
못하겠
다니….

아니…,
뭐라고
~!?

…그래.

고…
고칠 수
없어…!

뭐… 뭐야…!
다… 다른 놈은
고쳐주면서
난 왜
안 된다는
거냐…!?

그…
그런 놈은
고쳐줄 수
없어….

너, 너도 우리
종족을…,
많이 죽였잖아….

이…
이 꼬마가….
날 고치지 않으면
프리더를 이길 수
없다니까….

시,
싫어!

의…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구
….

빠…,
빨리
해…!

나, 난
저 사람을
구해줄
거야…!

…아
…!


꼬마야….
꼬….


큭….
털썩!!


그…
그랬구나…!
베… 베지터 같은 사이어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하면 파워가 훨씬 강해져! 너도 알고 있지!?
프리더를 꺾을 자신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저놈은 일부러 반죽음으로 만든 거야!


베…
베지터….


덴데…!


아!

크아아
아아… !!

너…너…,
부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정말이니…?

예…,
그래요….

그랬구만….

과연….

!

덴데…, 베지터를 고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아…. 하… 하지만 우선 그놈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구…!

많은 나메크성인을 마구 죽였어…!

그… 그놈도 프리더랑 똑같아…!

지금의 나라면 베지터는 쓰러뜨릴 수 있지만 프리더는 불가능해….

고쳐 줘라….

내…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

정말…, 믿어지지 않아….

아… 아뇨. 당신은 전투타입 이라서….


쿠콰아앙…
뭐, 뭐야! 프리더인가!?
변신이 끝났구나…!

제… 제길…!
이…이 틈을 타서
기를 죽이고
어딘가에 숨을 걸
그랬어…!!

그랬다간 더 큰일나.
놈은 이 나메크성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릴걸…!
놈에겐 이미 이 별에
아무 미련도 없으니까….

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기다…!

크으으…!
이…
이런…!

워이이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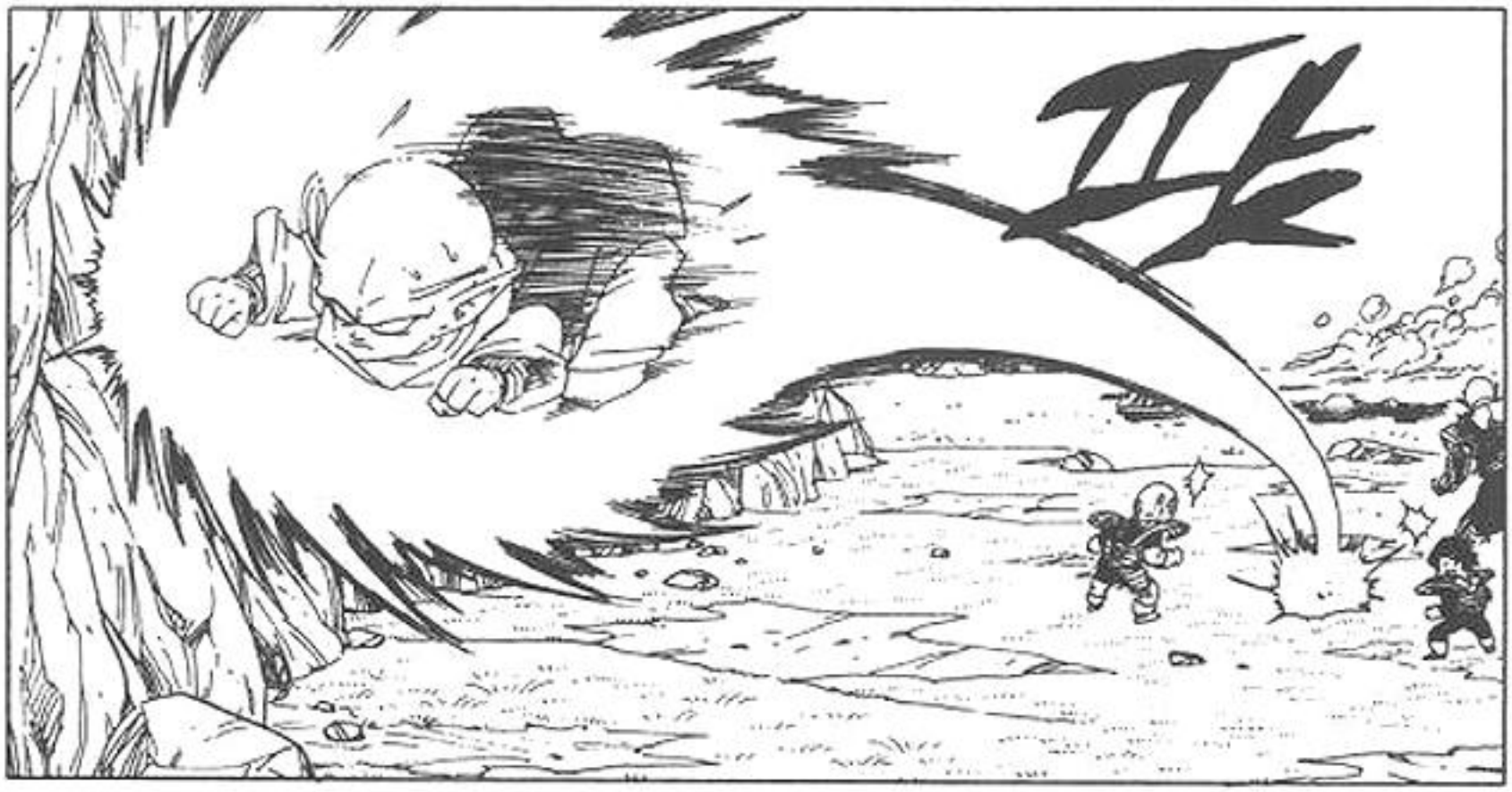
……

베, 베지터를
고쳐줘…!

데, 덴데!
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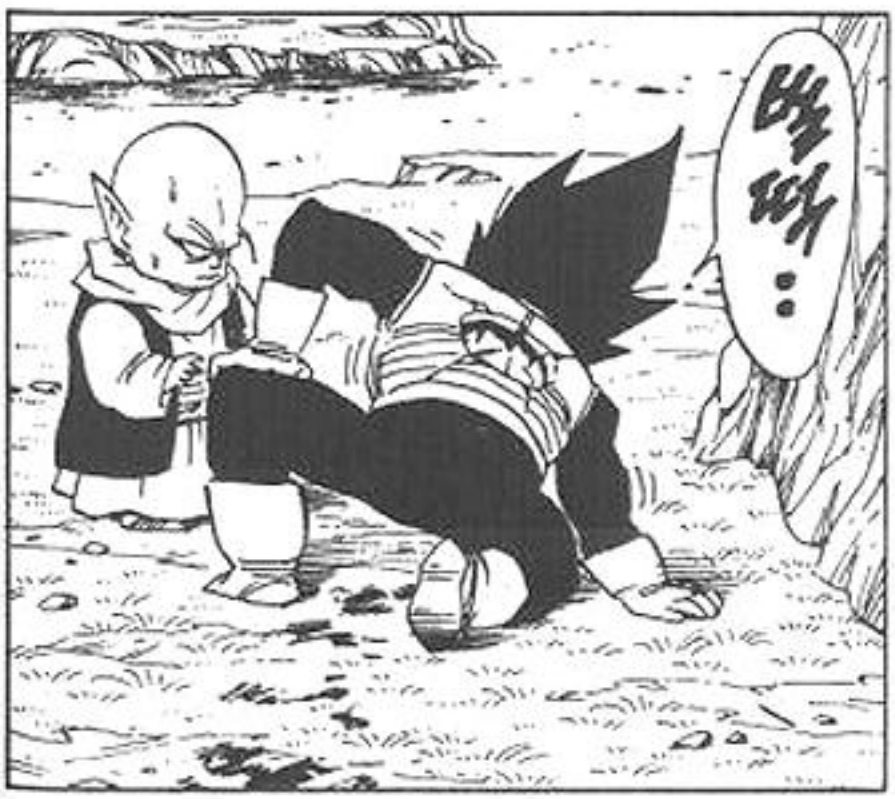
사…,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괴물이….

나…
나타난다….


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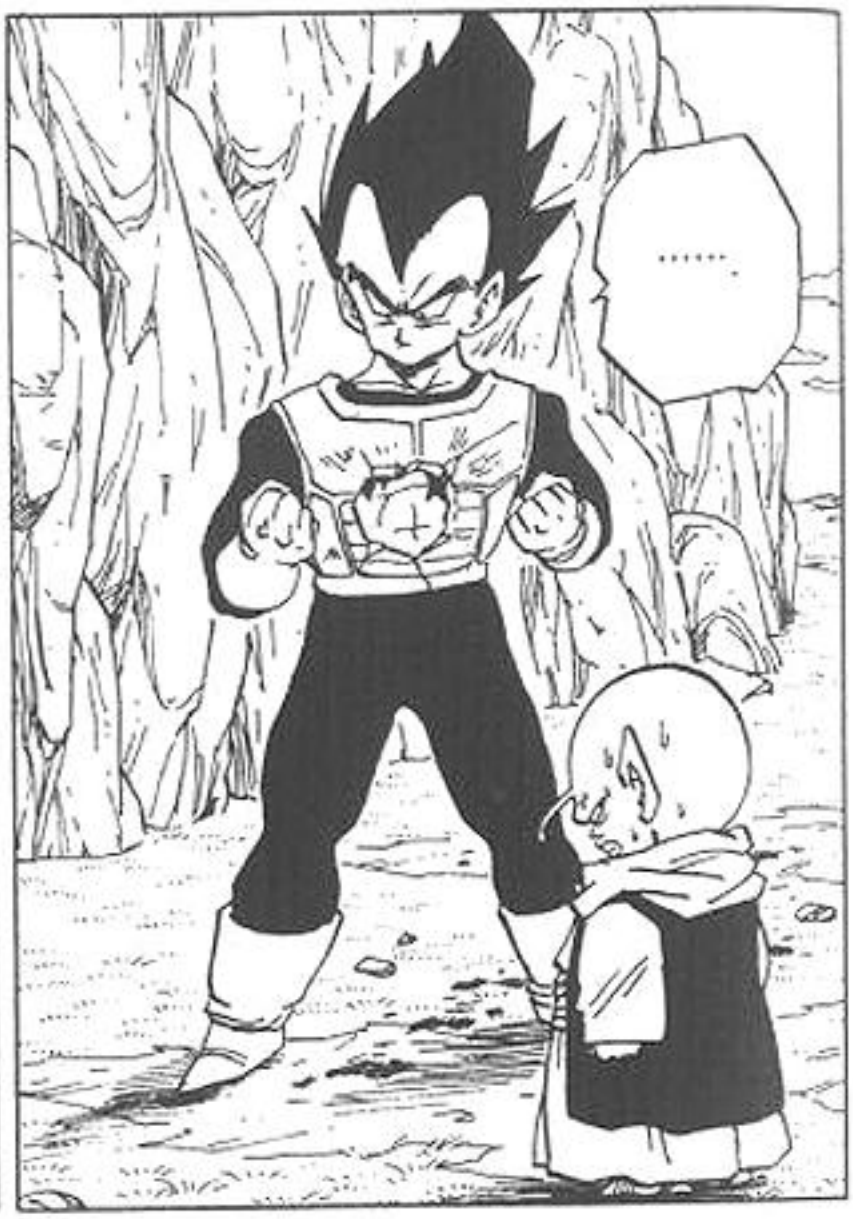

덴데….


벌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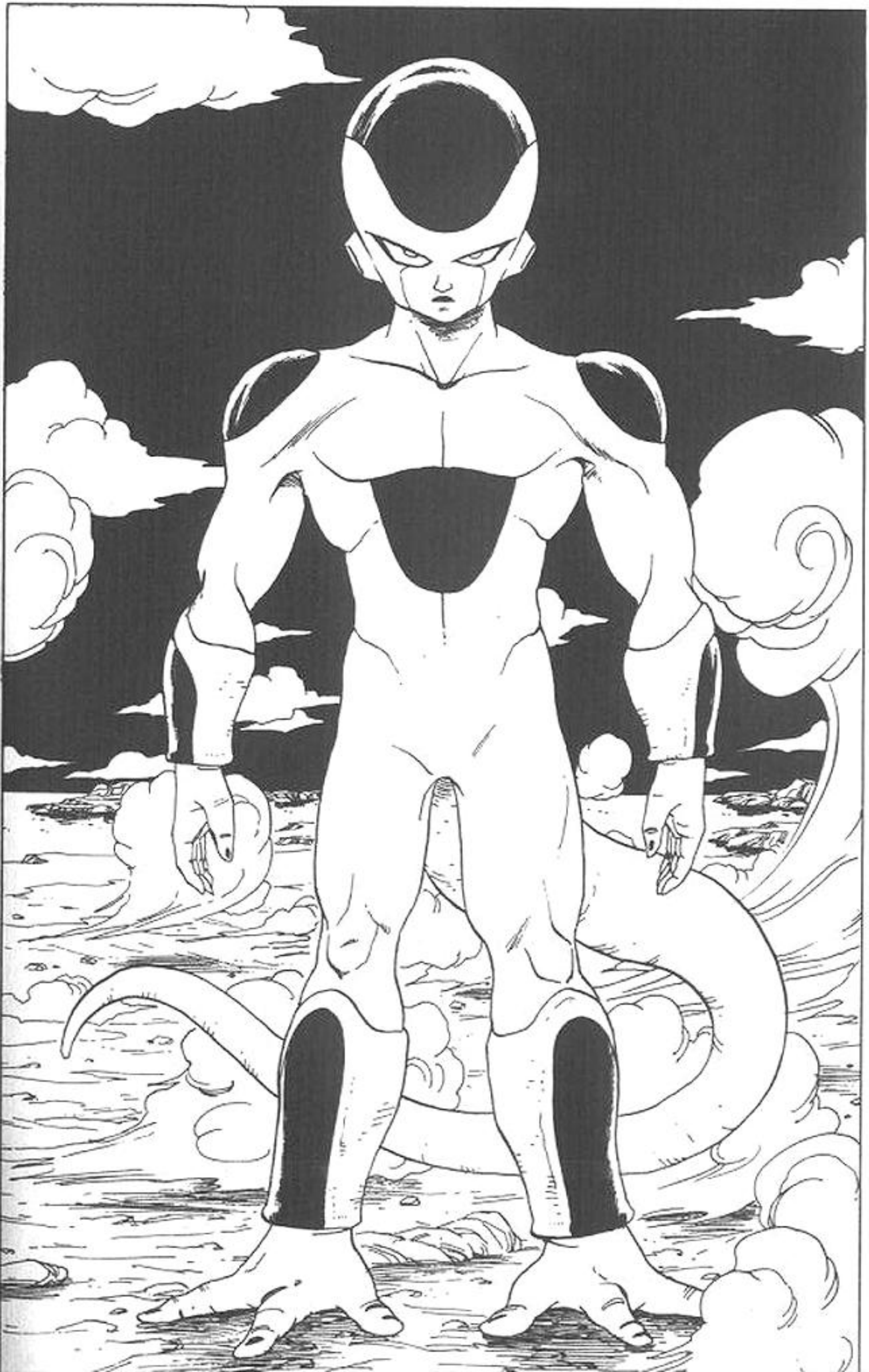

이
빌어먹을
꼬맹이!


……


프리더의
전투력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셨나
보군….
!!


난 지금
초사이어인이
됐다구…!
프… 프리더건
뭐건 떼거지로
덤벼라…!


죽이지
않는 걸
고맙게나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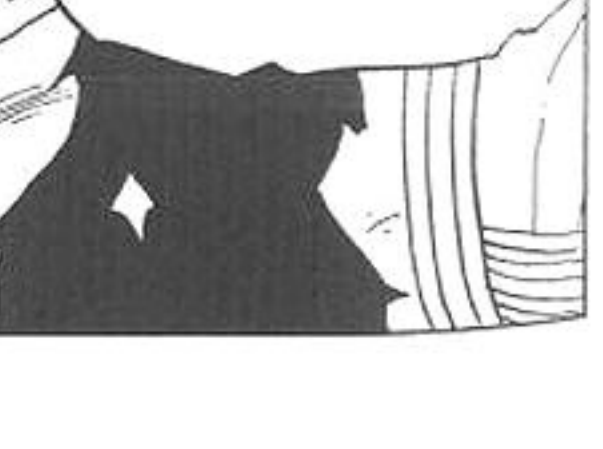
어라…!?

지…
지금까지가
훨씬 귀여웠는
걸….

거…,
겉모습만으로
실력을 판단하지
말라는 좋은
본보기다….

작아지고
말쑥한
모습이네….
박력이….

저… 저게
프리더의
정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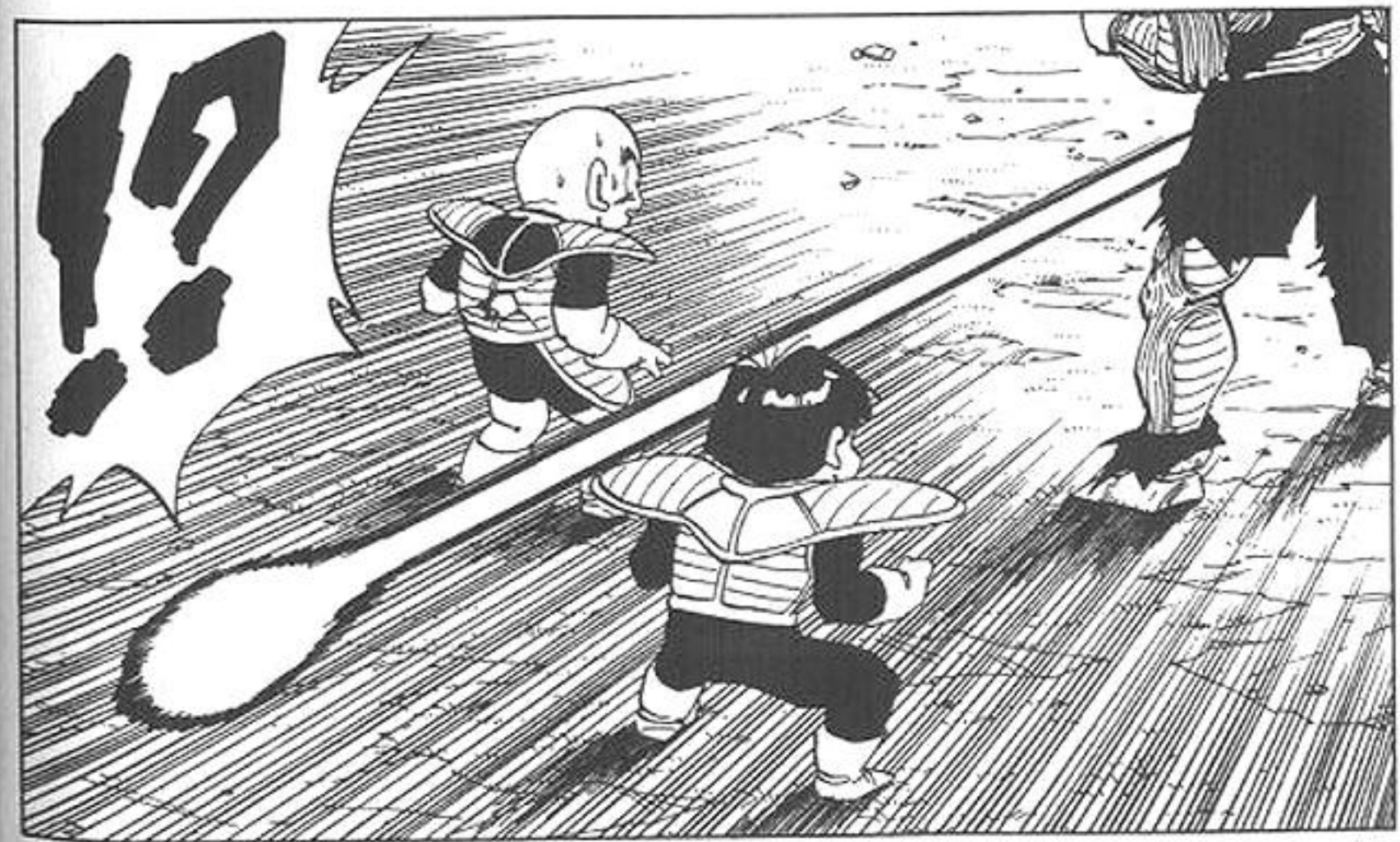


도… 도저히는
아니지만 너희들을
구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미… 미치겠군….
니… 니들을 고생시켜서
겨우겨우 드래곤 볼로
소원을 이루게 했는데…,
미안하구나….


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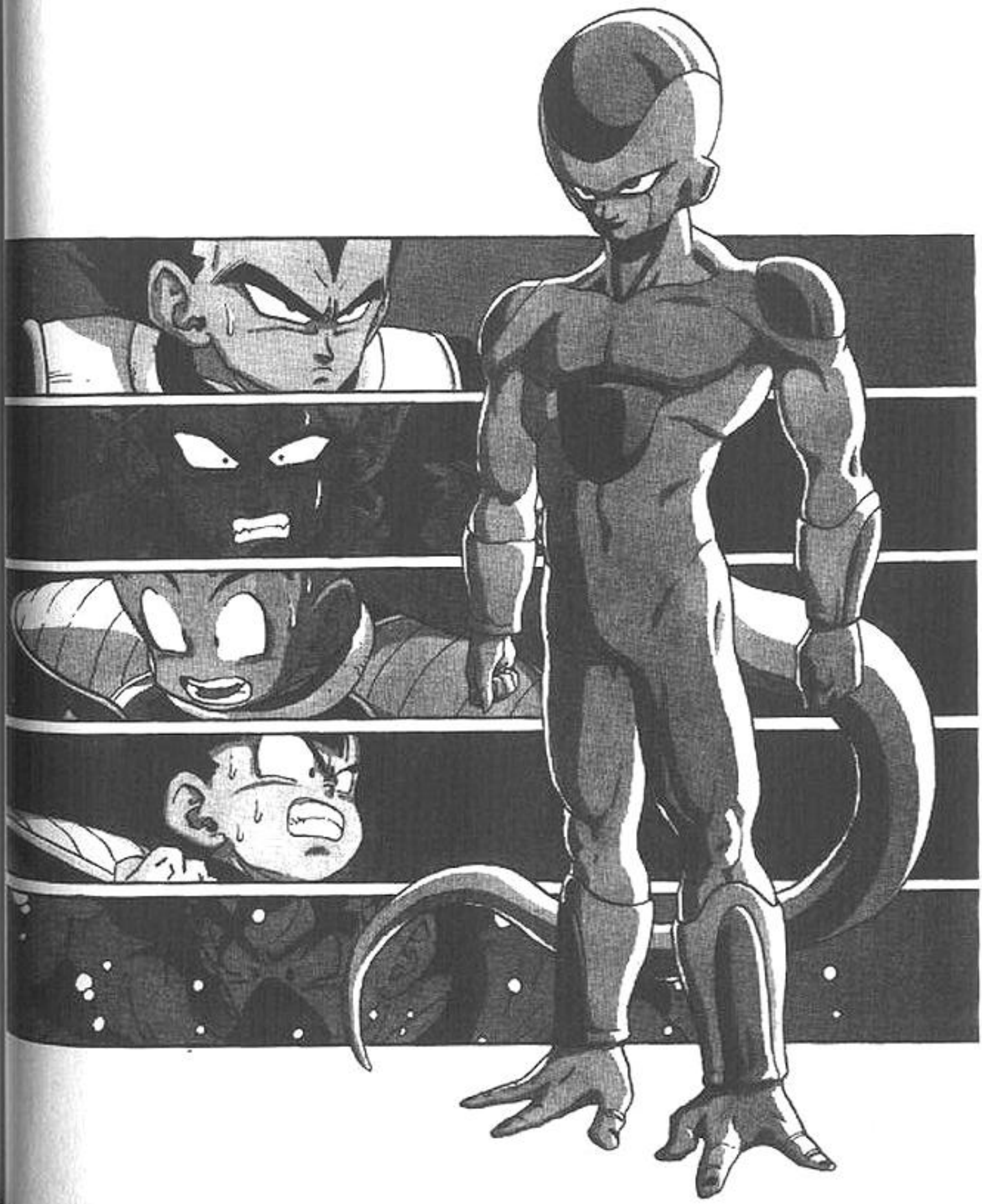

は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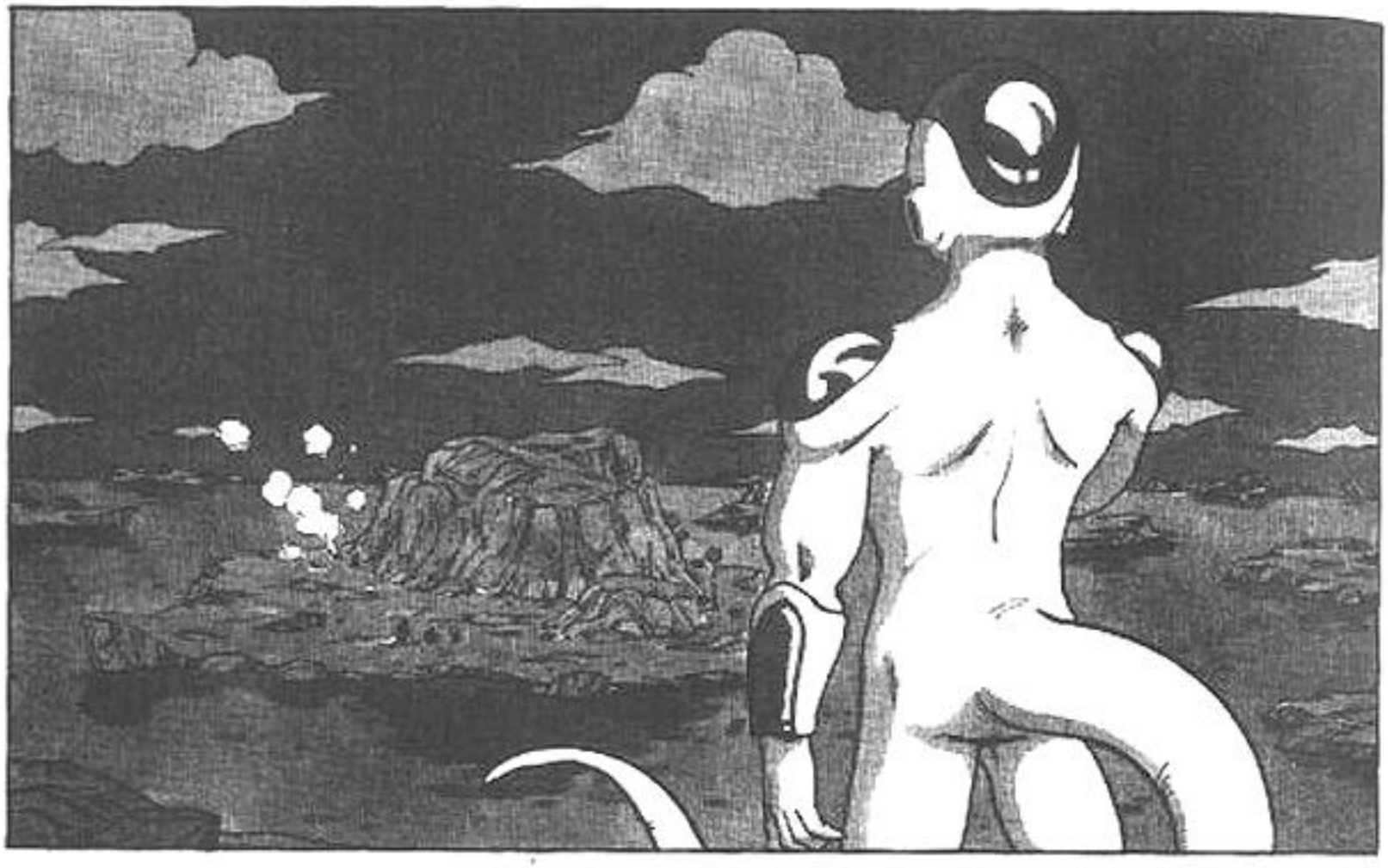

!?


!!
데, 덴데!
보… 보이지 않았어…. 그… 그냥 뭔가 반짝 했을 뿐인데…, 이럴 수가….
이제 다시는 부활할 수 없다….

제305화

프리더냐, 베지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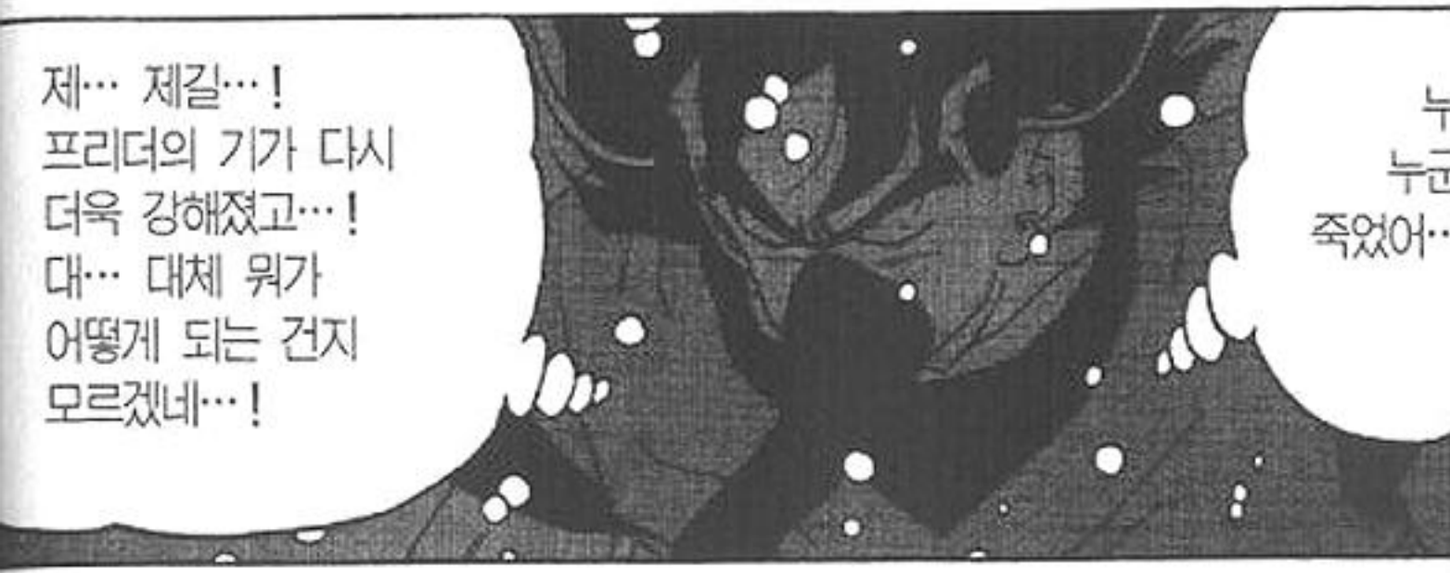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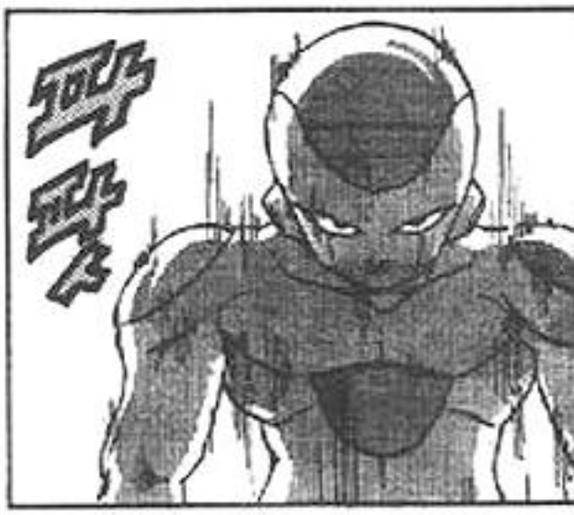

우… 우리가
저 꼬마
덕분에
부활하는 걸
본 거야
…!


제…,
제길
~!!
……!!
데,
덴데가
죽다니
-!!




제… 제길…!
프리더의 기가 다시
더욱 강해졌고…!
대…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누
누군
죽었어…


사,
사라
졌다!


파닷
팟


약속했죠.
지옥 이상의
공포를 보여
주겠다고….


퍼억
욱!!

!!

타아앗!

에잇!!

빌어먹을 자식!!

칫!!






파!!


사, 사라졌다 …!
타 타 탁
탁


파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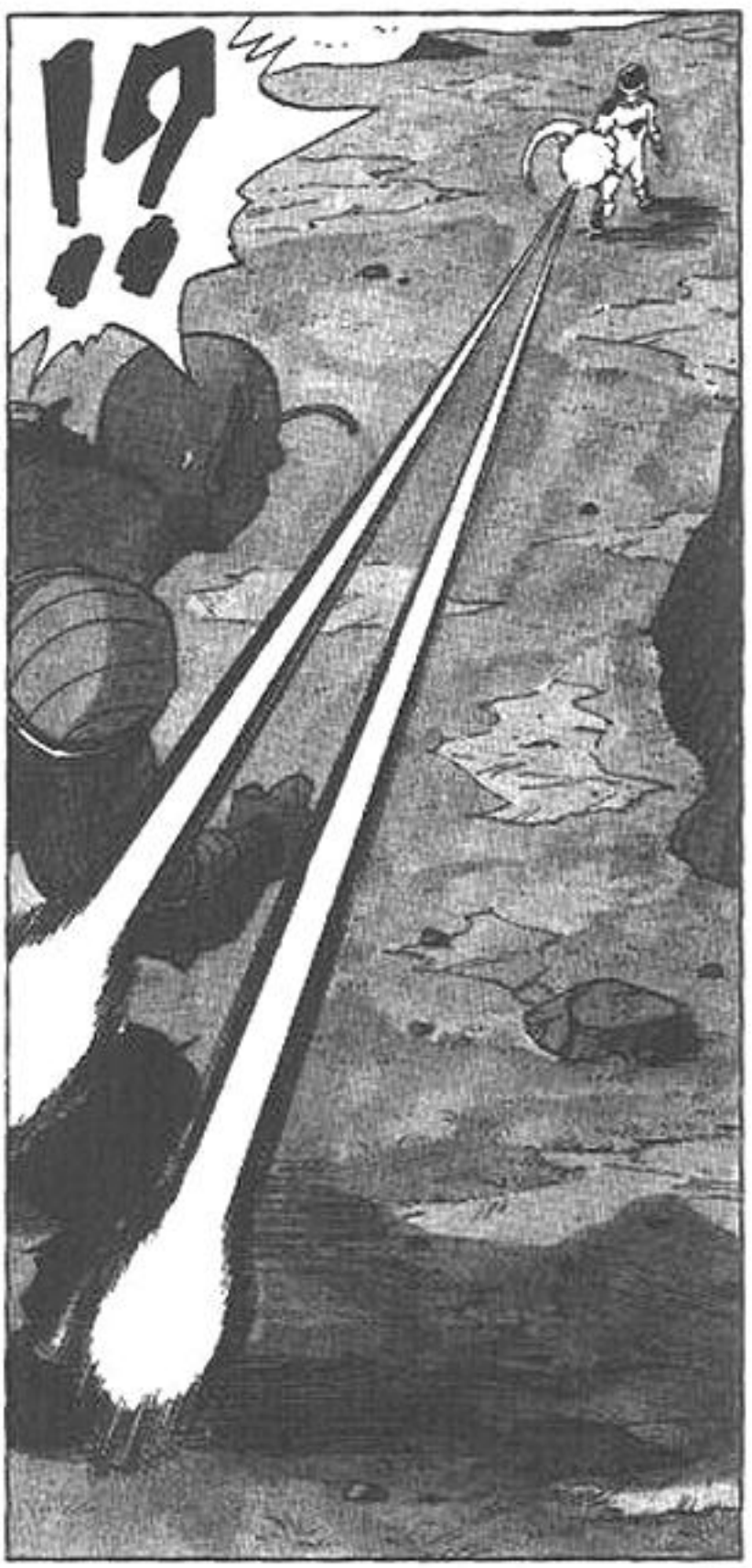

용으신 말씀.
파 밧
!!


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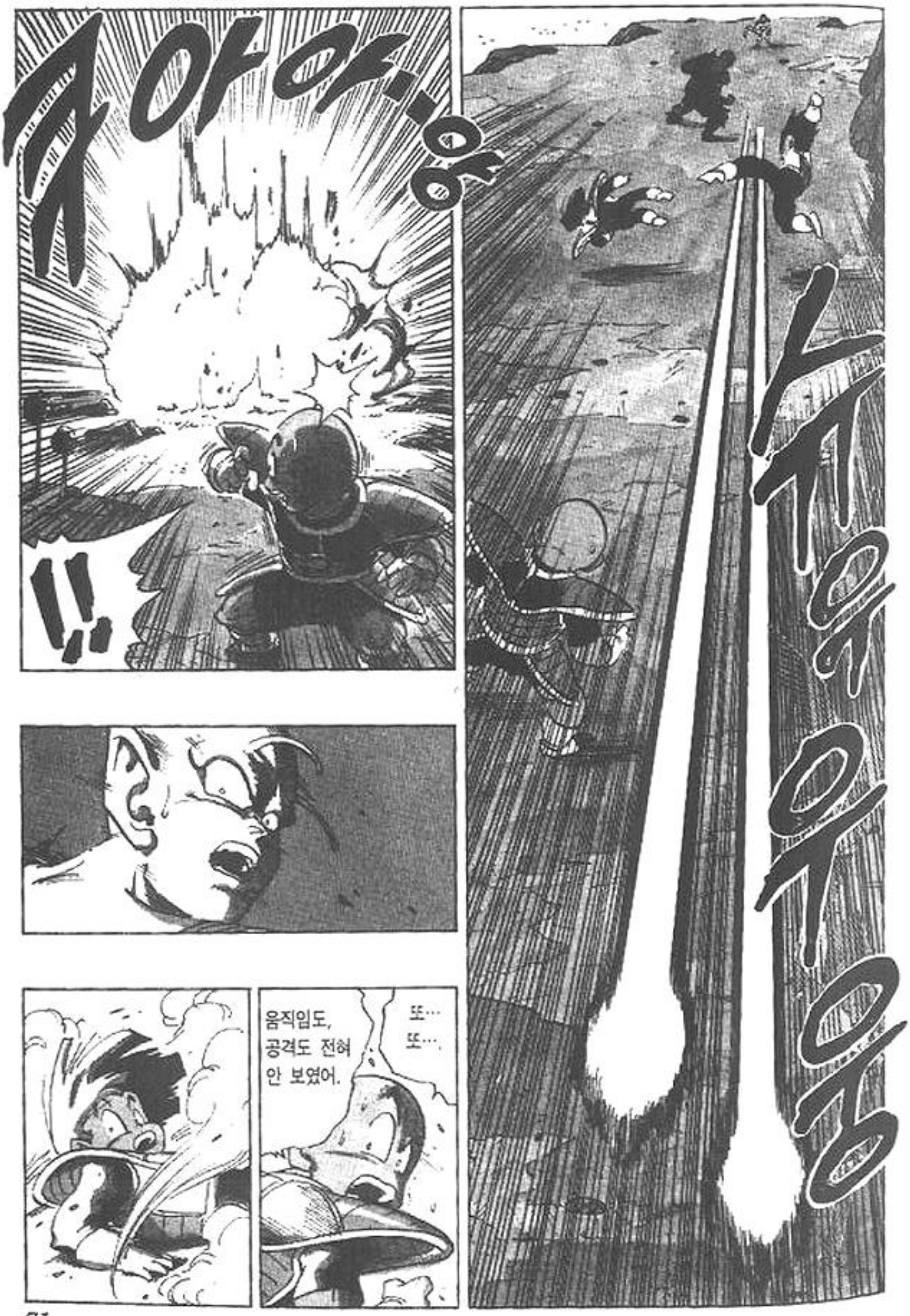

싸 야


나쁜




!?


퍼억
비켜,
이 멍청아!


!!
움직임도, 공격도 전혀 안 보였어.
또… 또….

왜…
왜지…?
시…, 실력이
그렇게 높아졌단
말인가…?

베…
베지터에겐
보였다…!

네놈들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다구….

내가 널
왜 구해
주겠냐….

착각
하지 마.

구…
구해줘서
고마워….

서, 설마
넌 이길 자신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공포가
극에 달해
맛이 간 건가?
대단한
자신감이구나,
베지터….


너희들은
방해가 되니
물러서서
구경이나 잘해.
글쎄….
뭐… !?




여기 있는 게
네놈이 가장
두려워하던
초사이어인이다.
지금 실컷
그런 식으로
히죽거리며
웃어둬라… !


여전히
개그가
대단
하시군….
후후후후
….


그…
그 초사이어인
이라는 게
대체
뭐지…?
카카로트는
이제 필요
없다!
팟
보인다!





다음은, 제306화 손오공… 부활!!

크…
크으….

솔직히 말해
그 정도 스피드로는
도저히 날 이길
수가 없어.

웃기지 좀
말아줘. 어차피
초사이어인 따위는
단지 엉터리
전설이었군.

내… 내겐
이게 한계란
말인가…!

빌어먹을….
그…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나는
초사이어인
이다-!!


쾅
빌어먹을 프리더－!!
우…아앗…!!

베지터
— !!

이 별까지
통째로
박살낼
작정이냐!

키에에
엑!!

번쩍

퍼억


Hoooo
!!


FA
OF
OF
OF


아….
아…
아아….

저놈…, 진짜 대단하다….

이… 이번 것은 베지터 풀파워의 일격이었을 텐데….

가…, 간단한 발차기로 받아 치다니…!

저… 저걸….

베지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이 떨려왔다….

덜덜

덜덜

이번엔….

내가 공격 좀 하겠어, 가볍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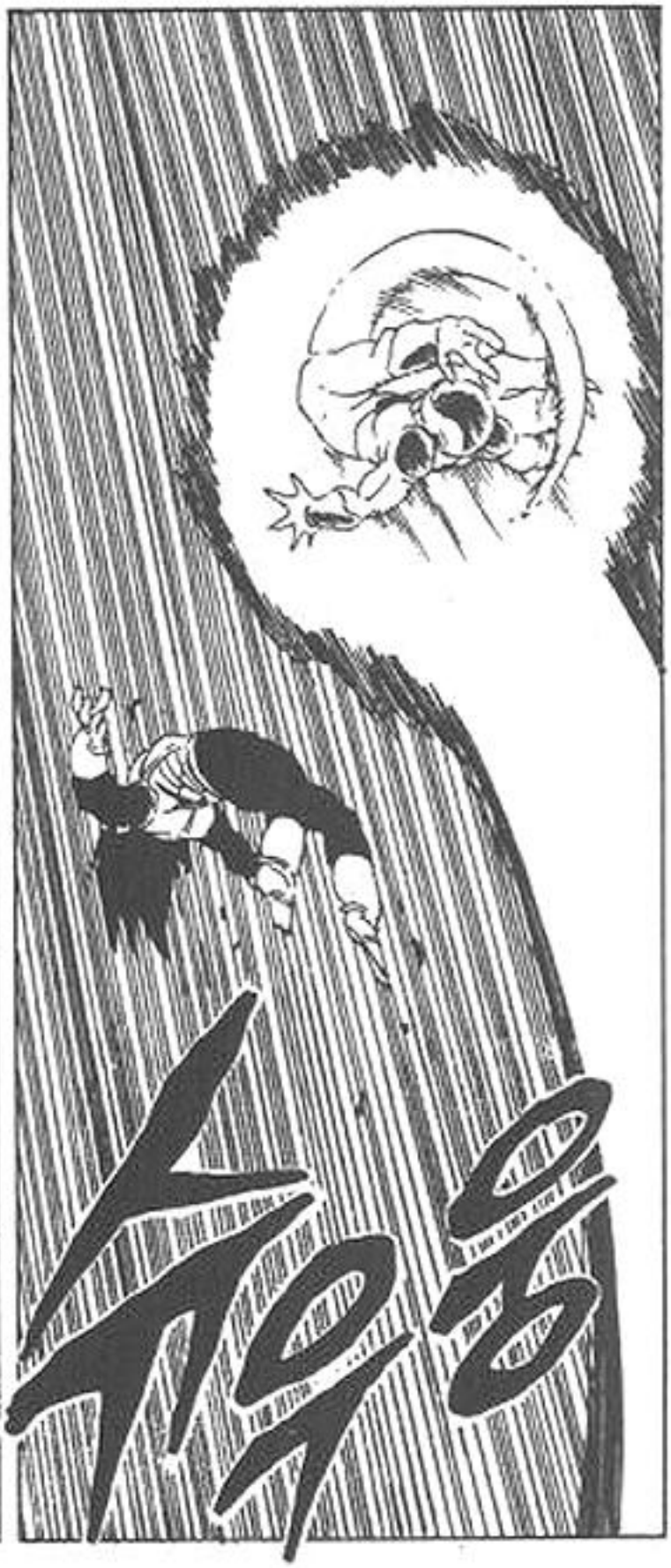
두려움과 절망에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것도 처음이었다….

울먹 울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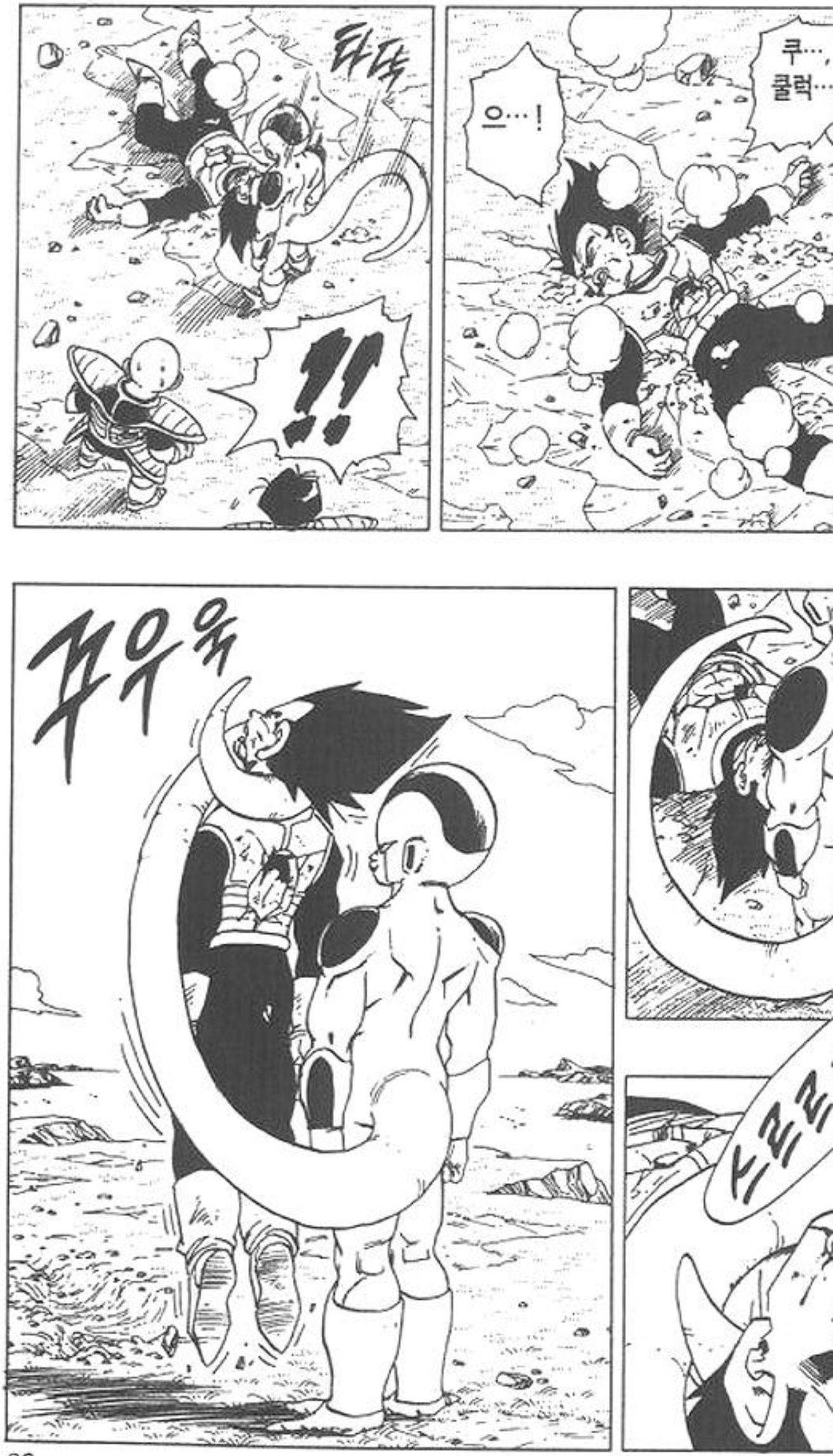

피
어
억


베지터는
이미 전의를
잃고
있었다…
어
어
억


ヨ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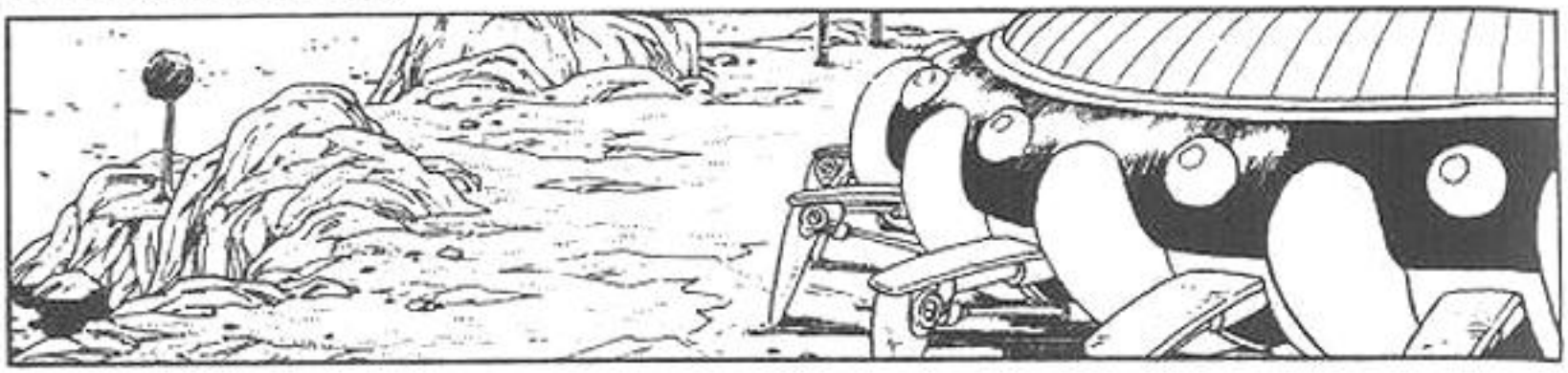

ヨ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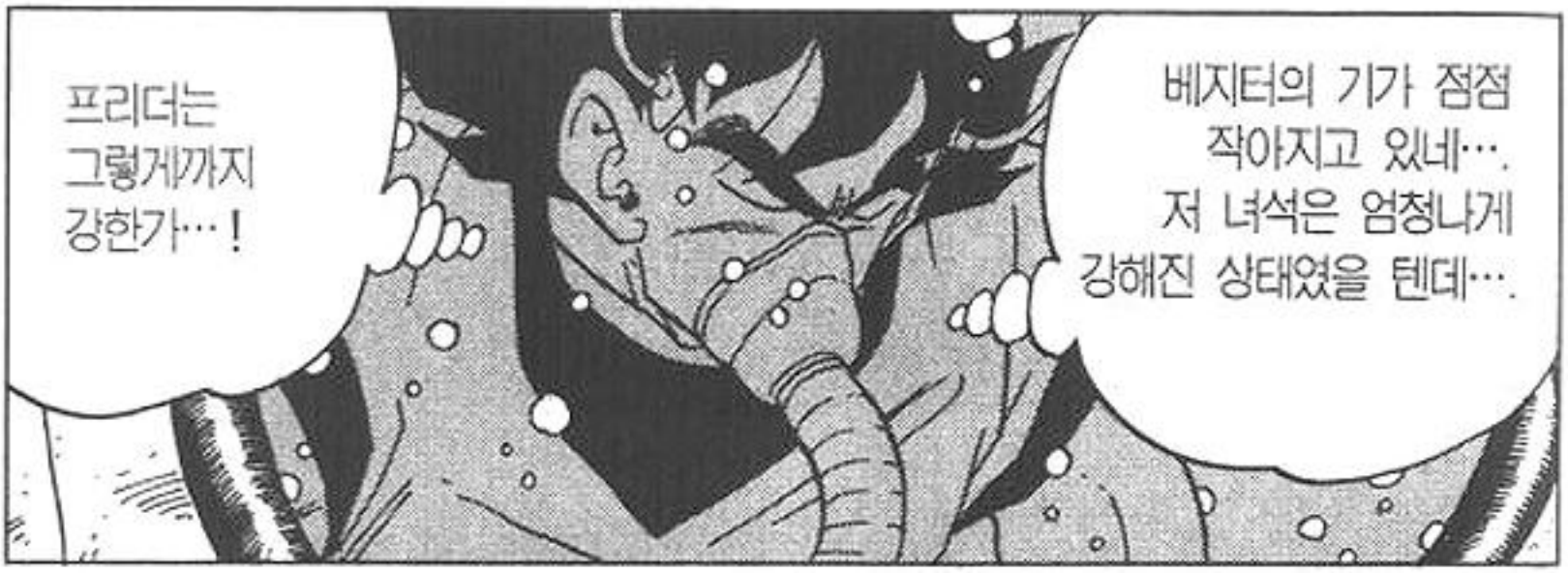

ズテ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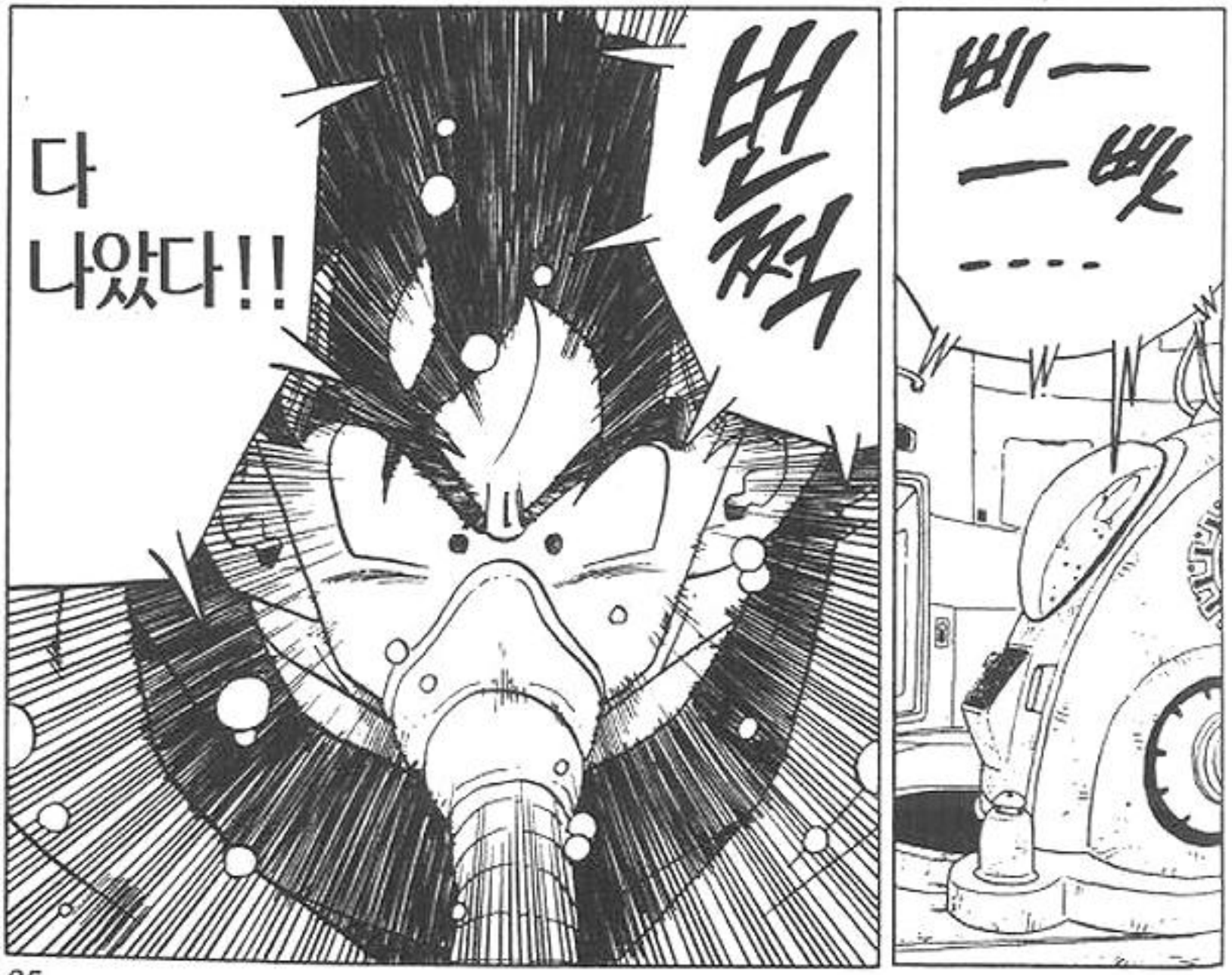

쿠…, 쿨럭…
으…!
타닥
!!
쿠우욱



크으윽!!
.....
할 쯤!!
돕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하지….
전혀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진 프리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피콜로 일행 3명은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못했다….
퍼억
퍼억
퍼억




프리더는
그렇게까지
강한가…!
베지터의 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네….
저 녀석은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였을 텐데….


다
나왔다!!
번쩍
삐—
—빗

24
양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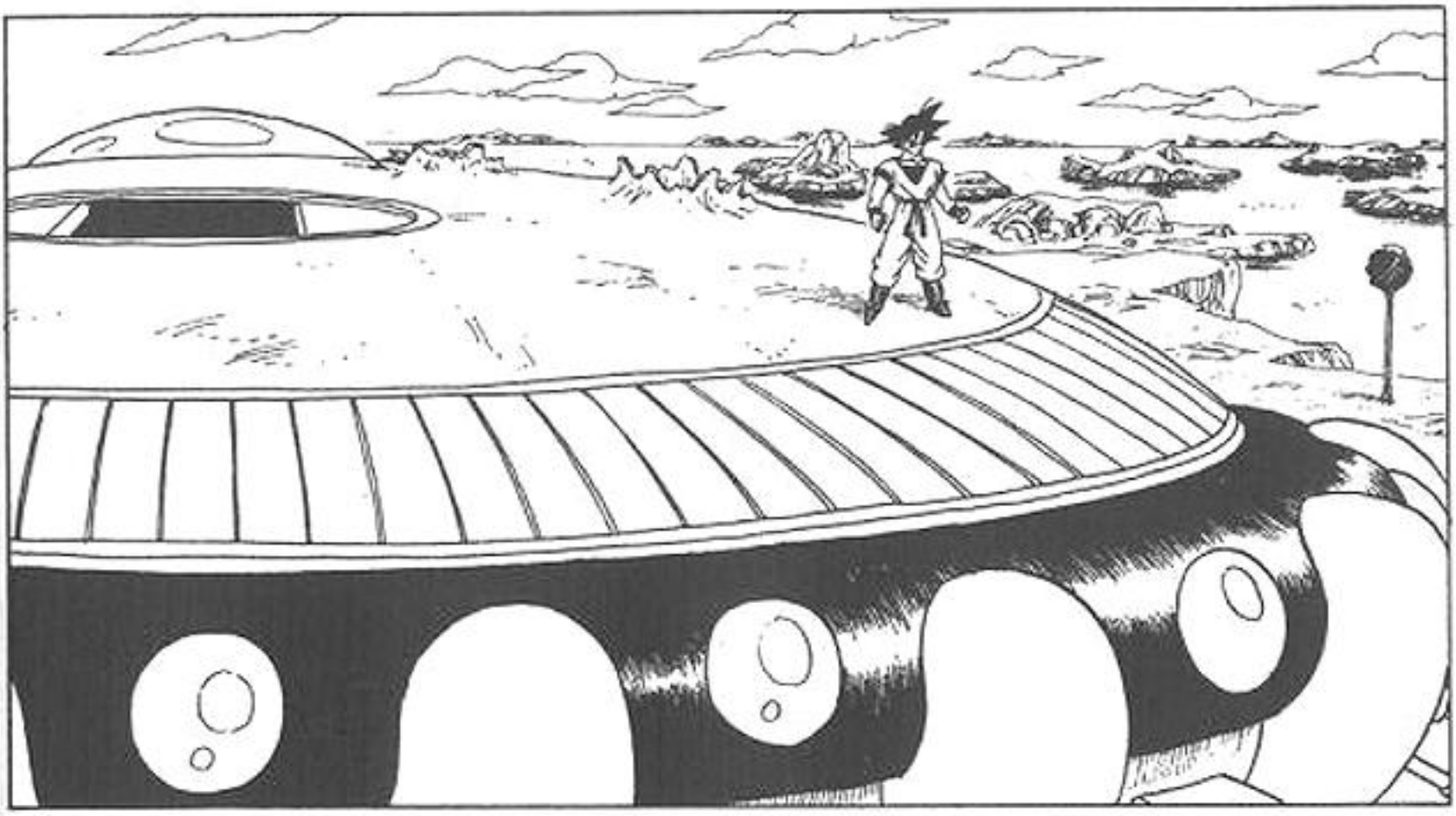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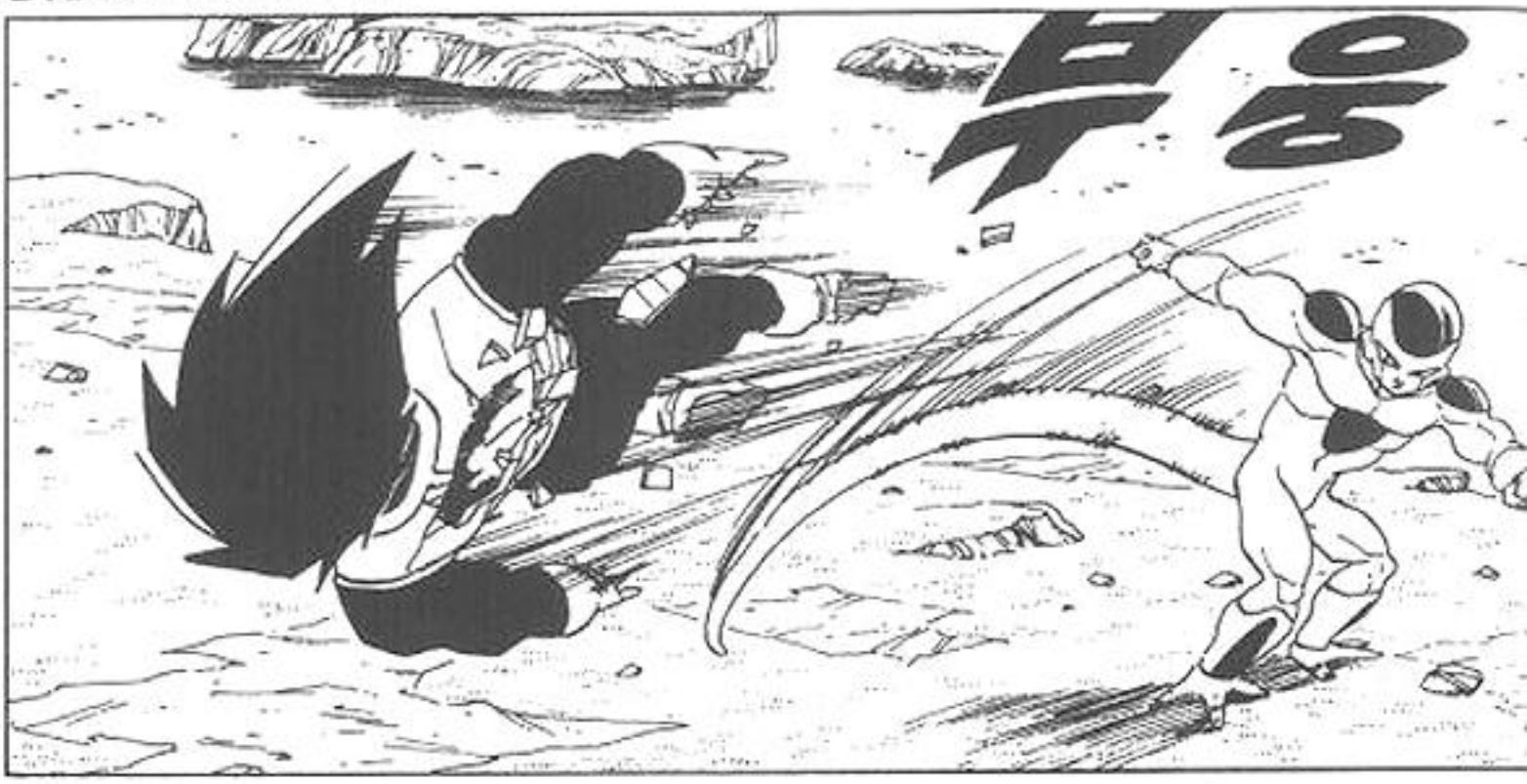


다음은, 제307화 초결전의 포문이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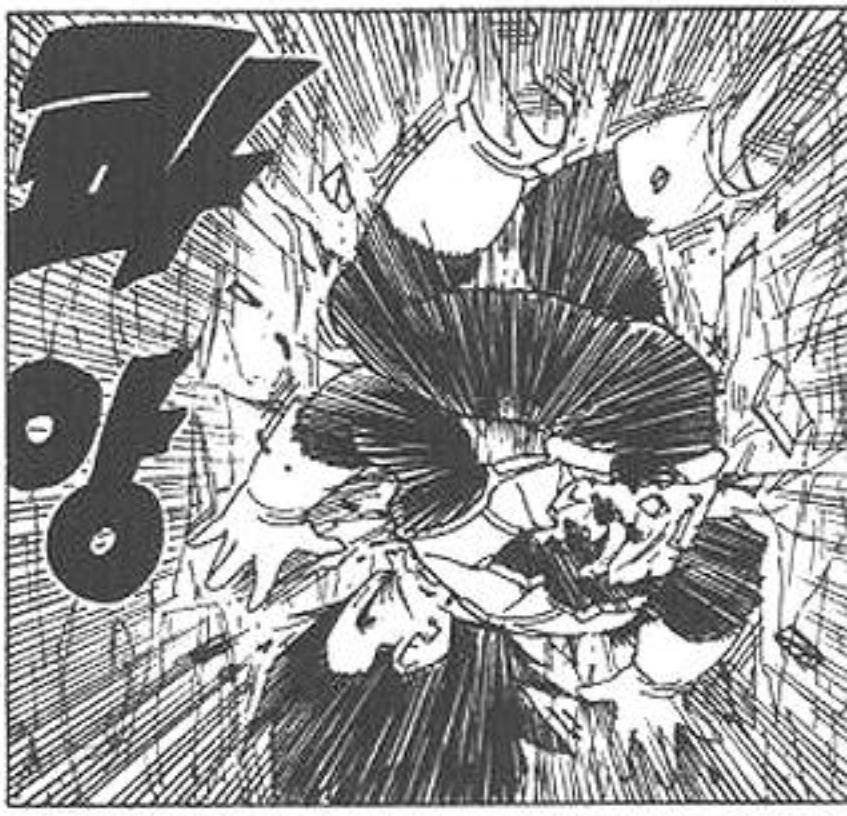



아주
가깝군!!
좋아!


파파파
으…
으으…


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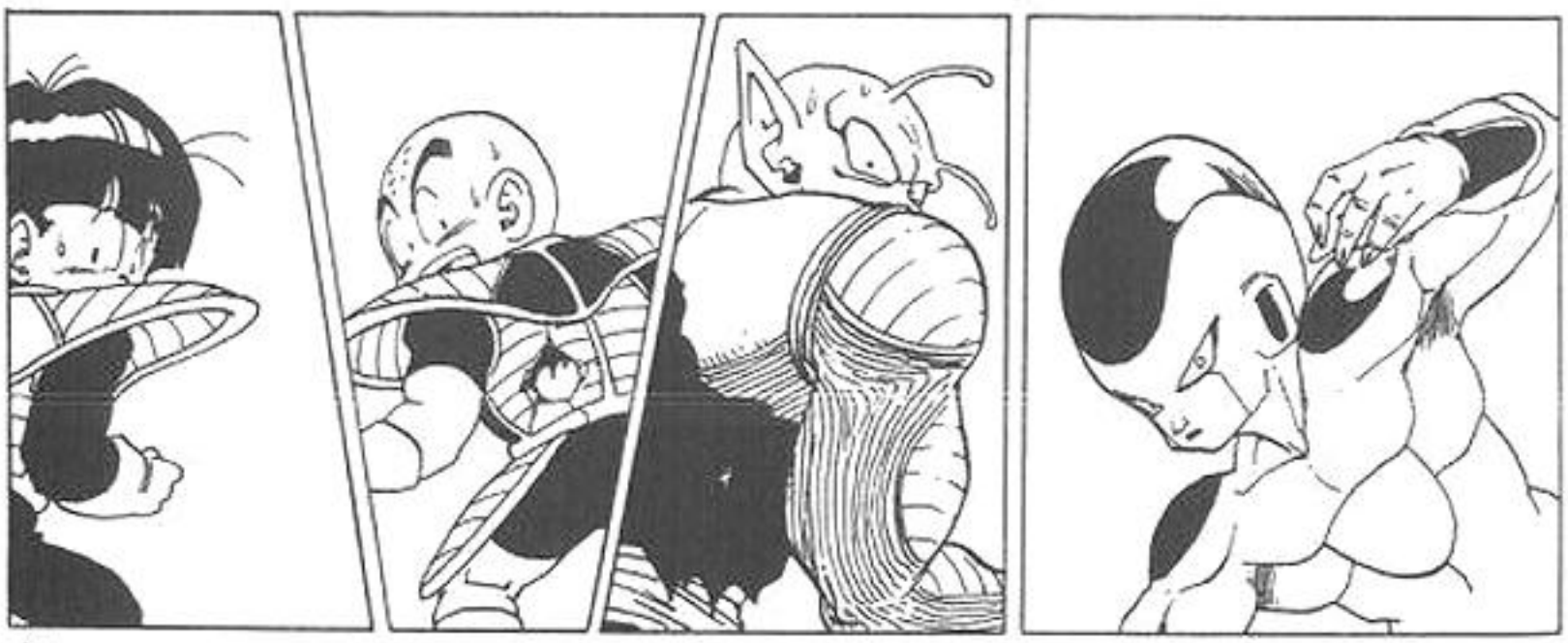



좀
빠르지만,
끝내
버릴까나!
재미없어….
싸울 기분도
전부 없어진 것
같아….



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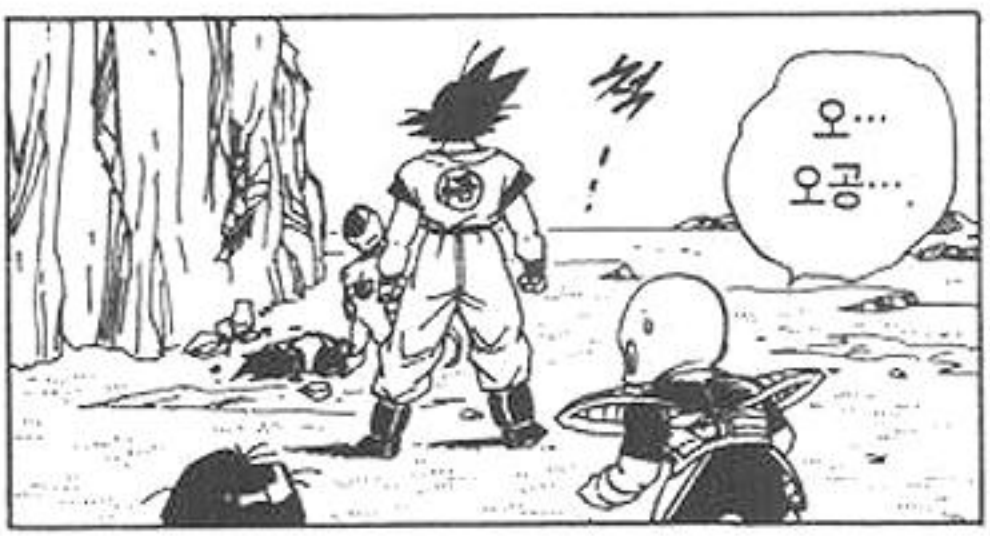





드래곤 볼 덕분에 올 수 있었구만.
그래, 신기하고 거대한 정체는 바로 피콜로였구나!


철썩…


이젠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게….
늦어서 미안해. 덕분에 부상도 다 회복됐어.


철썩!
오… 오공….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애 같네….

네놈이 프리더냐 …?

자… 지금까지 너의 기와는 느낌이 달라….

저… 저게 진짜 오공 맞아…?

아… 아빠….

베지터는 나랑 싸우기로 약속했다. 방해는 그만 하라구.

아직 쓰레기가 남아 있었나….

어디선가 본 적이….

이 녀석…, 어디선가….

크으… 으으…!

너… 너…
너….

카…
카카로트….

그 이름은…,
사이어인이란
말야!?

카카로트…!?

그놈이다!
혹성 베지터를
멸망시켰을 때,
최후까지 저항하던
그 사이어인과
꼭 닮았어…!

앗!!


프리더도 오공도,
그때의 원한이 남아서
프리더에게 죽은
사이어인이야말로
오공의 아버지 버덕이란
사실은 전혀 알리가
없었다….


초…
초사이어인…!?


드…
드디어
한계의 벽을
넘어버렸
구나….
예… 예전의
카카로트가
아니야….


엉청한 놈.
암전히 숨어서
떨고 있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럴
지도….
사이어인은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겠다….


에잇!


타닥
히죽…
피얏
위험해!!
피해라, 오공-!!


너, 진짜 건방진 놈이다.


!!
파팟
휘이익
휘이익


전부
한 손만으로
받아치다니….
이럴 수가….


초사이어인
이다… !!
초….


프…
프리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할걸….
이…
이 녀석이야말로
네놈이 제일
겁내던….


하하—
하하….
하

!!

그…
그래….
꼴좋군…!!

후후후…후…,
프리더….
이… 이제
네놈은
아작났어….

그… 그렇다!
바… 바로 그 전설의
전우주 최강의 전사…,
초사이어인이라구….

悟

!!









다음은, 제308화 베지터의 죽음!!

커헉…!

컥…!

일부러 끝장낼 필요는 없잖아…!

이놈! 베지터는 이미 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단 말야….

베지터….


카… 카카로트…. …아… 아직도 네놈은…, 그런 허약한 소리나 하는구나….
초… 초사이어인이 될 수 없었단 말인가….
초사이어인이니 뭐니 하는 별볼일 없는 단순한 전설을 난 이미 믿지 않는다네.
난 그런 지겨운 놈이 싫어.


이… 이 멍청아…! 좀 비정해져라…!
그… 그런 약한 점만 빼면…, 네… 네놈은 반드시 될 수 있어….
완전한 초사이어인이…!


더 이상 말하지 마! 죽음을 재촉할 뿐이야!
윽…, 콜록!
초… 초사이어인이란 것은….
나… 너처럼 철저 비정해진다 꿈에도 할 수 없
그리고 우선 그 초사이어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는걸…


자…, 잘 들어….
카카로트…. 나… 나와
네가 태어난 별…,
혹성 베지터가
사… 사라져
버린 것은….


바… 바로
프리더가
공격한 거야….


애기
아직
안 끝났나?
심장을
관통당하고도
끈질기군.


우… 우리 이외엔
다 죽였어….
너의 부모도,
내 아버지인
왕도….
프… 프리더는…,
사이어인 중에서
초사이어인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


……!


사…
사이어인의
손으로….


제…발….
부…
부탁해….
프리더를…,
프리더를
처치해줘….




진짜
분했나
보구나….
네가 눈물을
보이다니….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하다니….


그럼 공포의
쇼를 다시
시작해볼까!
이제
겨우
뻗었나…?


베지터….








넌 정말 싫었지만, 사이어인의 긍지는 갖고 있었구나….


나도 알고 있어…. 동료 사이어인들이 죽은 게 너무도 분한 거지…?
저놈에게 조종 당했던 게 후회스러워 미칠 것 같지…?


난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이다…!


내게도 그 금지를 조금 나눠다오….


어디서 헛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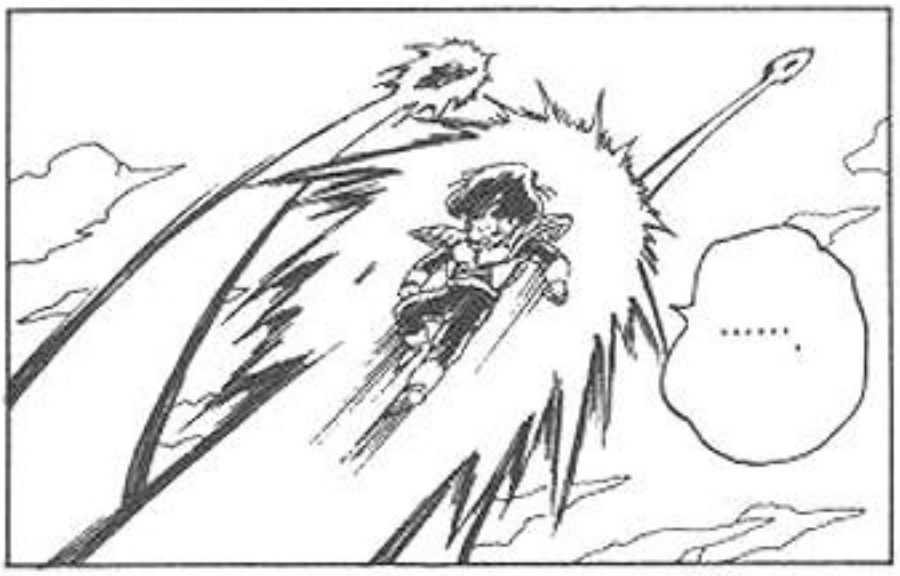

네놈을 아작내 주마!
네놈들에게 죽은 사이어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 나메크성인을 위해서도!

우린
방해만 돼!

얘들아!
여기서
빠져
나가자!


프리더를
없애줘!
아빠,
죽지
마!


빨리
가자!!
오반!
파바바


.....


悟




OF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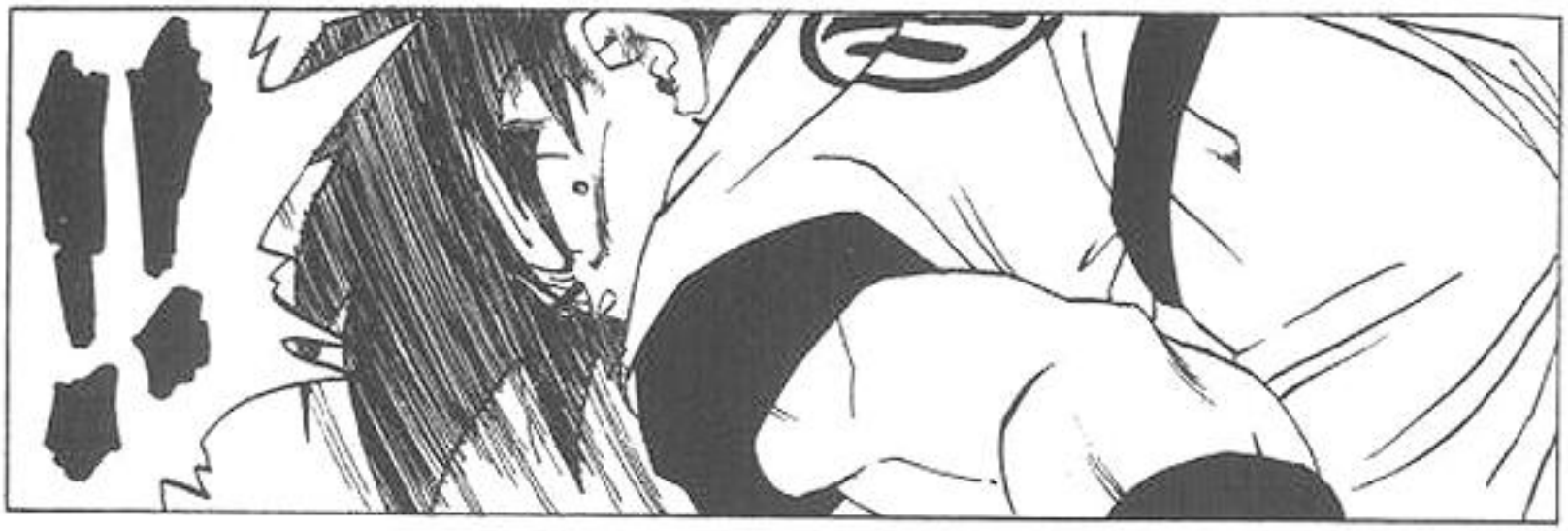

부우


슈슈
빠바


파앙


슈파아아아


퍼억
퍼억
!!
퍼억
퍼억
퍼억




06




!!
크아악
크아악
크…!
크앗…!!
쵸아악…



다음은, 제309화 양보 없는 두 전사!

베지터가 죽었어….

나메크성의 상황은 좀 어때요…?

베… 베지터…! 그 녀석이!?

그래…. 프리더에게 당해버렸어…. 쭉도 못쓰고….

그, 그럼 손오공은…!?

그… 그렇게까지 무서운 놈이라니….

금방 싸움을 시작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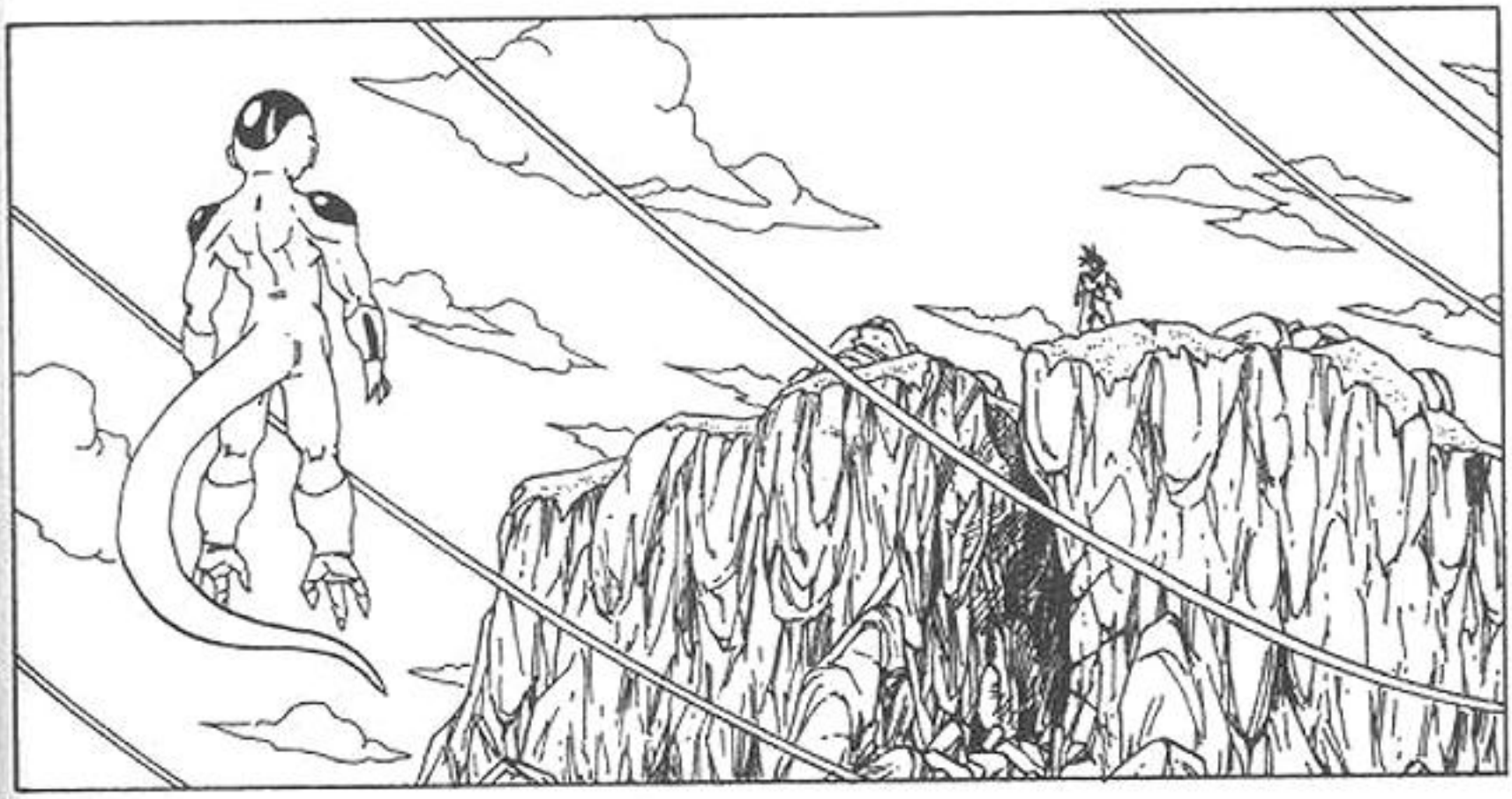

예?
좋은 승부가 되겠지….


베지터까지 죽인 놈이라면 아무리 손오공이라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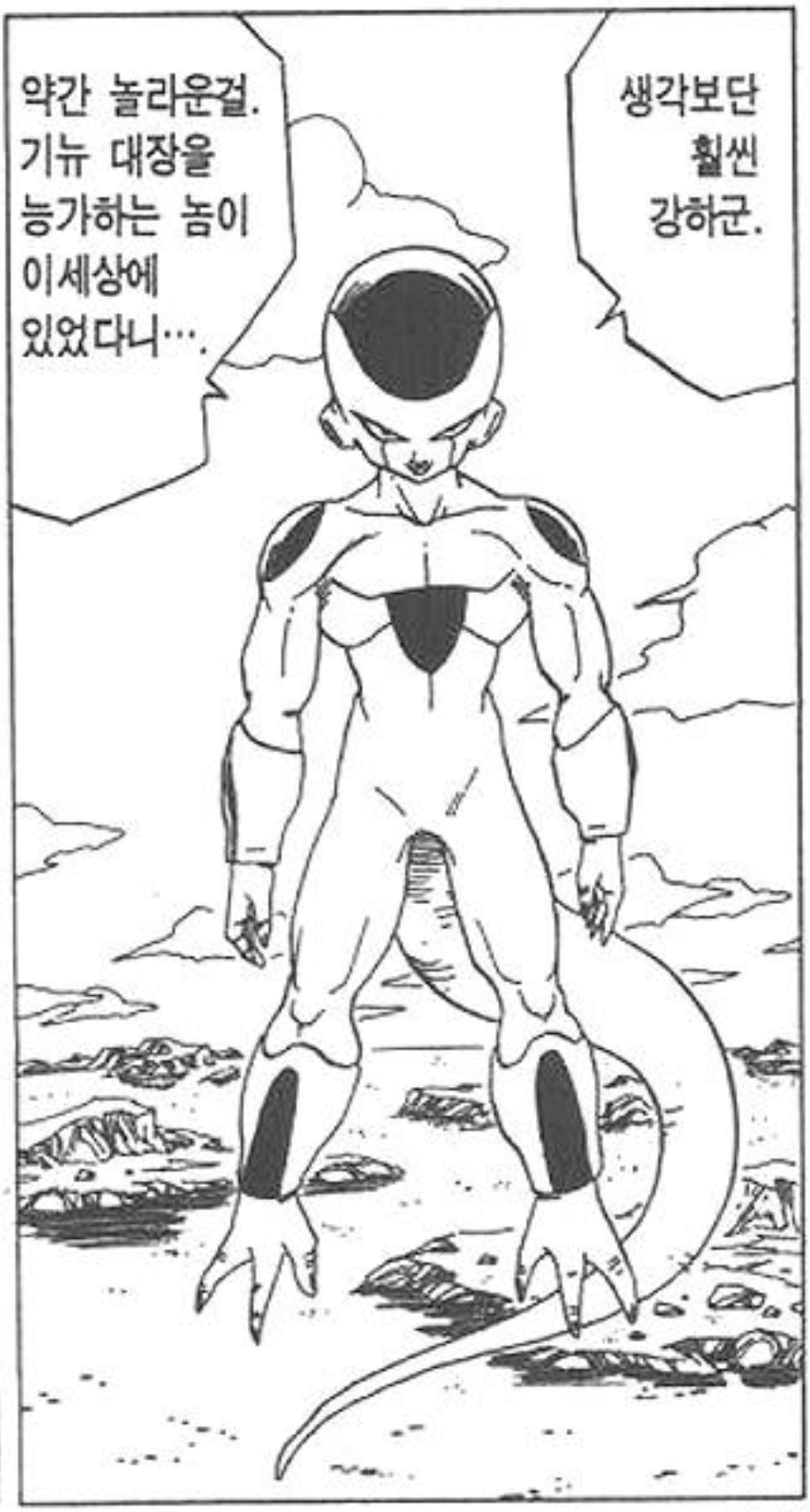

끝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수련할 때하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놈이야, 전혀….
사이어인들은 이상한 데가 있어….
아니…, 오공만 그런지도 모르지….




그… 그럴 수가….
……




그렇지만
나한테는 쩝도
안 돼.


생각보단
훨씬
강하군.
약간 놀라운걸.
기뉴 대장을
능가하는 놈이
이세상에
있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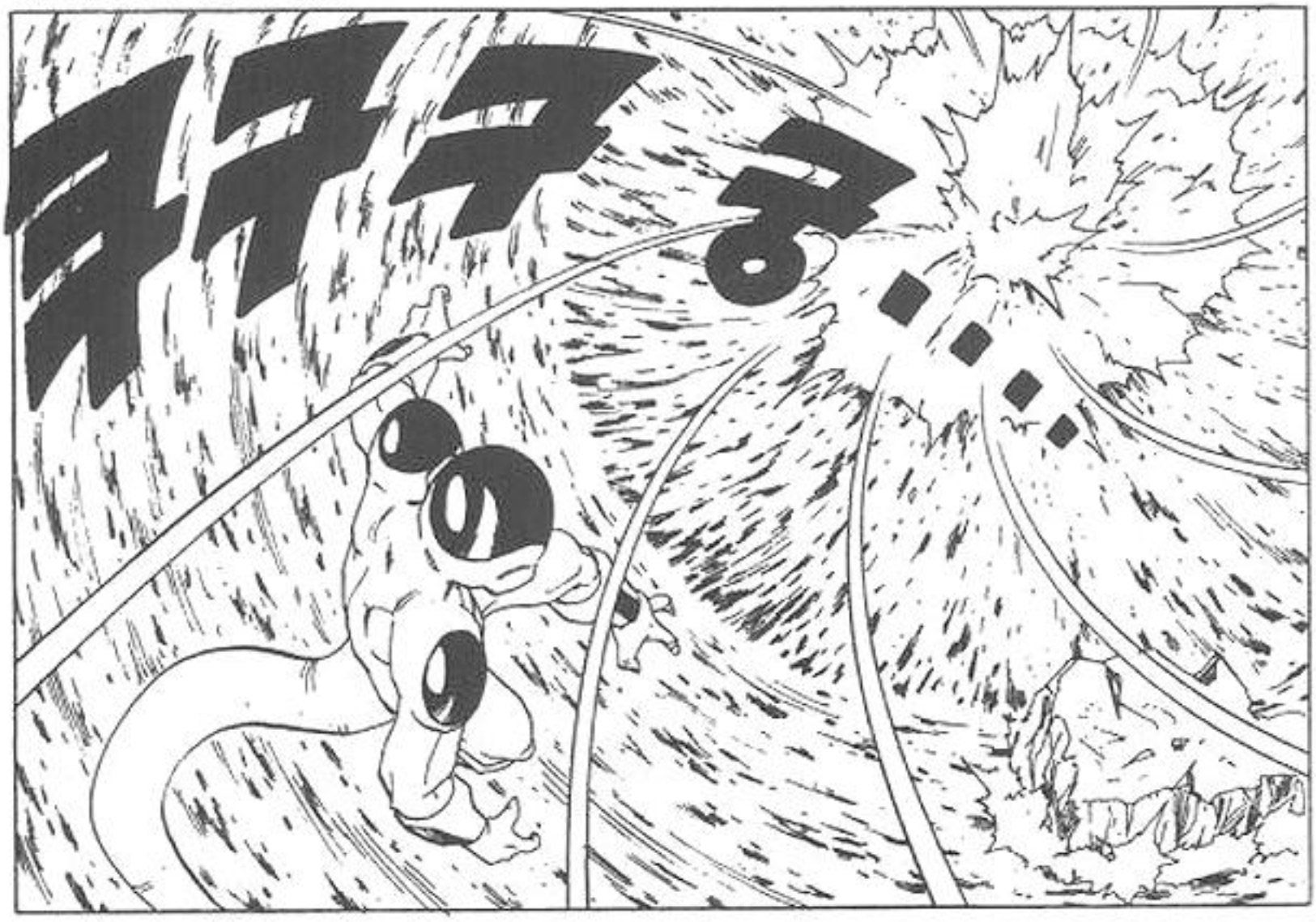

그럴지도
….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호호호 ….
곧 알게 돼.


파악
내 것도 받아랏!


내
기합포에서
탈출하다니!




네가
그 정도로
무릎 꿇을 리는
없을 테니까.
빨리
올라오셔.
으…
으윽~!
뽀르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
까나…?
저놈 정말
스피드는
놀랍군….

좋아-!
그 허점을
이용해주자….

놈은 우리처럼 기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은 없는 거 같아….
절저히 눈으로 보며
찾고 있다….

거, 걱정 마.
아빠의 기는
하나도 줄지
않았어…!

어… 어찌
된 거야…?
오공 녀석,
아직도 안
올라오네….

파…!

퍼펑

에…
네…
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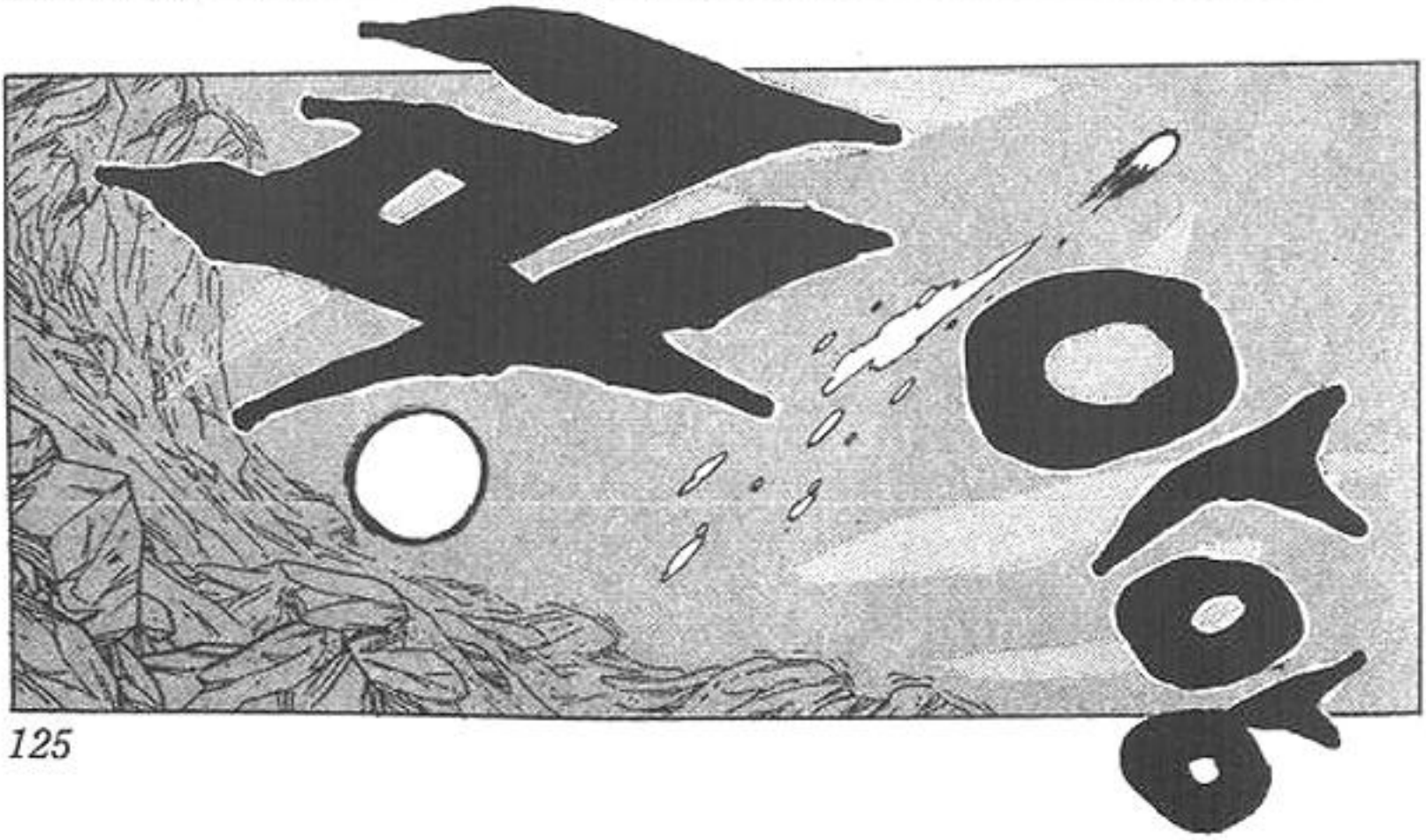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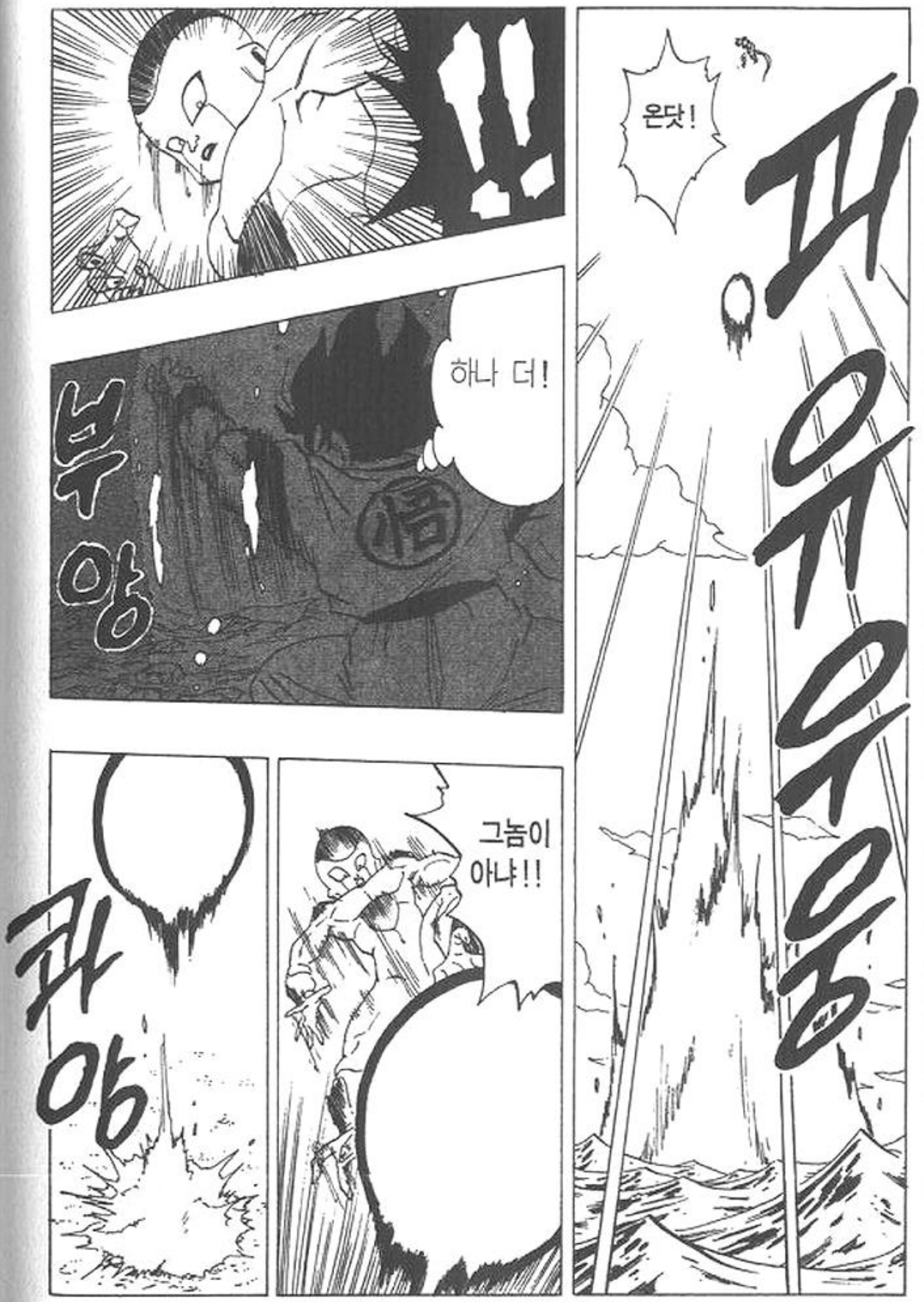
그대로
잠깐만….


좋아-.
간다….


어떻게
된 거지…,
아직 멀었나?
멋진 걸
보여
주려는데….


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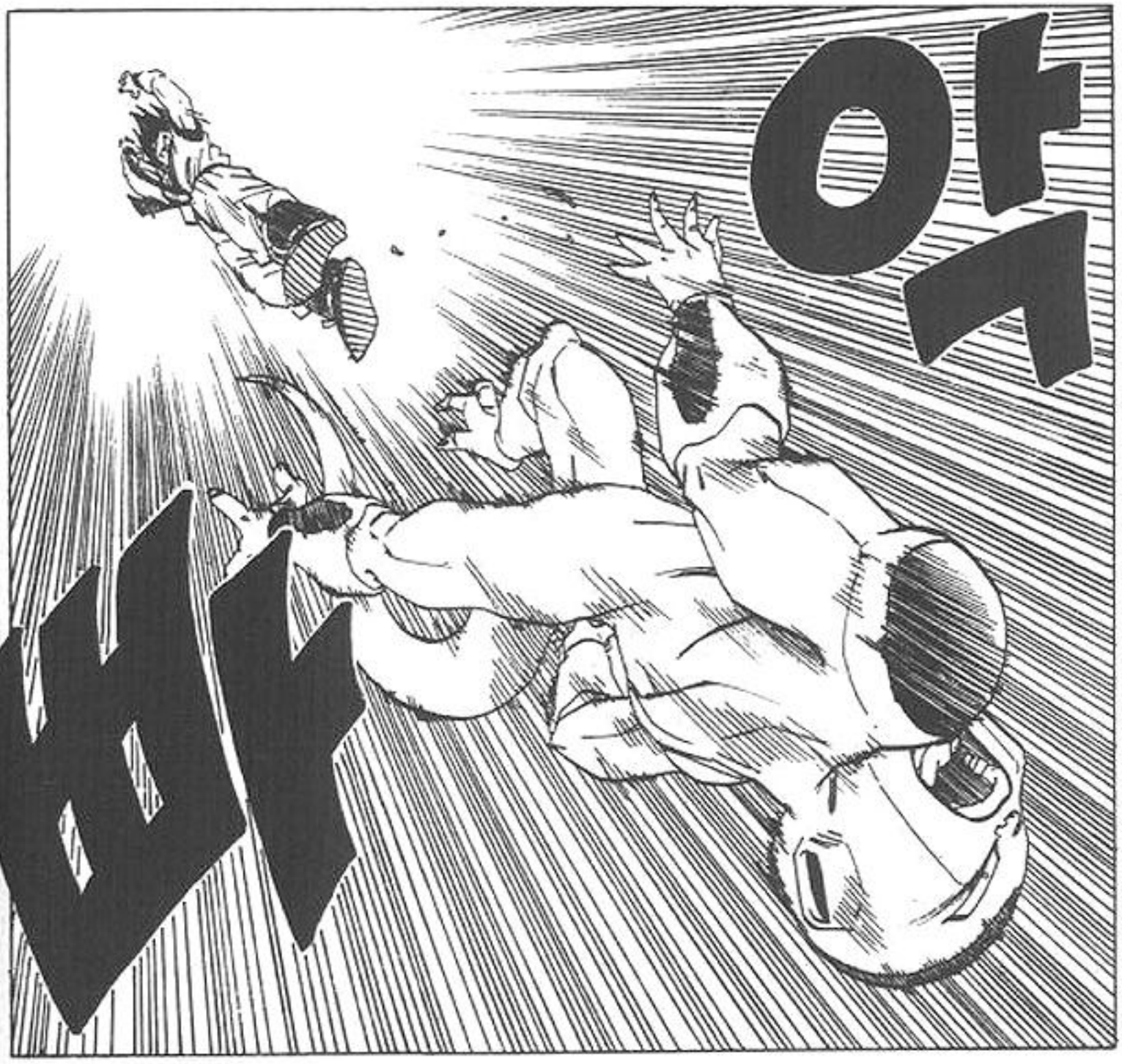

!!
온닷!
피유웅
하나 더!
부앙
그놈이 아냐!!
콰앙

이쪽 이군!!

아닌데!!

타핫 ー!!

!!


OH
HH


AOF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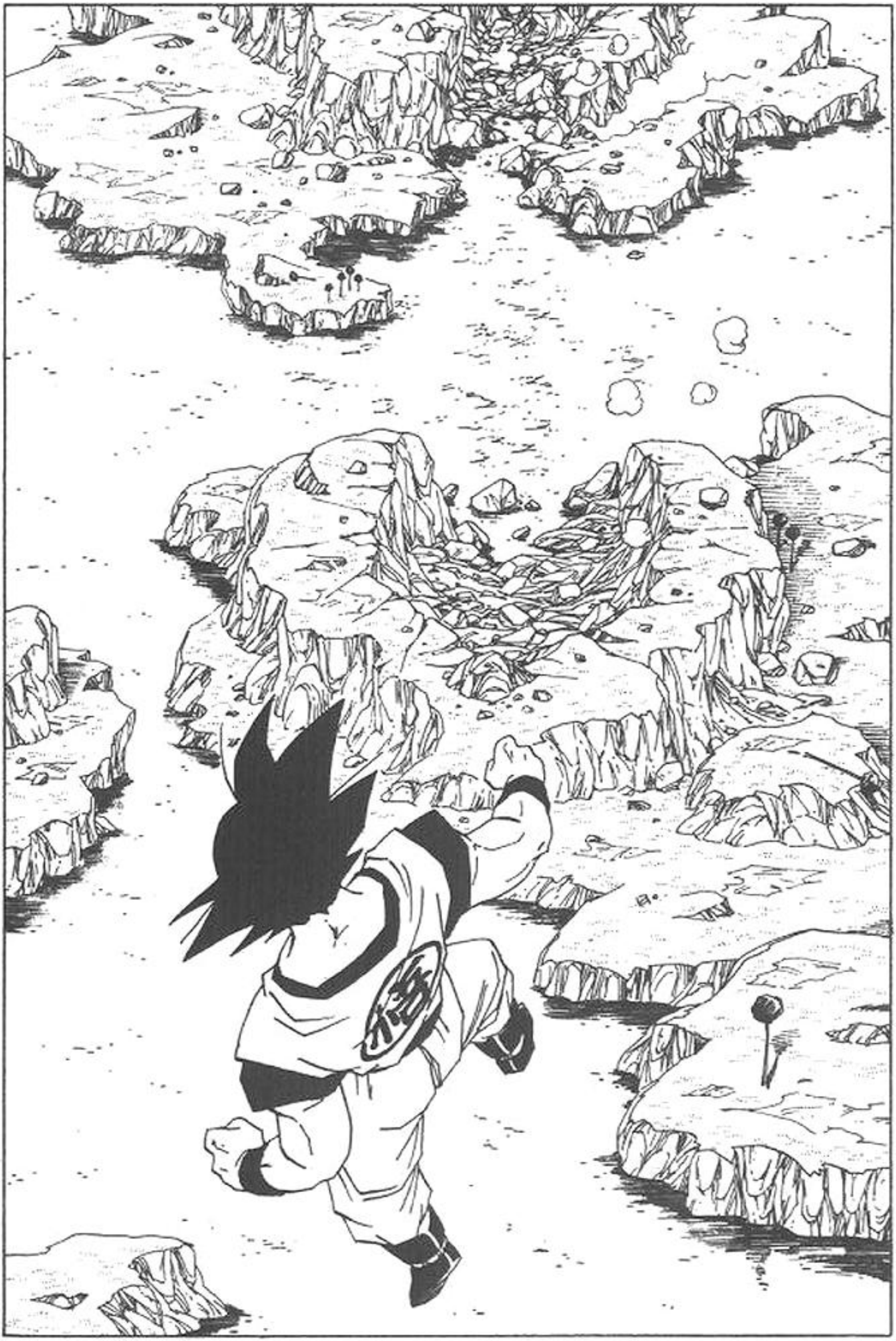








다음은, 제310화 서로간의 탐색



내 몸에
먼지를 묻힌 건
부모님 말고는
네가
처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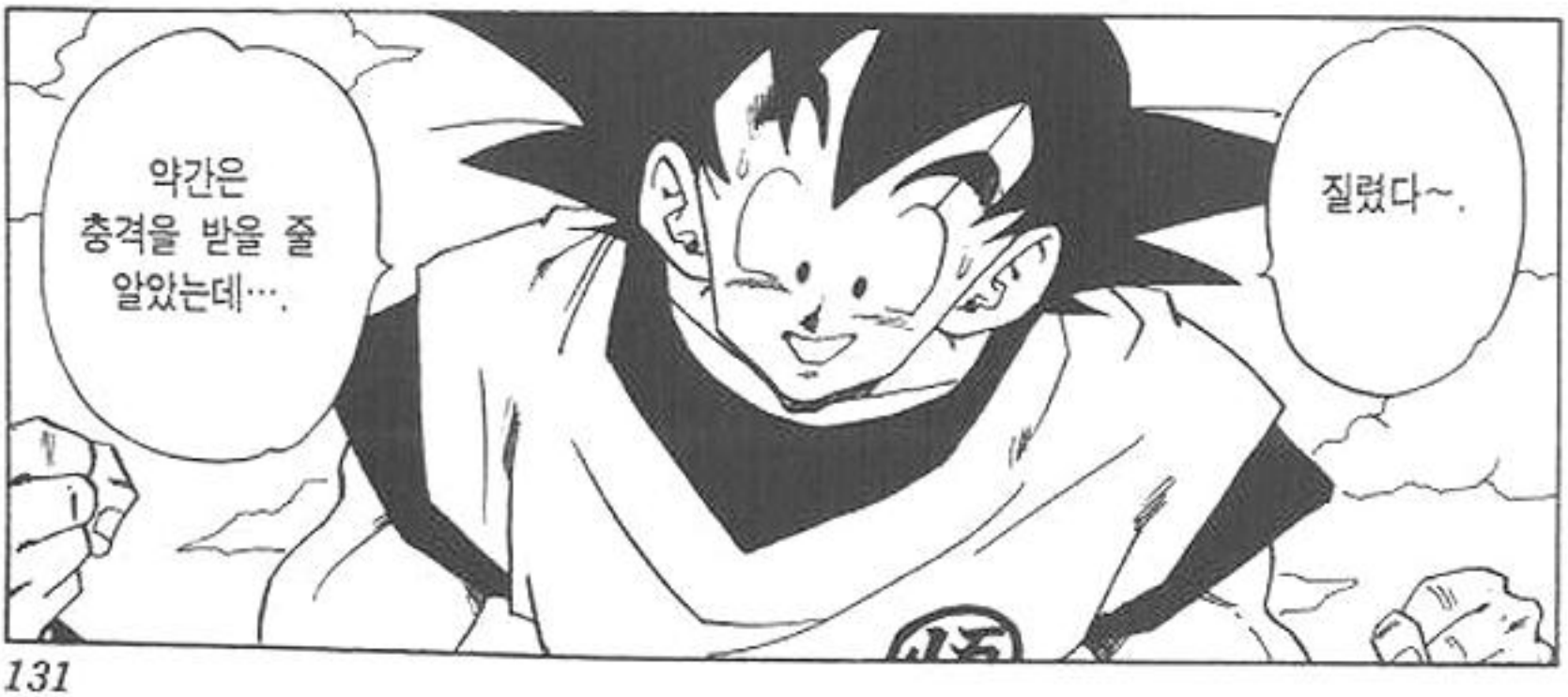
이 정도까지
날 공격
하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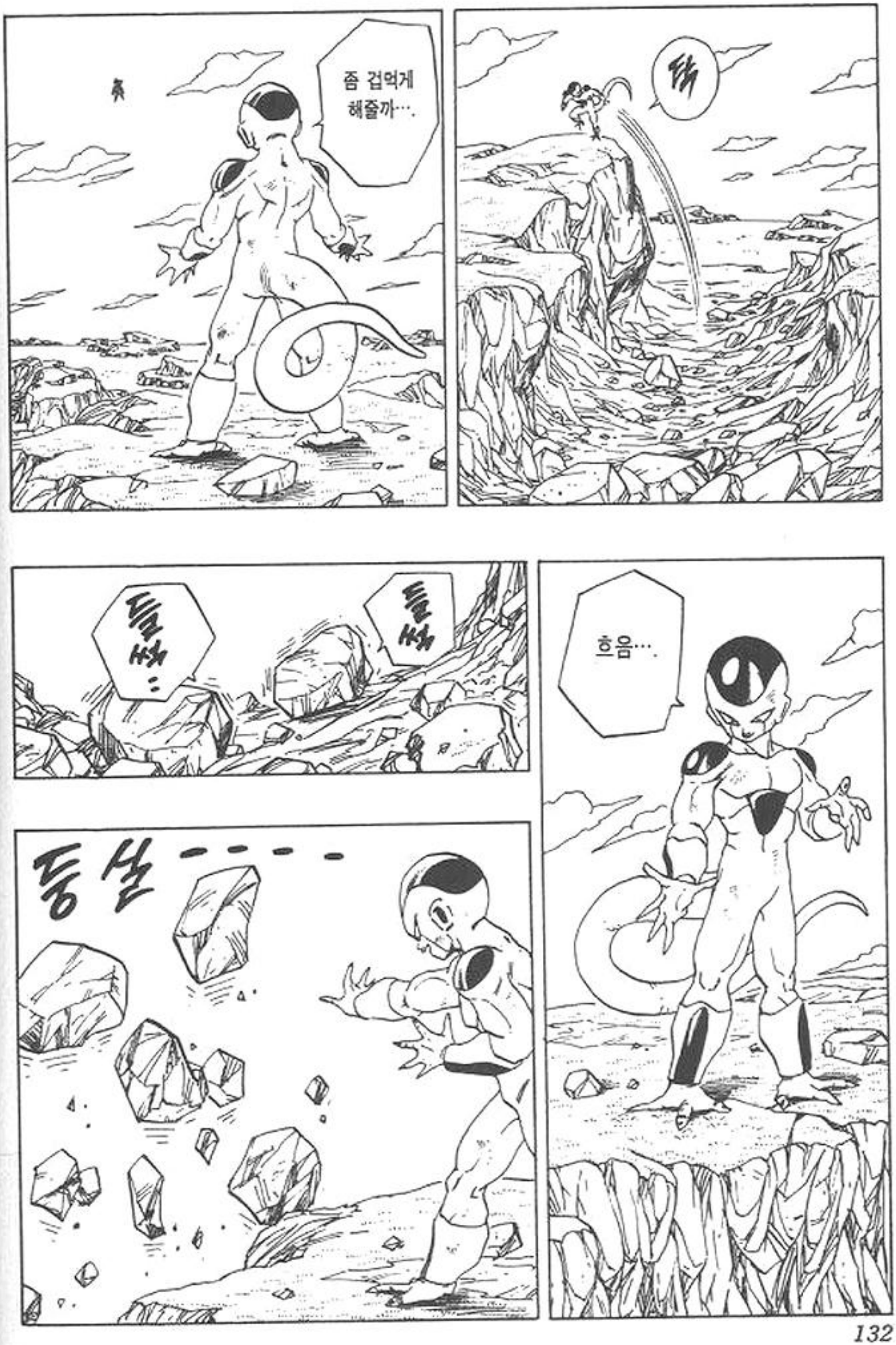


내 평생
처음 당하는
일일지도
몰라….

이렇게
흥분되기는….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나….




좀 겁먹게 해줄까….
흐음….
둥실----


핫!!


오잉!?


WHOOSH


아앗!
얍!
탓!!
호잇!
제길! 초능력이란 건가!!


휴우!
크, 큰일 났다…!
걸렸다!
퍼엉


우…,
움직일 수가
없어…!!
이번엔
죽을 지도
몰라.


이얏!!

으아아아
– !!


콰콰콰..쾅
큭!!
우와앗!!
콜록!
콜록!
콰콰콰콰....
오…
오공….

놈은 마음만 먹으면 이 별쯤은 먼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거든….

프리더는 지금 장난치고 있어….

지…, 진짜 무서운 놈이다….

그 녀석은 본 실력을 숨기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마라….

아… 아빠는….

앗!

탁

뒤를 봐….

뭐!?

얍!!

퍼억

앗!!

휴우…. 조금 위험하긴 했네!

지금 이런 공격은 조심해야 겠는걸….

헤에

!!

암마,
남의 별
함부로 파괴
하지 마!

……

오공 녀석….
대… 대체
어떻게….

폭발한 순간에
금력묶기로부터
초스피드로
빠져나온 거야….

그… 그런
굉장한
기술을….

그… 그
눈 깜박할
사이에….

두 놈 다
괴물이야….

빌어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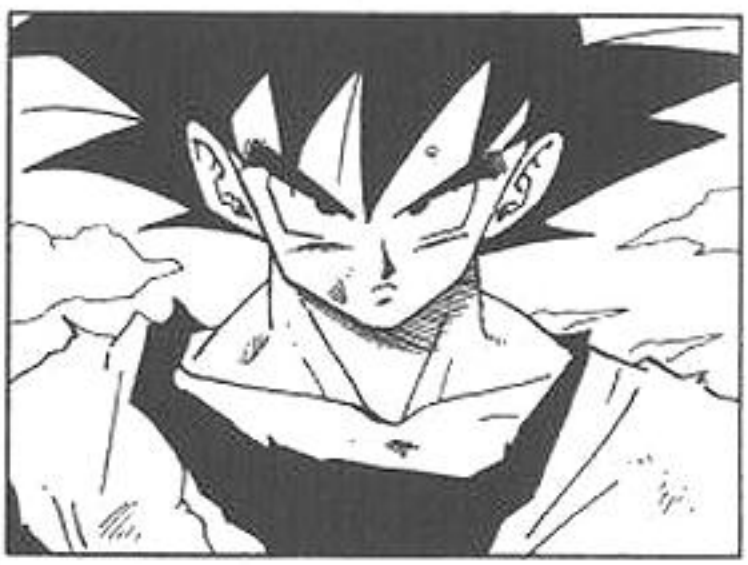
끈질긴
놈이네….

과연,
날 조금은
열받게
만들었구만….

피차
마찬가지….











다음은, 제311화 육탄전

공중전과 지상전…, 어느 쪽이 네 특기냐?

선택하라면 지상전으로 할까….

……


휘앙
휘앙
스윽
탁
탁

아님 여유 있다는 건가?

서비스가 좋으시군….

호호호…. 이래봬도 난 친절한 편이거든….

아참! 또 한가지, 아주 특별한 대서비스를 더 해드릴까…?

양손을?

진짜 통 크네.

양손을 쓰지 않고 상대해 드리지.

어때?

내가 먼저 공격해도 괜찮을까?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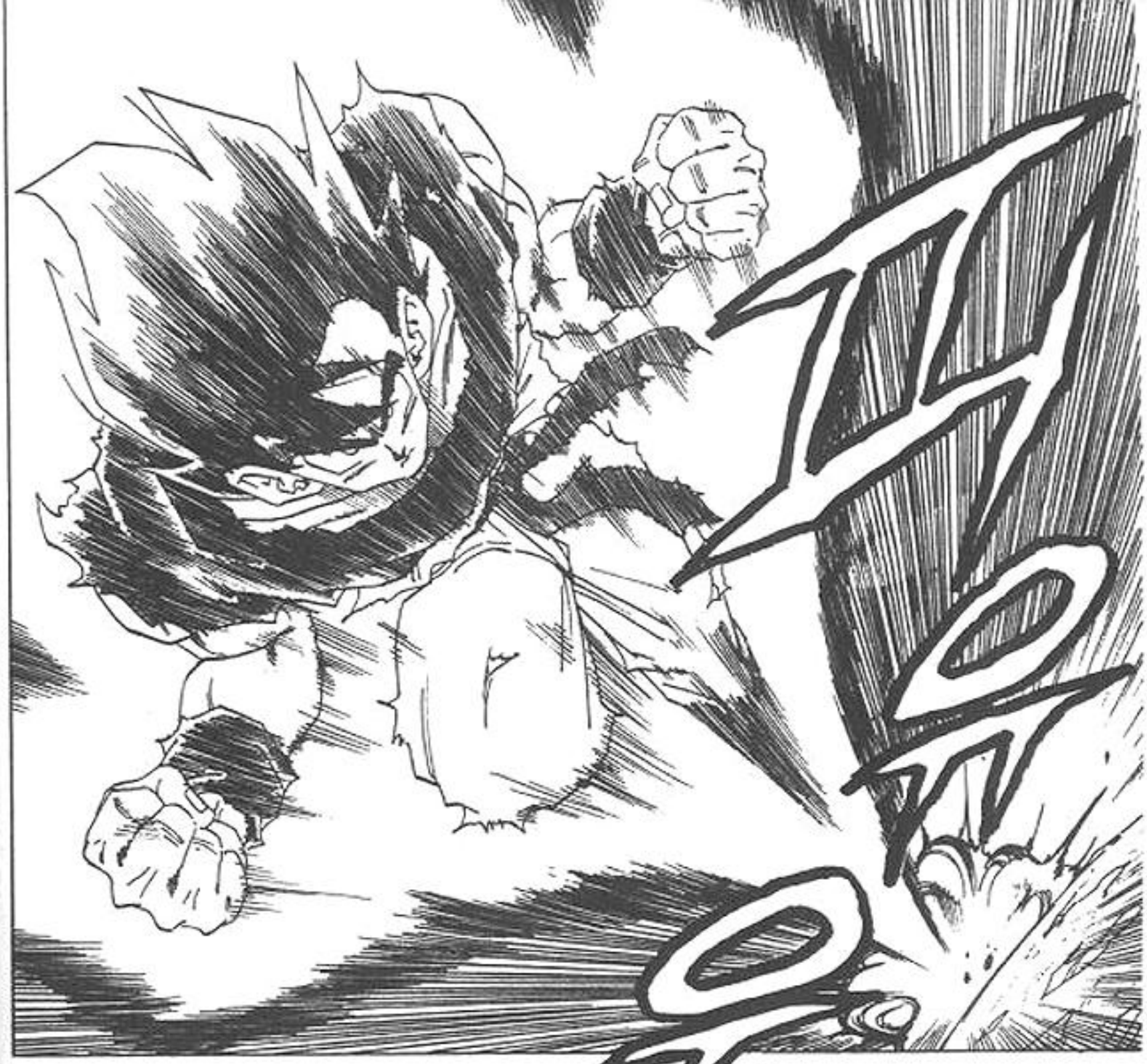
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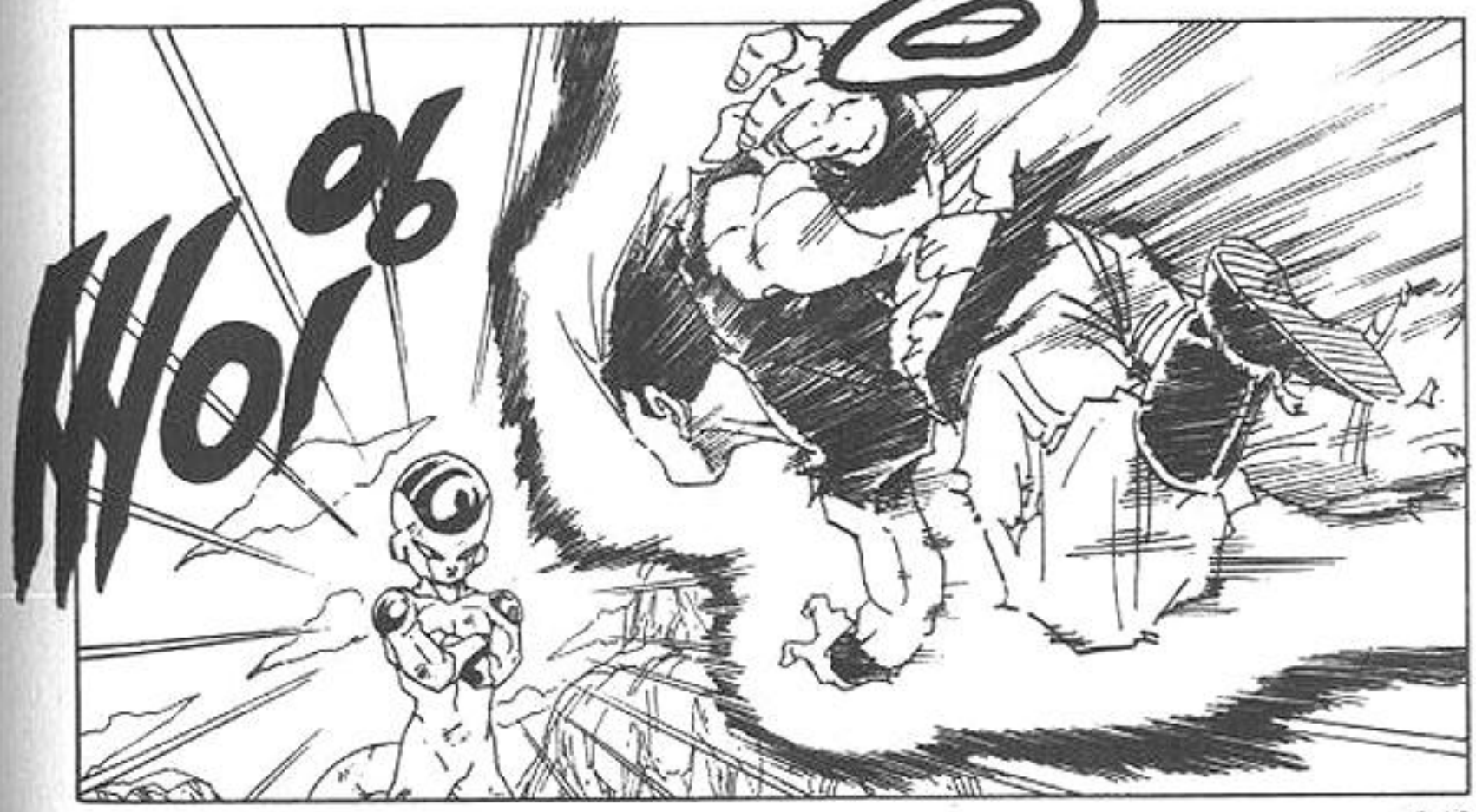
헛!

우둑 우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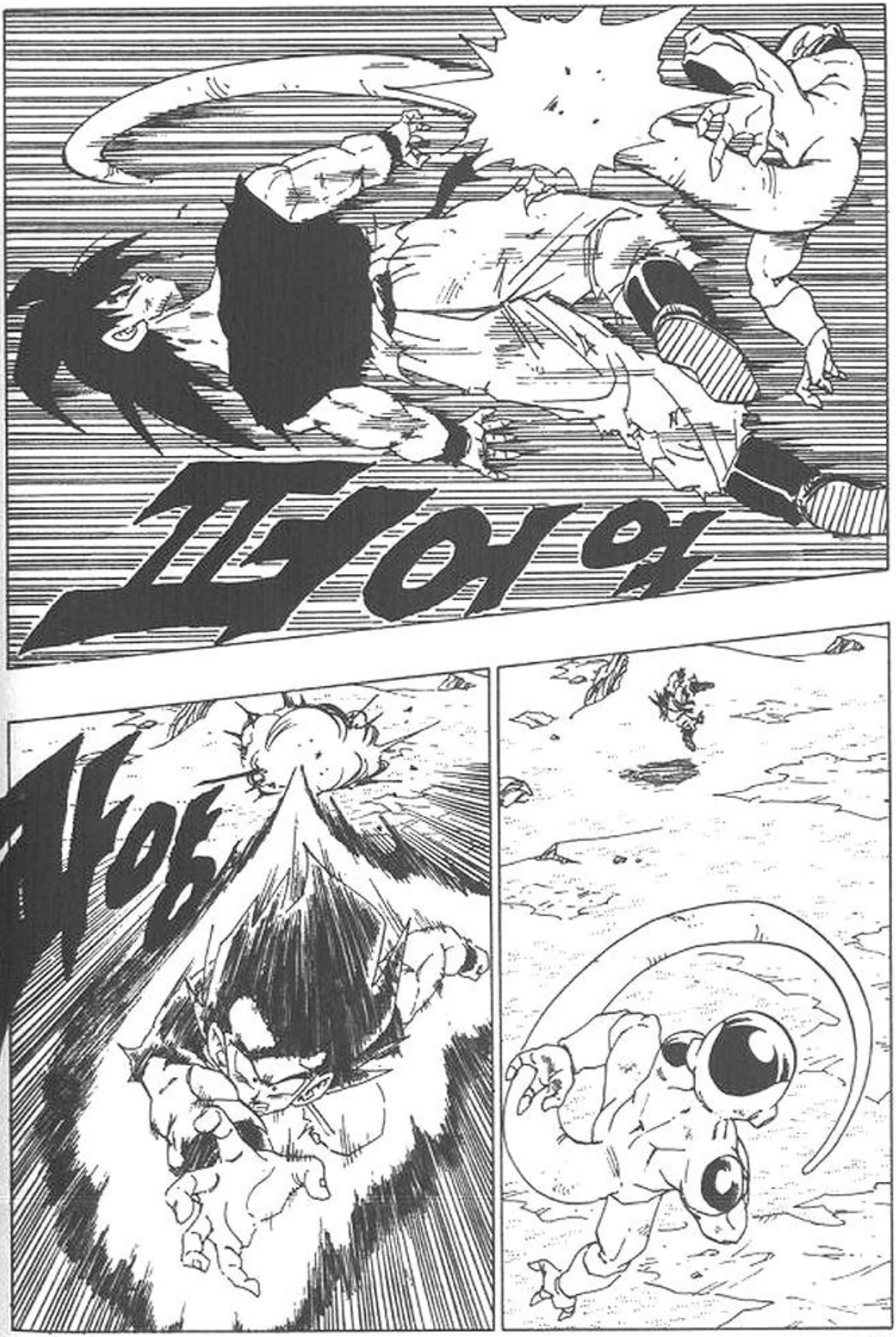
맘대로 해보셔….

물론이지!


ZU


Hor
06


슈슈
버어어어
파팟
헤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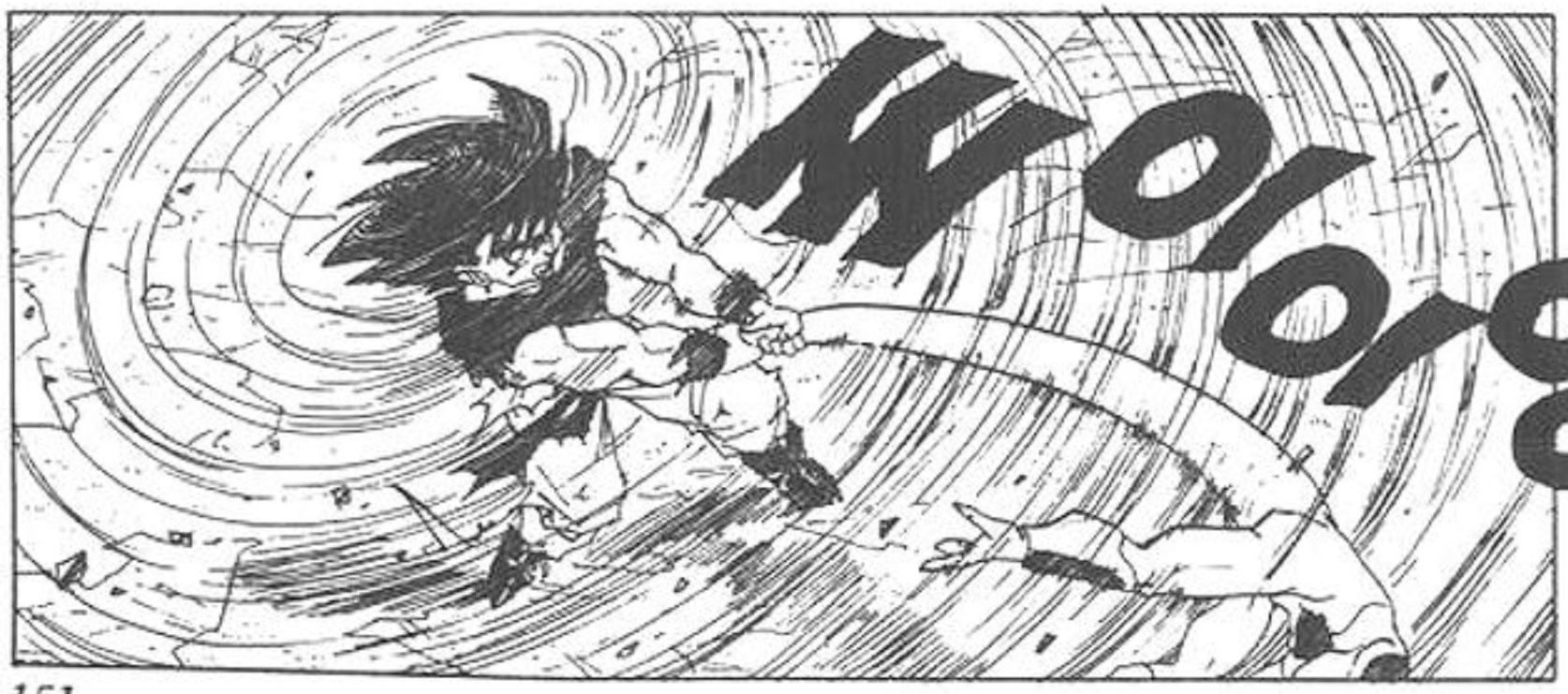

ДЕОЮ
АГО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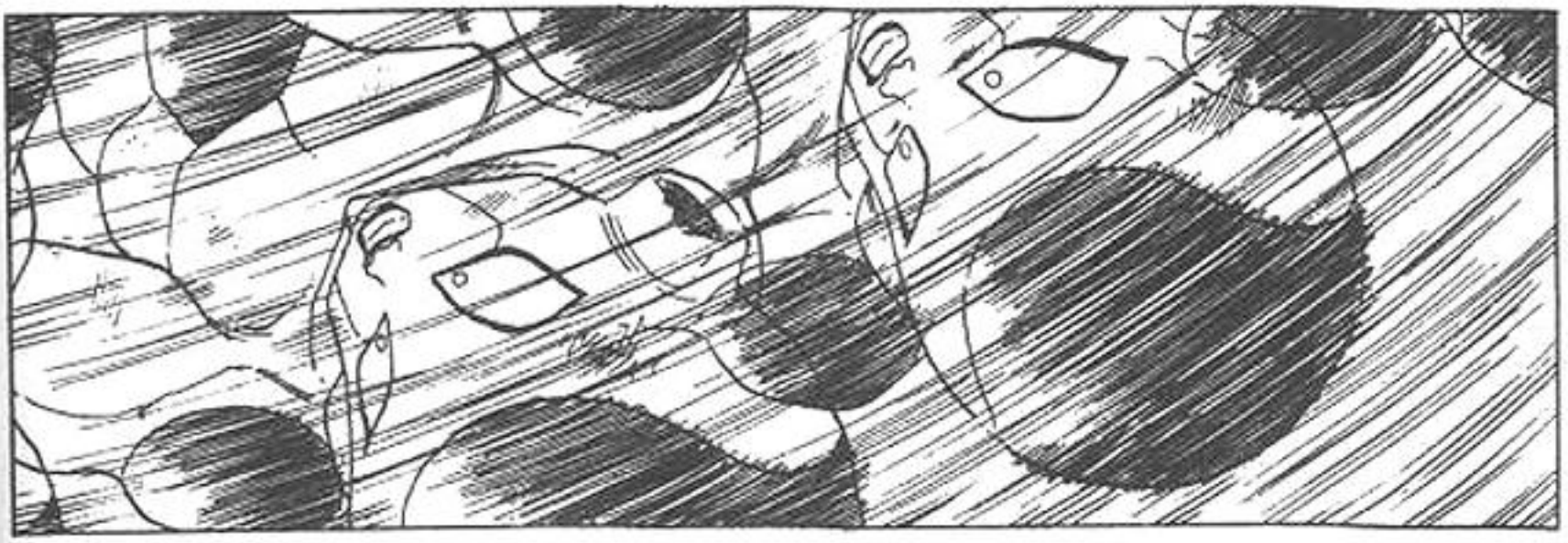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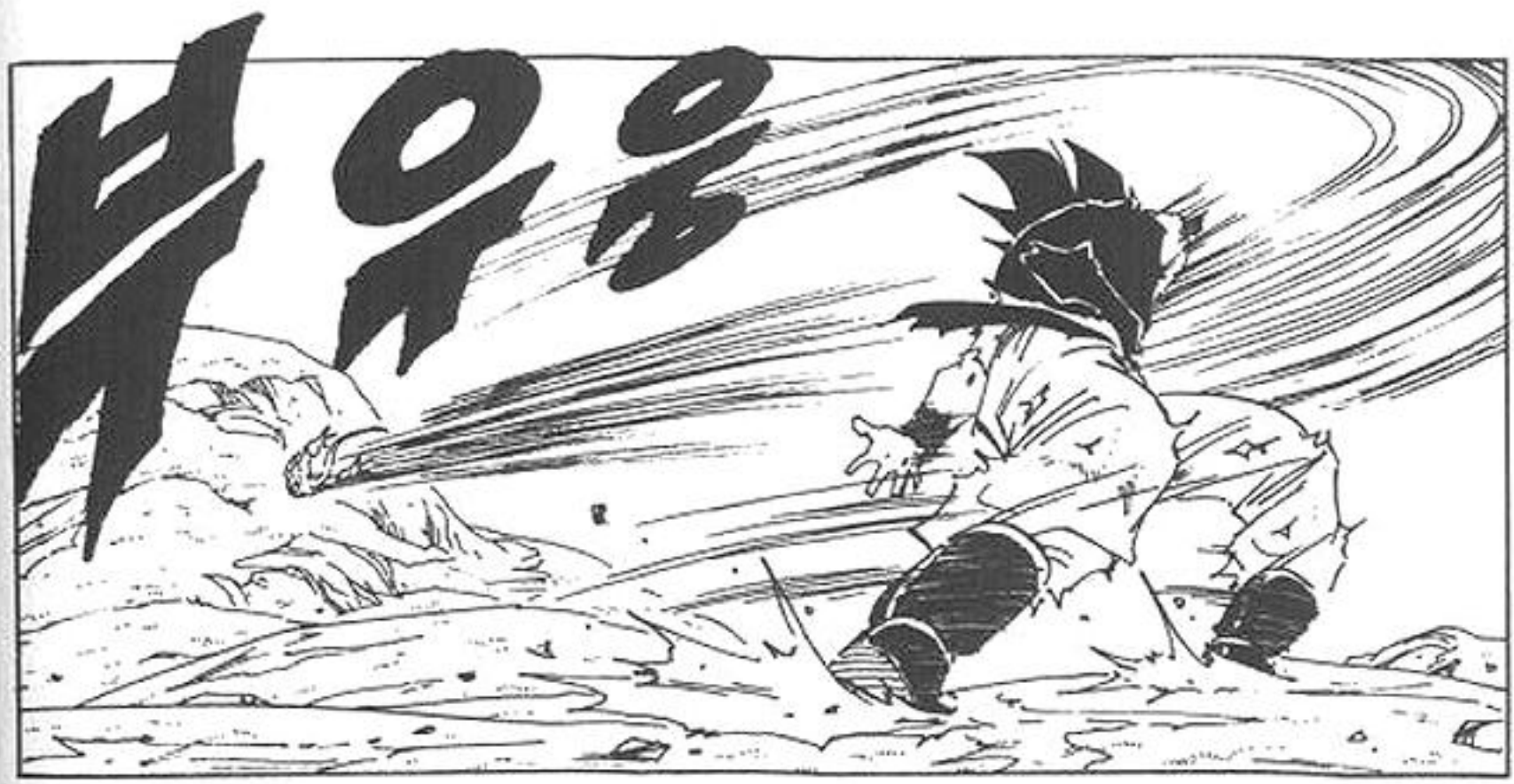

퍼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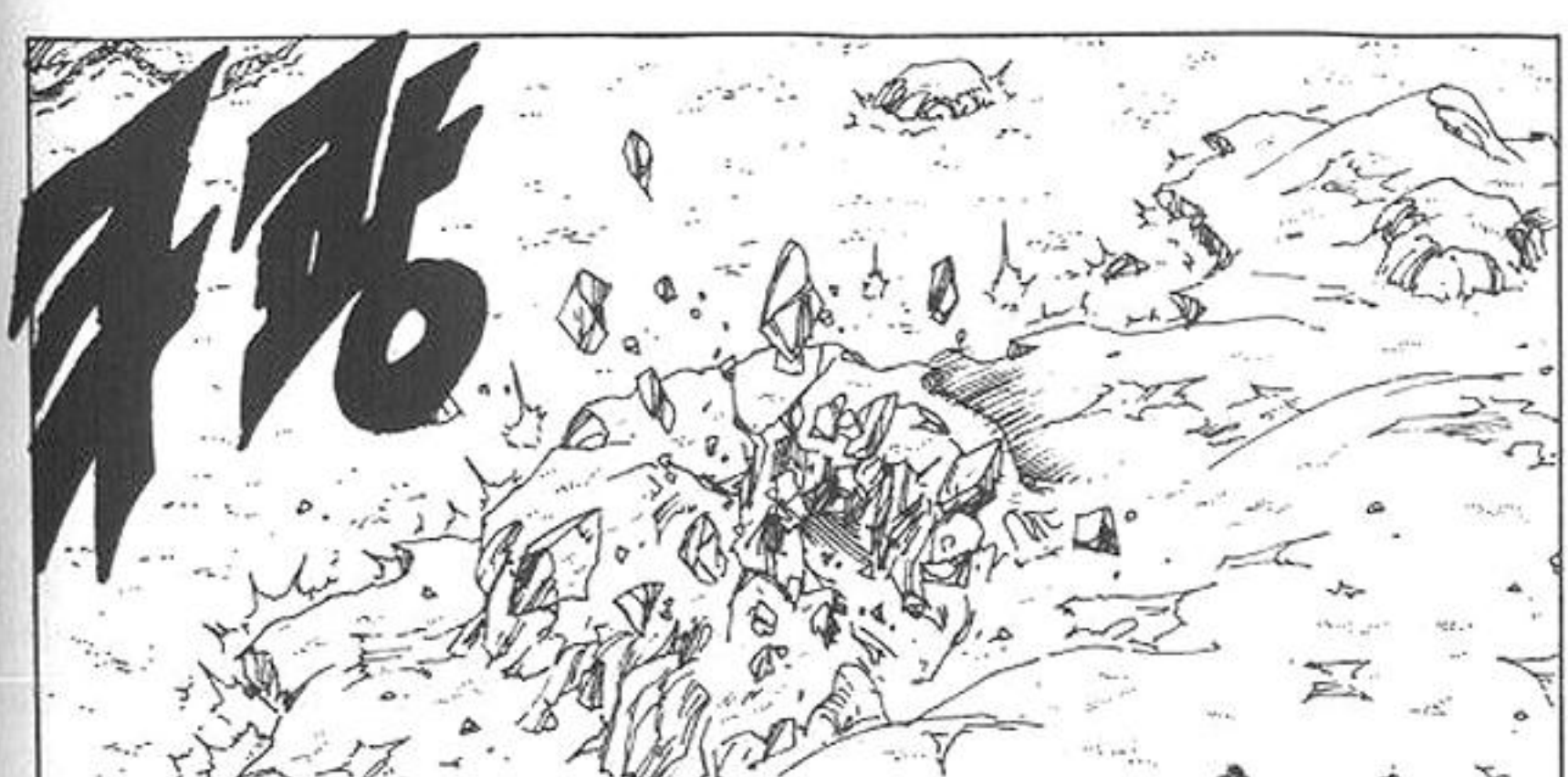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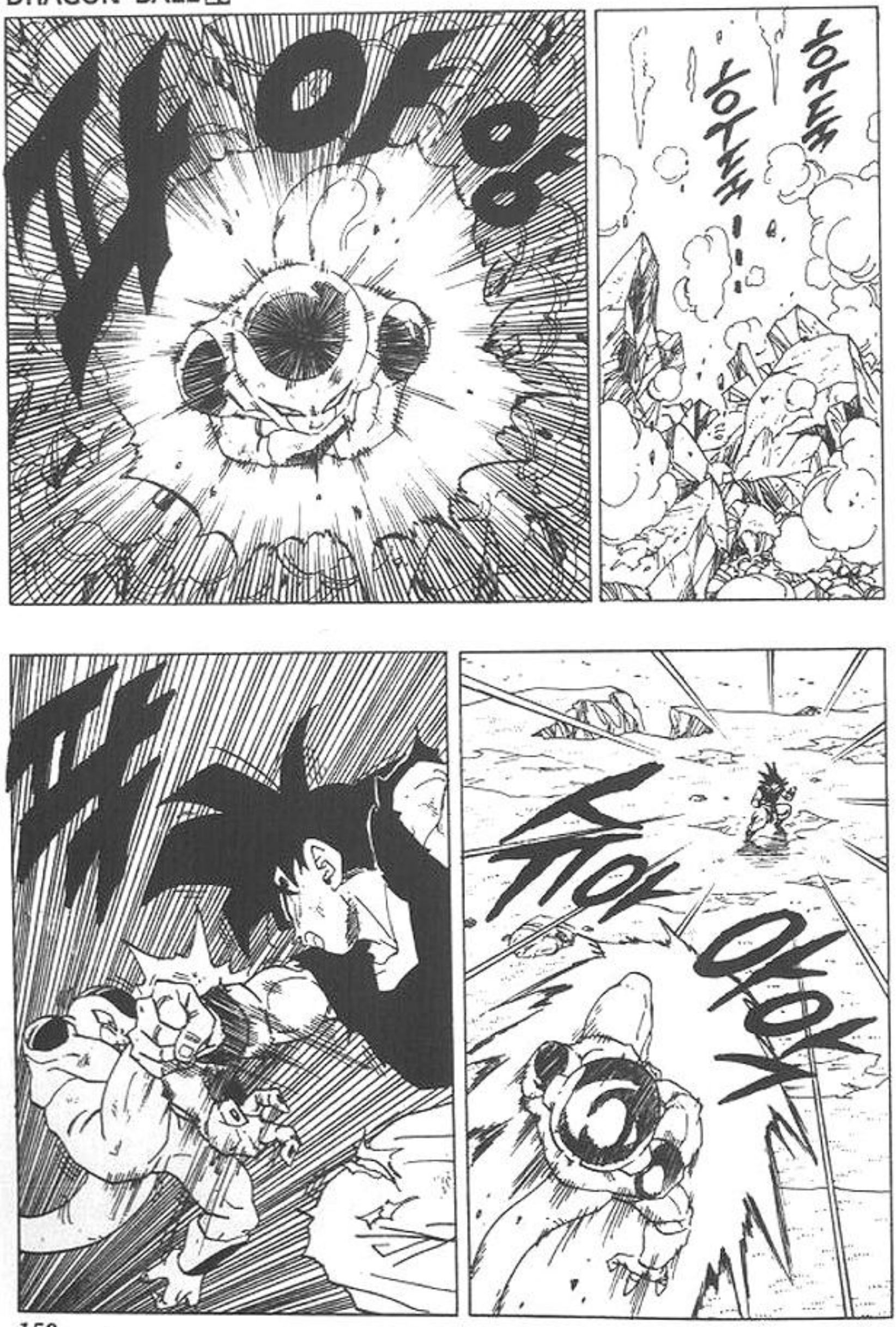

이야아아앗— !!


퍼어어엉




402


406


ゴゴゴ
ゴゴゴ
ゴゴゴ
ゴゴゴ


바바바바..!


퍼퍼
칫!!


퍼


퍼퍼


헉!!


윽!!
퍼억




으으으으으


!!


와장


크으…
아아아….

빠야

커헉!

으윽!

퍼퍼퍼퍼

퍼퍼퍼퍼















다음은, 제312화 괴물 프리더

넌 정말 강해.
진짜 경이적이랄
정도로 말야….

그 칭찬도
고맙군.

그렇지만
이 싸움도
이젠
질렸다….

슬슬
끝내고 싶은
생각인데….

우선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그 정도의 힘을 그냥
날려버리긴 아깝구나.
기뉴 대장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은걸.

농담도
지나치시군.

내가 그런
꼬임에
넘어갈 줄
아냐?


그럼 이제
네게 남겨진 길은
단 한가지, 죽음
뿐이다….
그럴 줄 알았어.
사이어인이란 놈들은
바보처럼 고집만
세니까….


대단히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나는 눈치챘어.
넌 최선을 다하면서
싸운다지만, 아직 상당한
파워를 아껴두고
있다는 걸….


글쎄….
그리 쉽진
않을걸.
크흐흐
….


그걸
추가한다 해도
내 계산
으로는….


들켰군
….


약 50퍼센트,
그러니까 내가
풀파워의 반만 내면
널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허풍에도 정도와 예의란 게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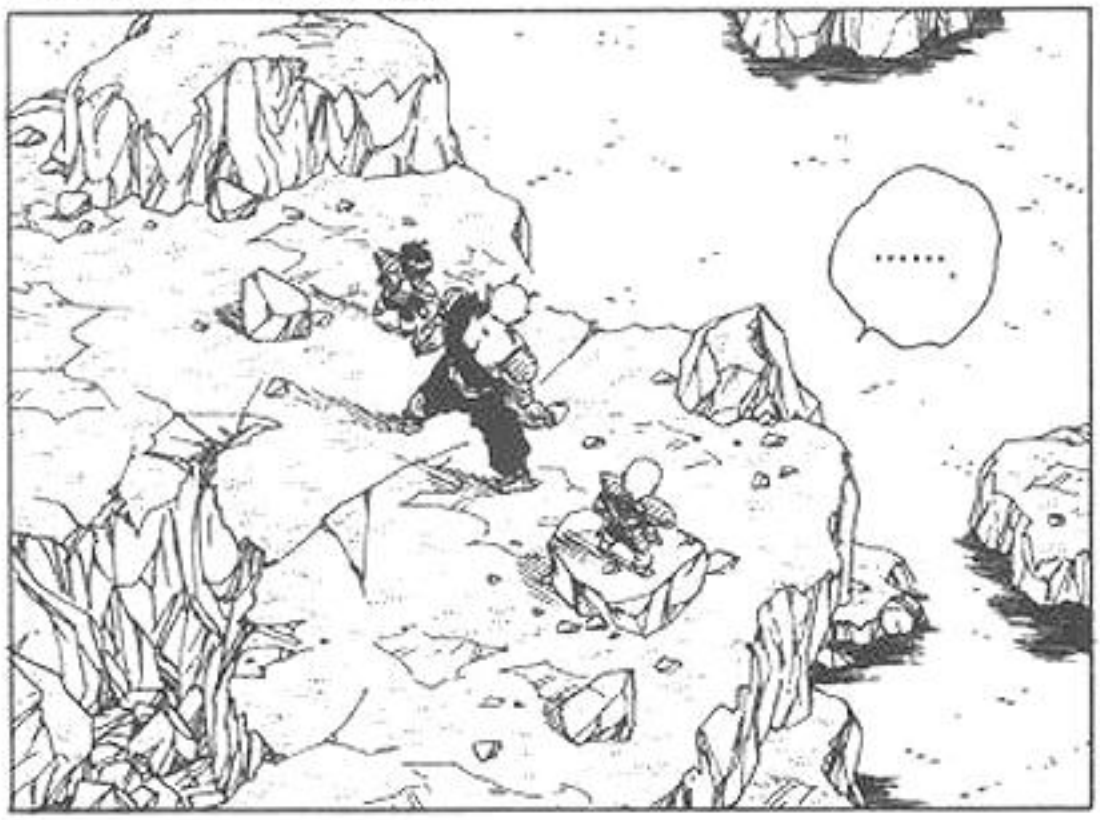
그거 정말 웃기는 소리군…, 헤헤헤….

뭐시라…?

샤샷!

이렇게 운동을 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

즐거웠다….


……




양쪽 다 서로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 그치만 쟤네들의 엄청난 기만으로도 몸이 빠개질 것 같이 두려워….


……
뭐… 뭐야…. 아까부터 계속 둘 다 서로 째려 보기만 하고….


쟤네들의 파워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구….
그건 아무도 몰라….


아… 아빠는 꼭 이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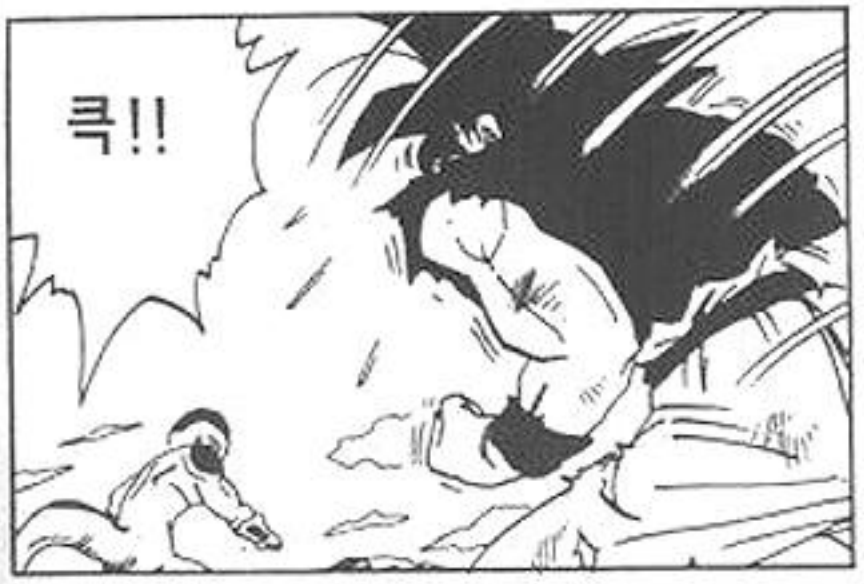
으음…,
그렇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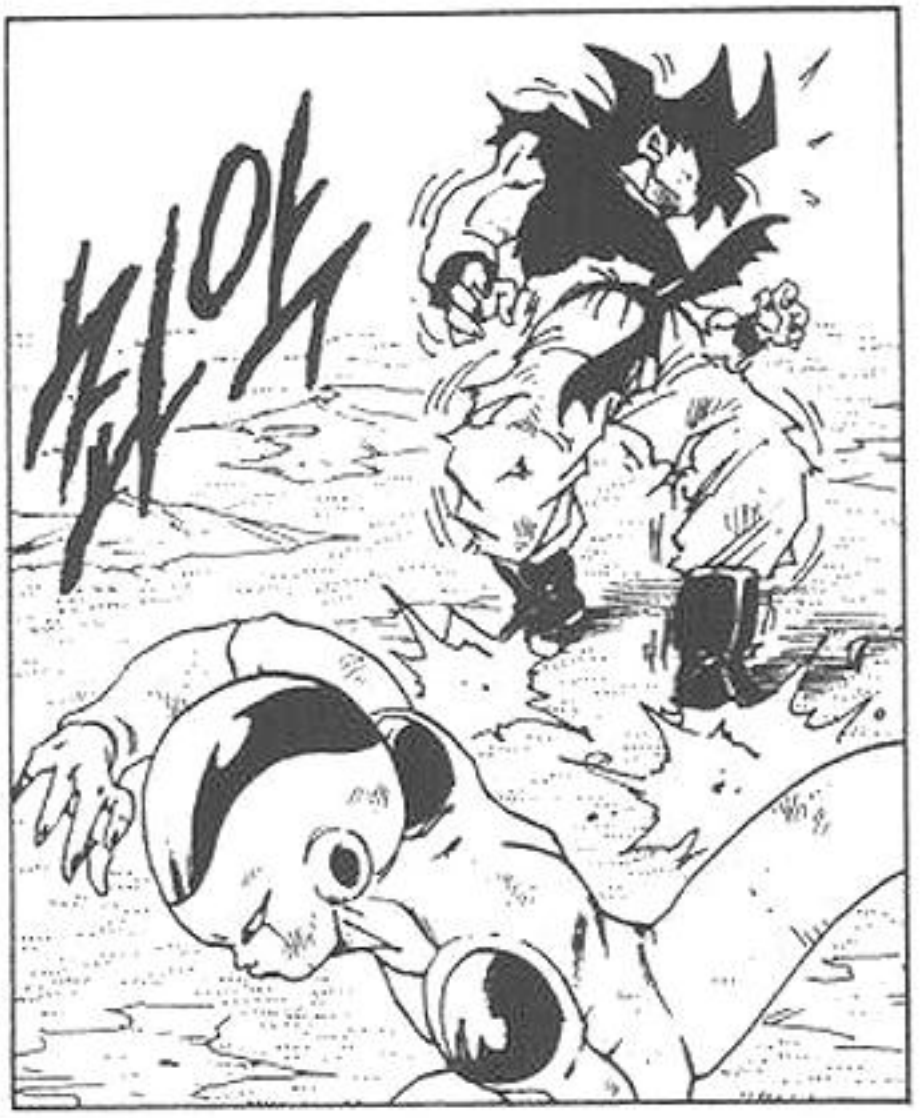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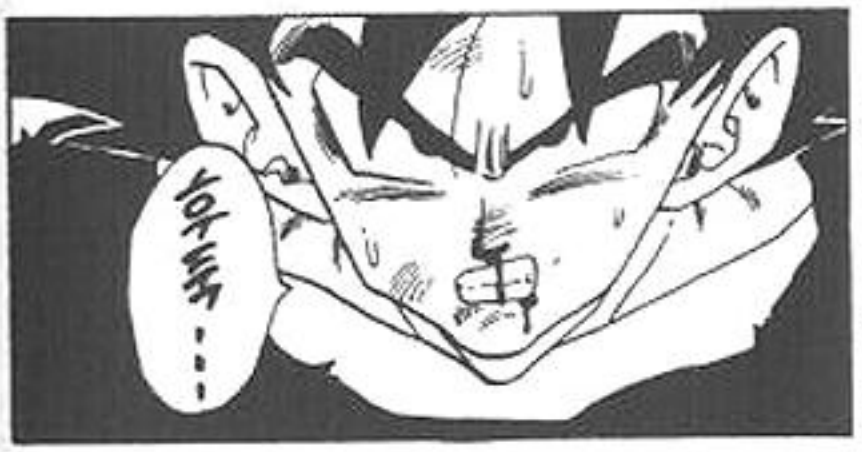
이…
이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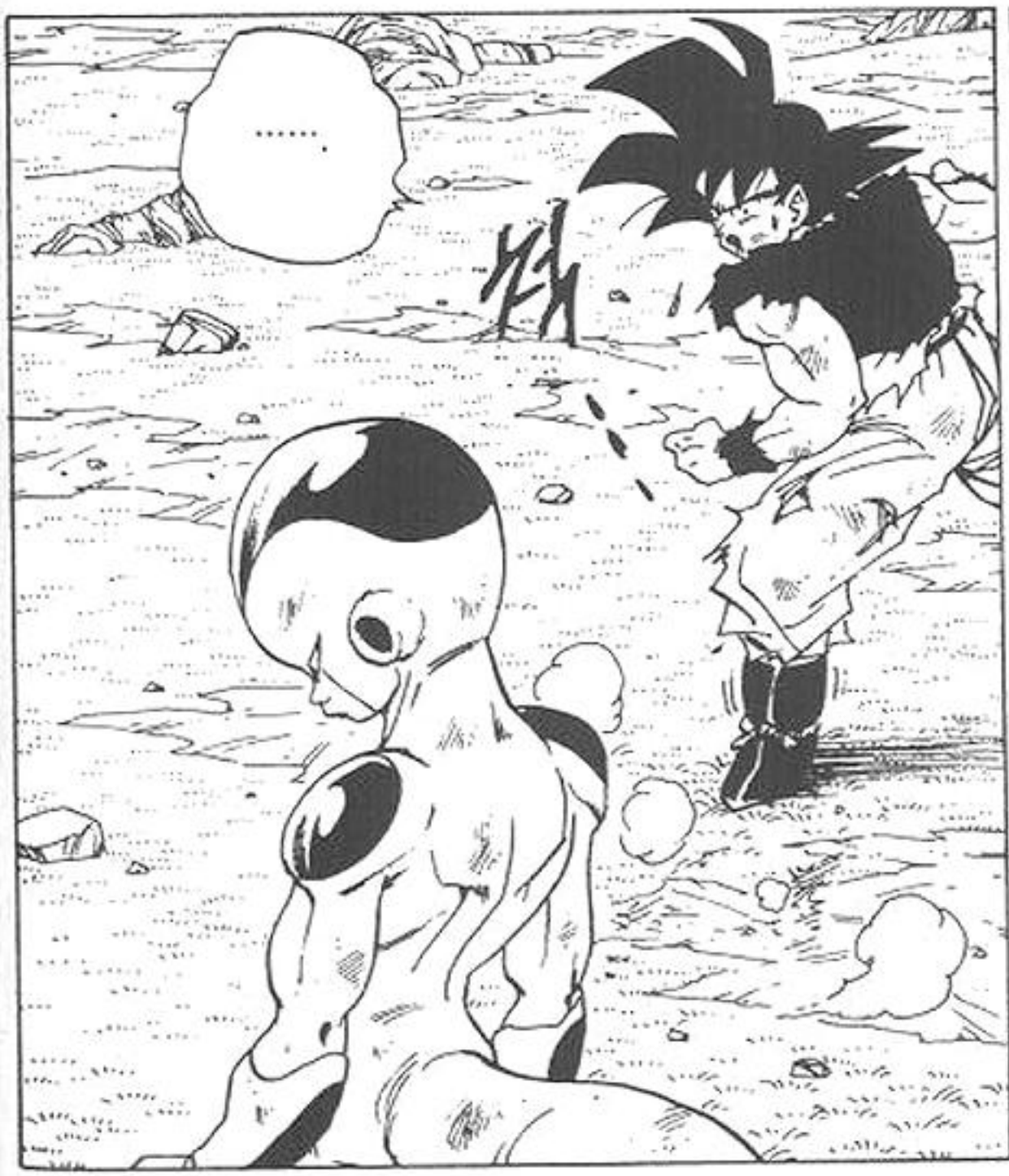
허풍이
아닌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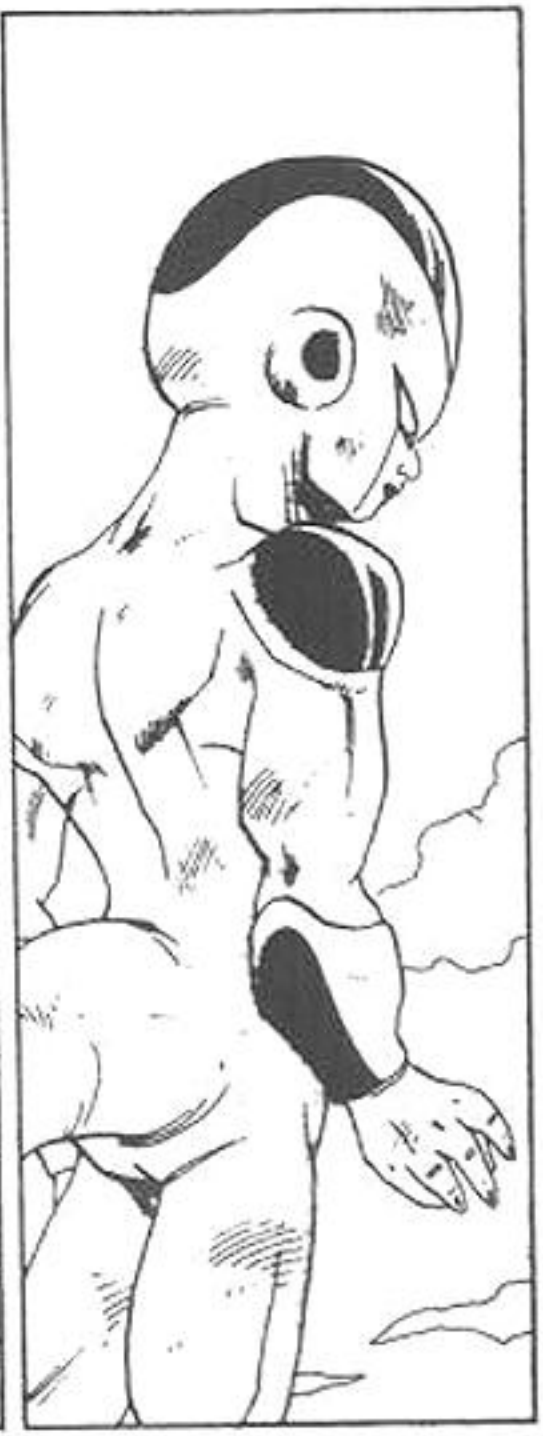

OF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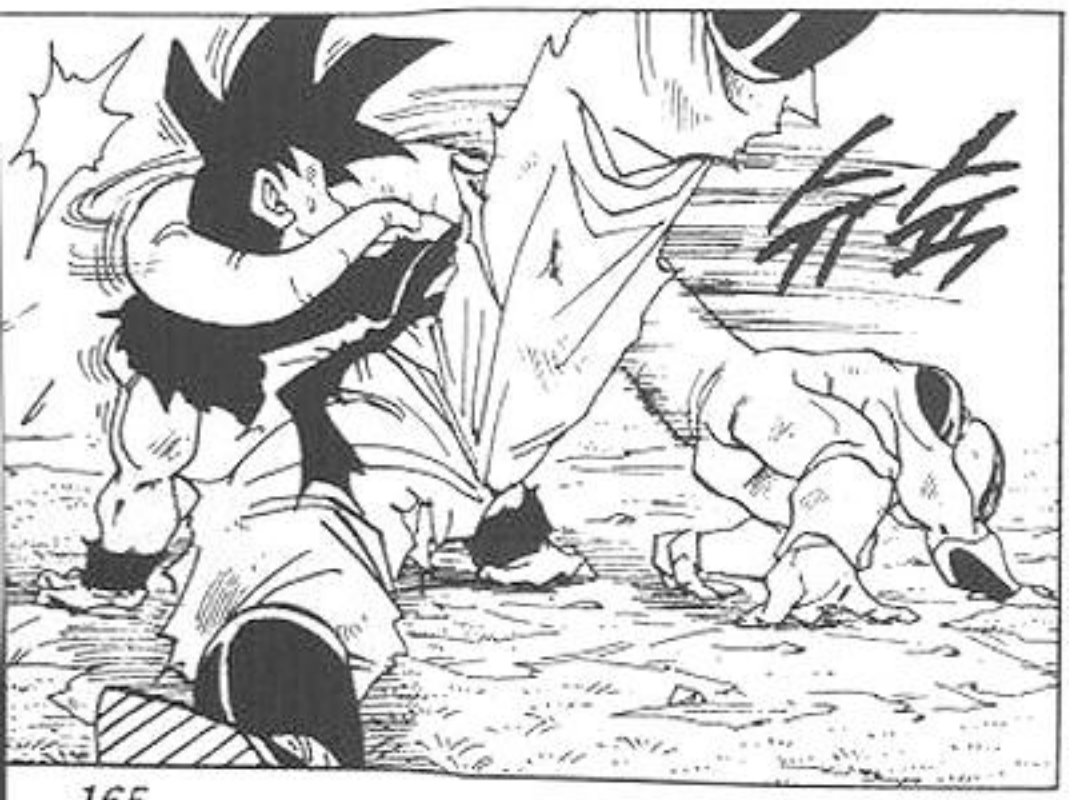

아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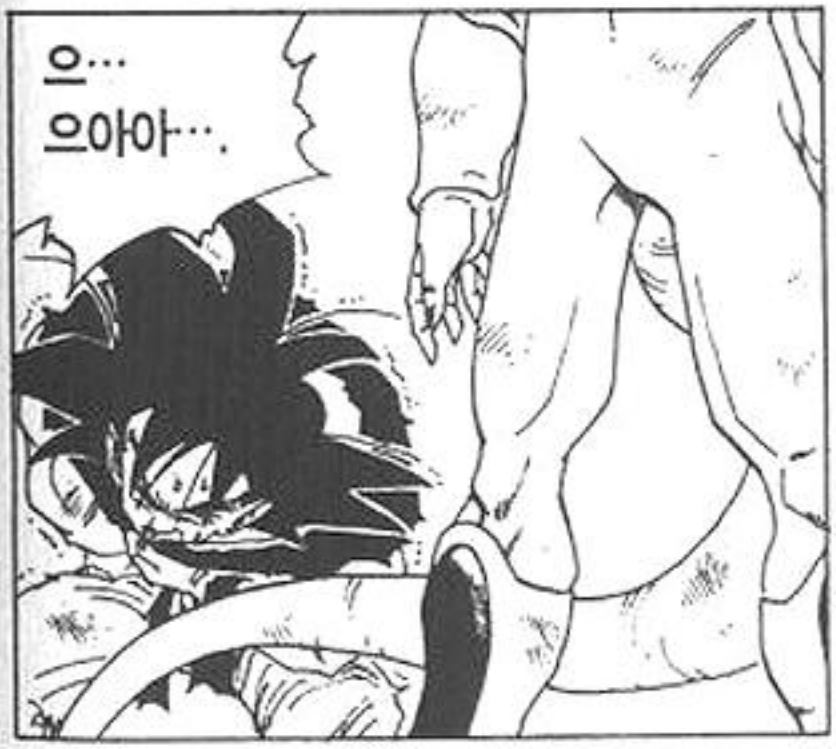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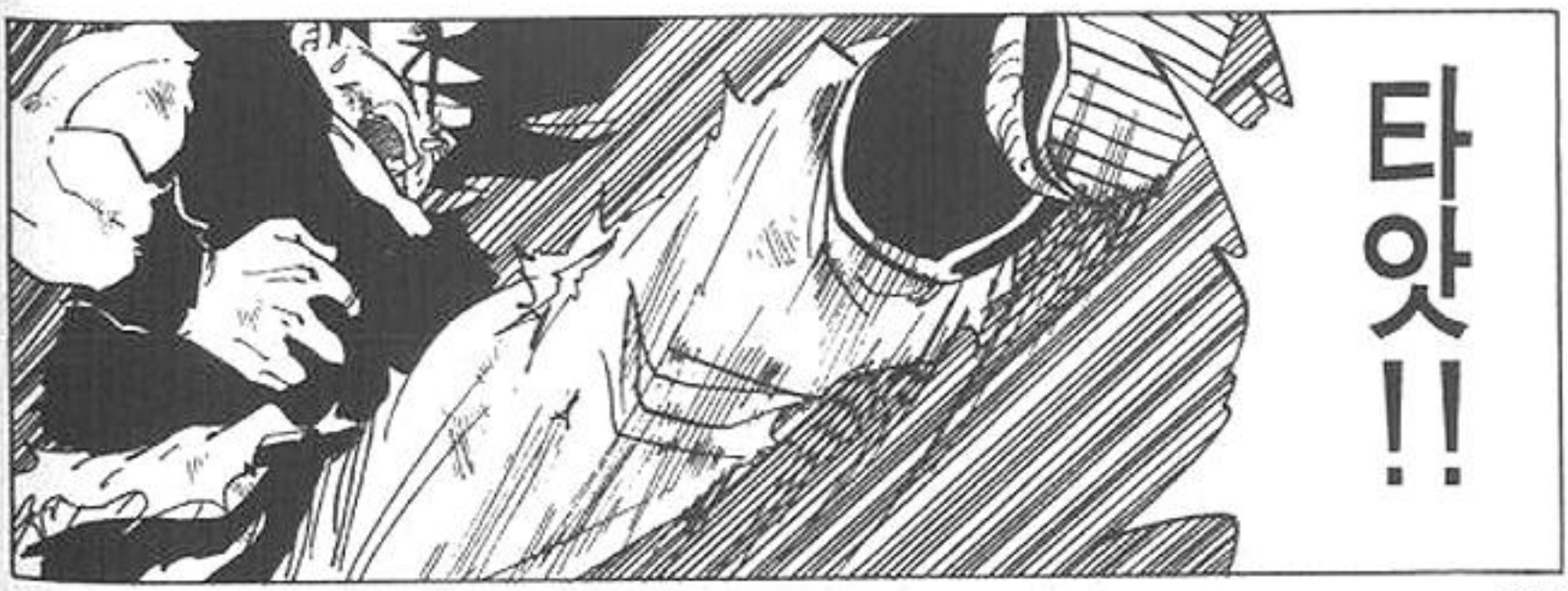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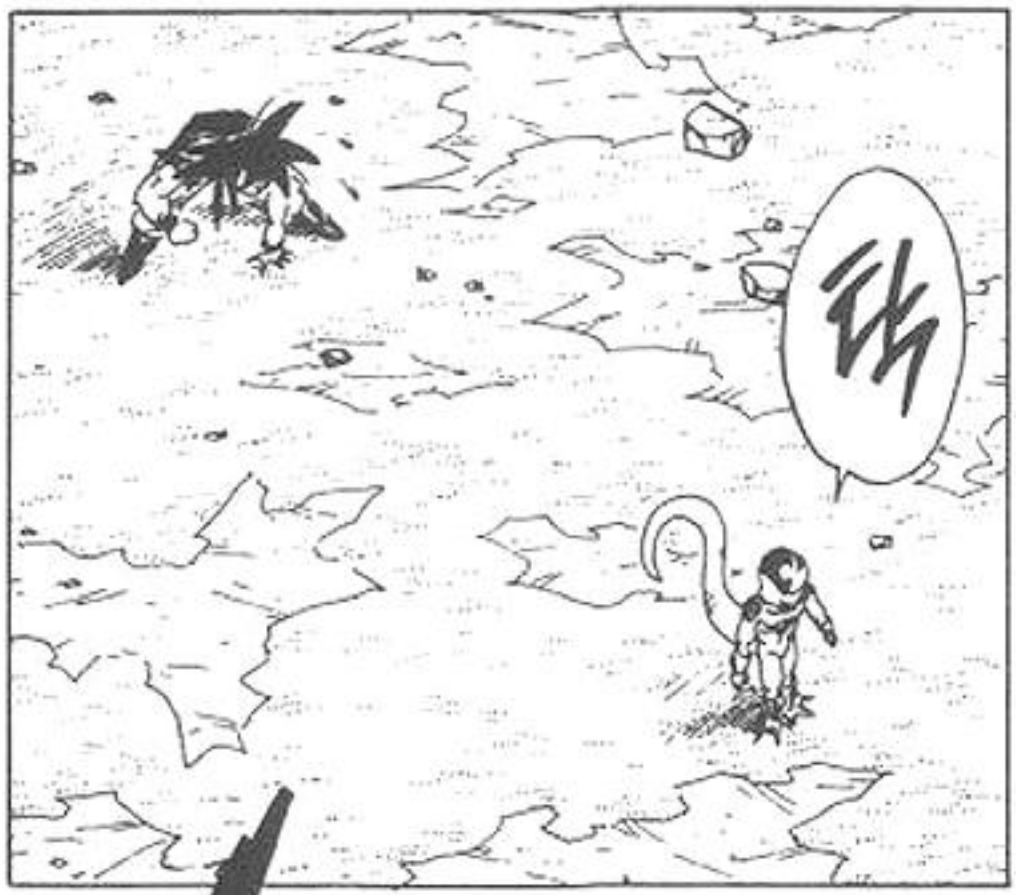

칫
!!




피융…
!!


으…
으아아….


타앗!!


샤


아


붕
!!


FLOP


쿠오오오


아…!
퍼엉


크으으…


그렇지만
이 공격에
죽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놈인걸.
드디어
숨이 차기
시작한 것
같군….


허억….
허억….
허억….

크…,
큰일났네….
이런! 숨겨놓았던
실력 차이가
너무 나….

으아아….

무…
무리야….

너무
강해….

저 정도일
줄은….

그…
그렇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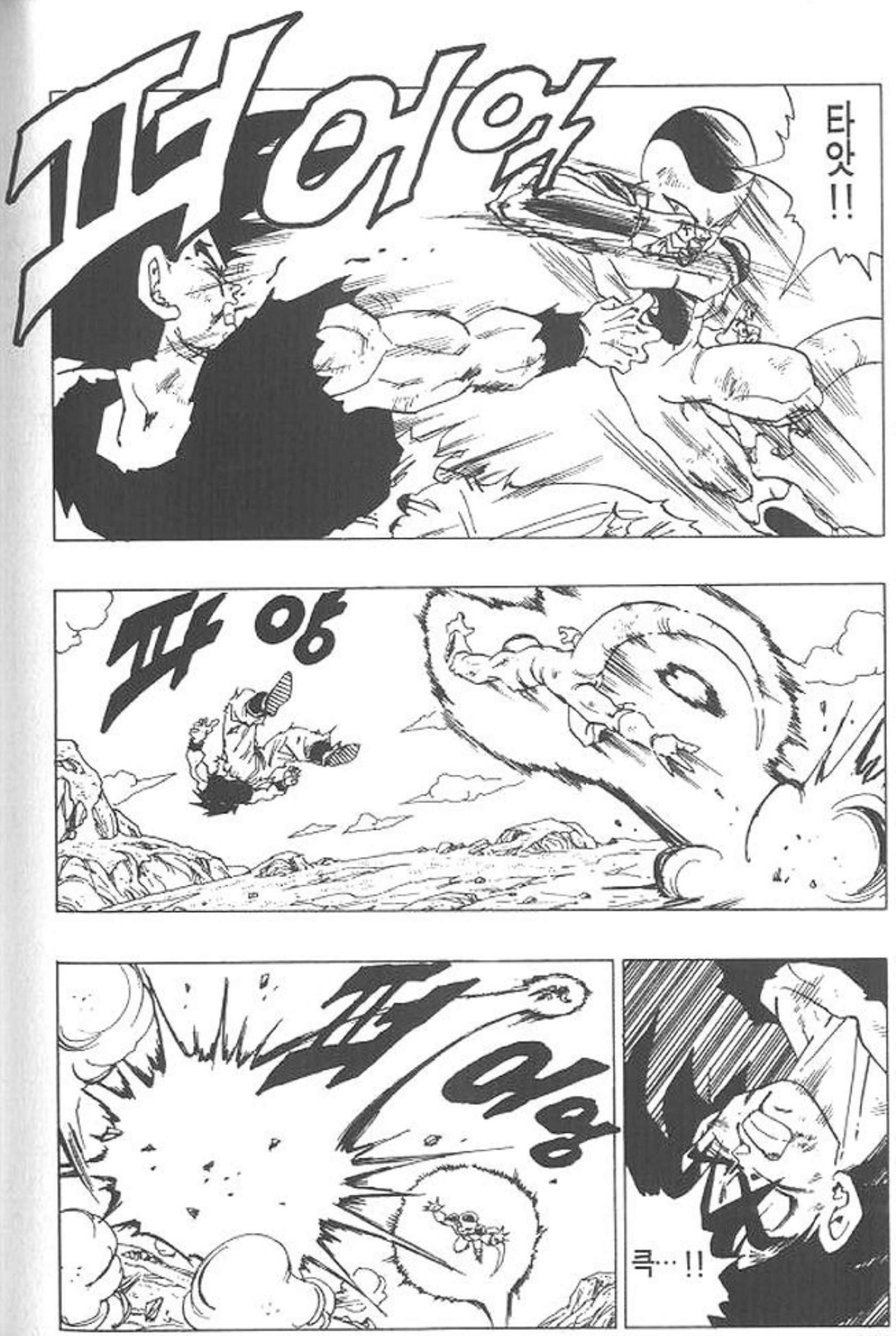
……

아니….
지금 입고 있는 건
질기기만 하고,
무겁지는 않아….

계왕님!
오공은 지난번
그 무거운
도복을 입고
있잖아요!?



다음은, 제313화 20배 계왕권의 도박


퍼어억
타앗!!
퍼 앙
퍼 앙
큭…!!


멈춰
제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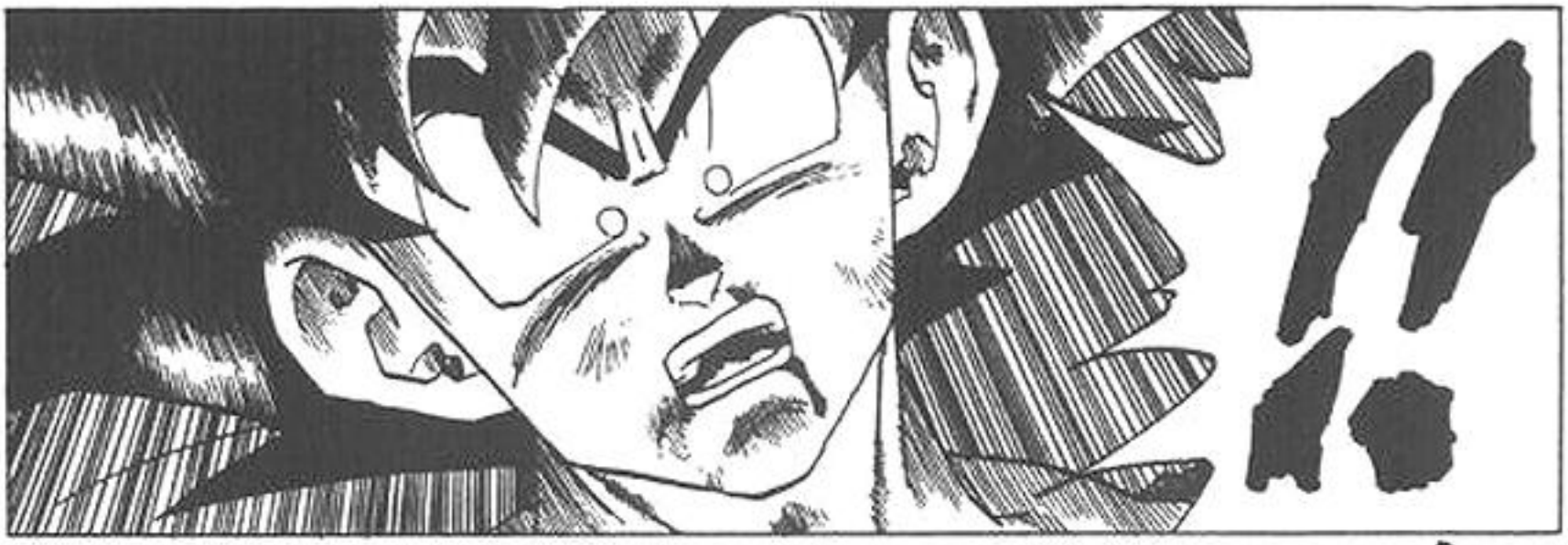



타앗


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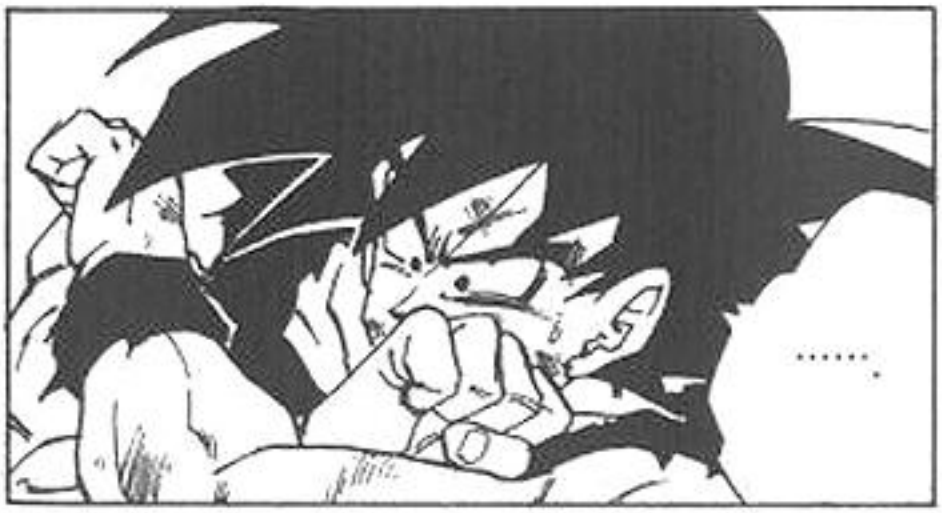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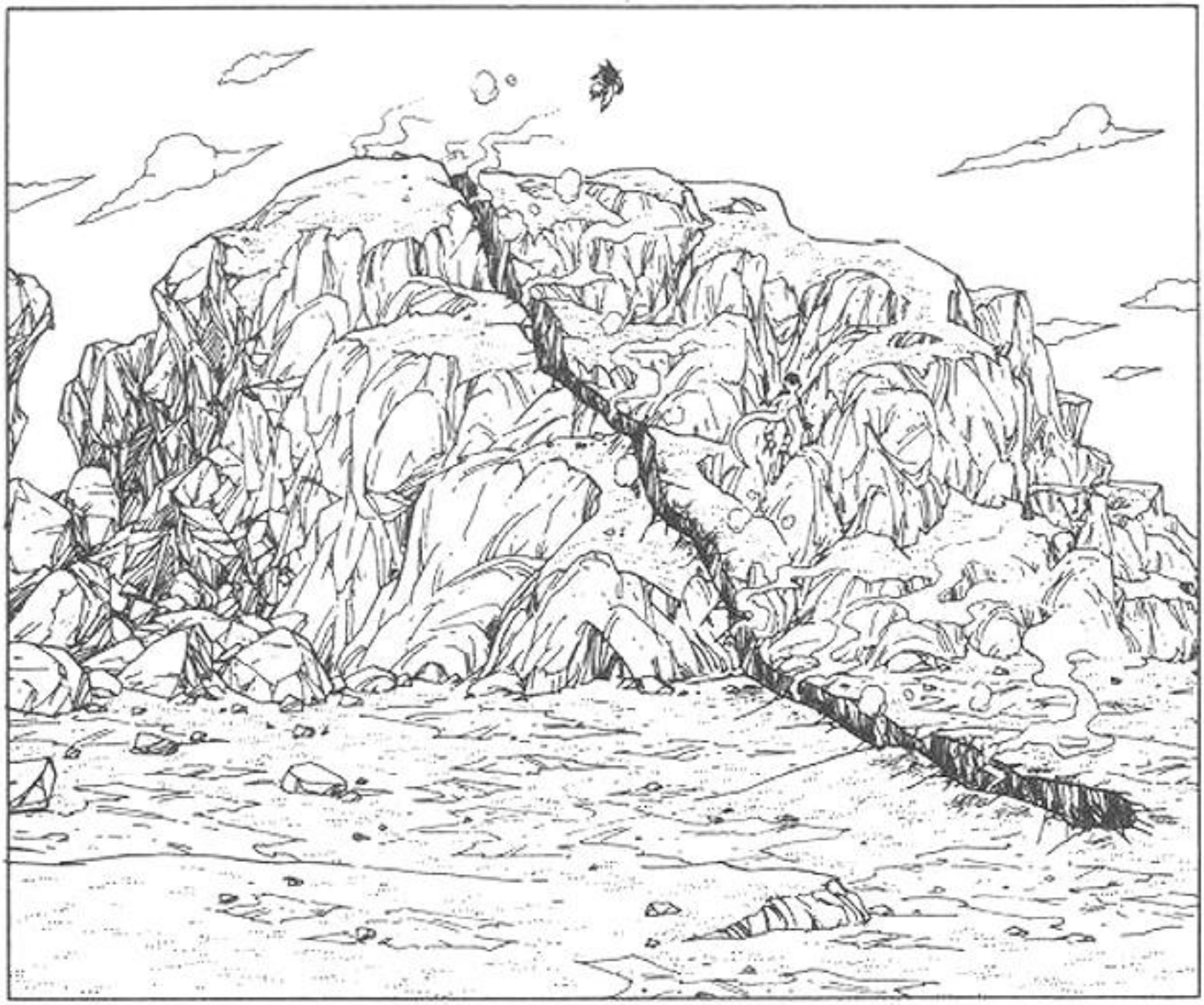













어…,
엄청난
기술이다
…!!


……
쿠르릉---

혹성 베지터를
소멸시켜버린 것은
바로 나야….

내가 말했잖아.
만약의 경우엔
이런 별 정도는
통째로 박살내
버릴 수도 있다고….

이길 수가
없어….

져…,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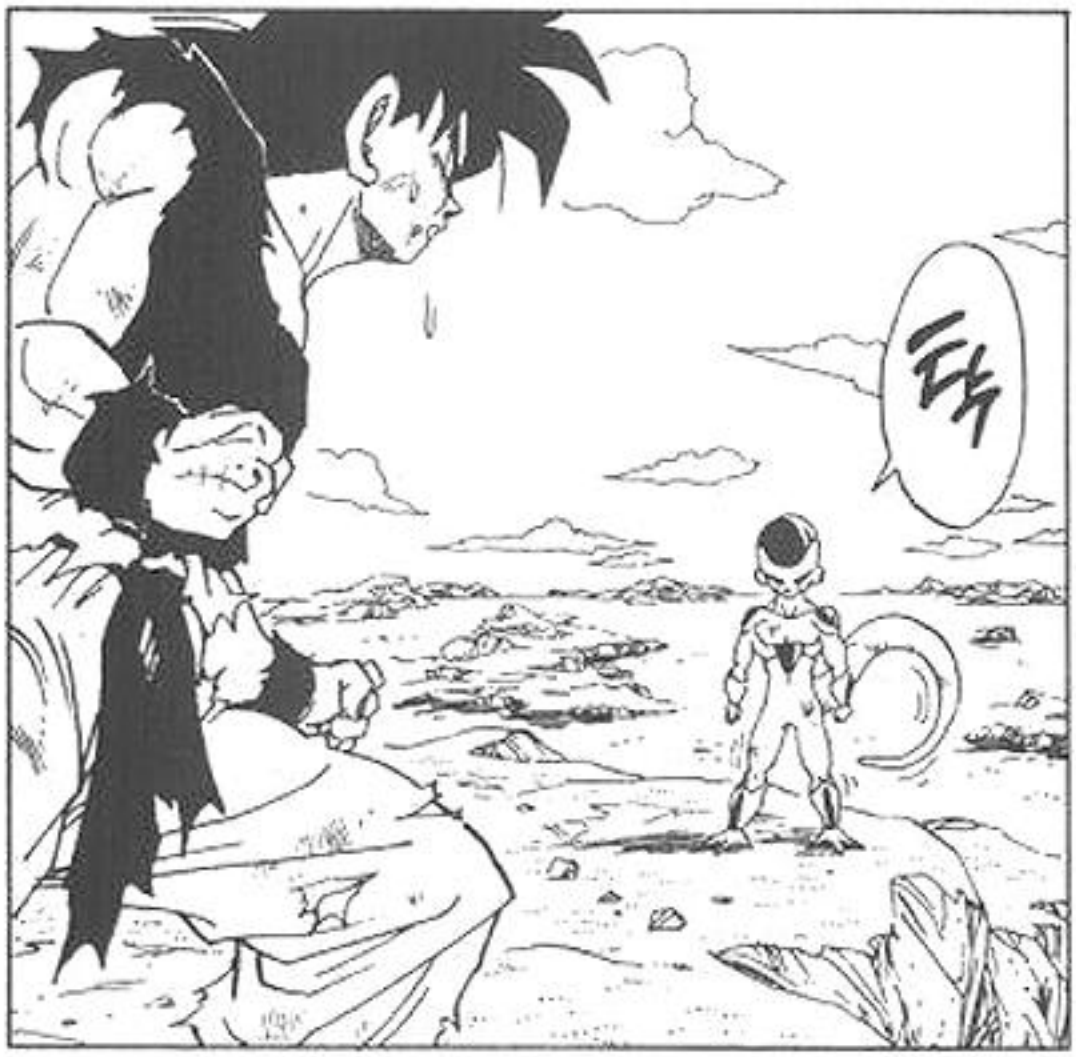
이… 이
이 별을
잘라버렸어….

저…
저 녀석…,
뭔 짓을
한 거지…!?

우리나 오공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프리더의 실력은 무식할 정도로 엄청날 뿐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

그…, 근데 오공 녀석…. 무슨 생각이 있는 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다니….





그래서는 내가 열받은 게 하나도 안 풀리거든….

걱정하지 마. 지금 같은 공격으로 단숨에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뭐…
뭐라고… !?

그, 그러면 오공 녀석은
이미 한계인 10배의
계왕권을 쓰면서도
당하고 있단
말인가요… !?

……!

게다가…, 프리더는
자기 실력의 반 정도밖에
쓰지 않은 것 같아….

그… 그래서
내가… 하늘이
두쪽 나도….

프리더랑은
맞장 뜨지 말라고
했는데….

졌어….

그… 그렇지만
놈이 말한 대로,
지금 저놈이 자기 힘의
50퍼센트만 쓴 거라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 거야….

계… 계왕권을
어떻게 해서든 20배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모…, 몸이 견뎌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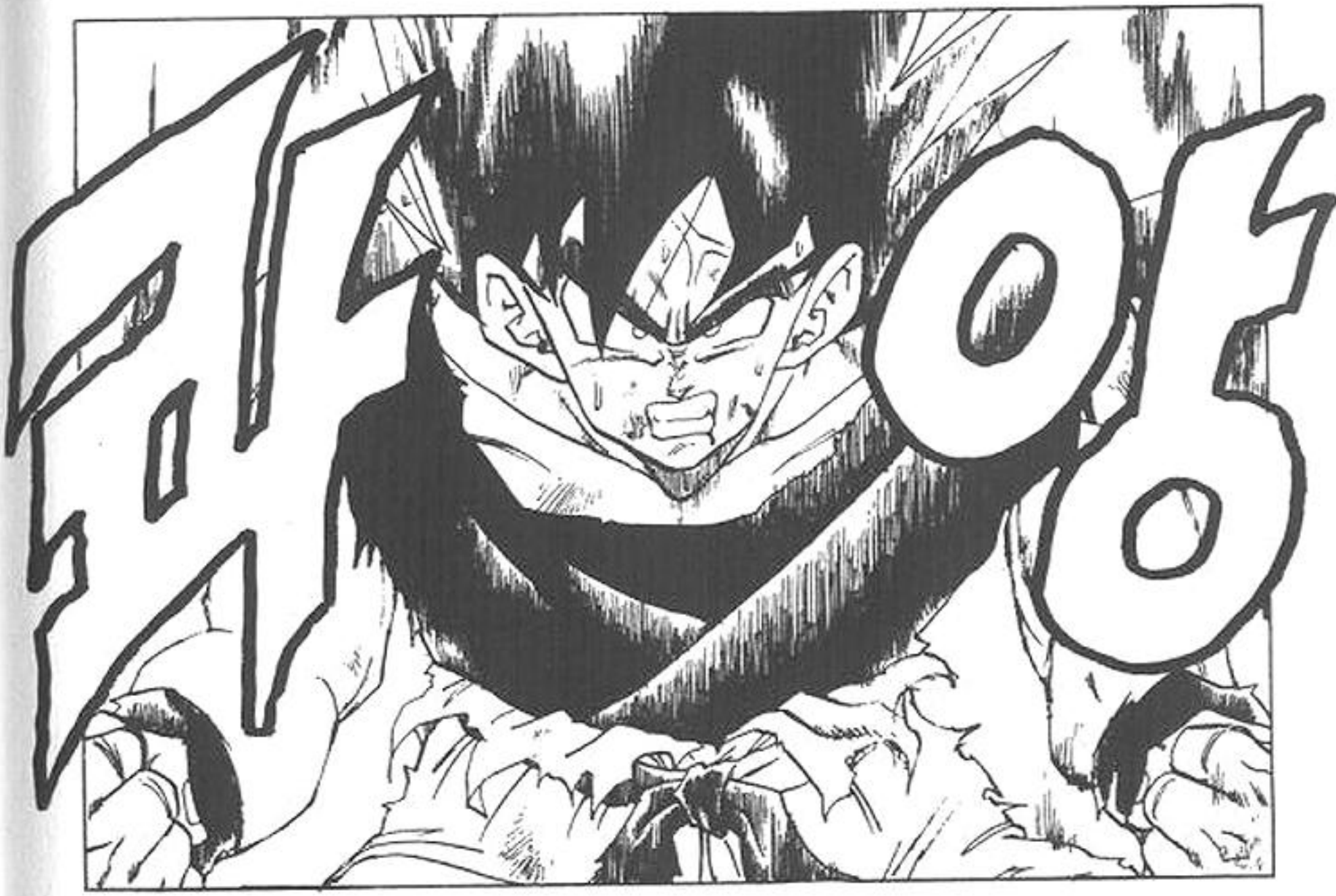
우와아아
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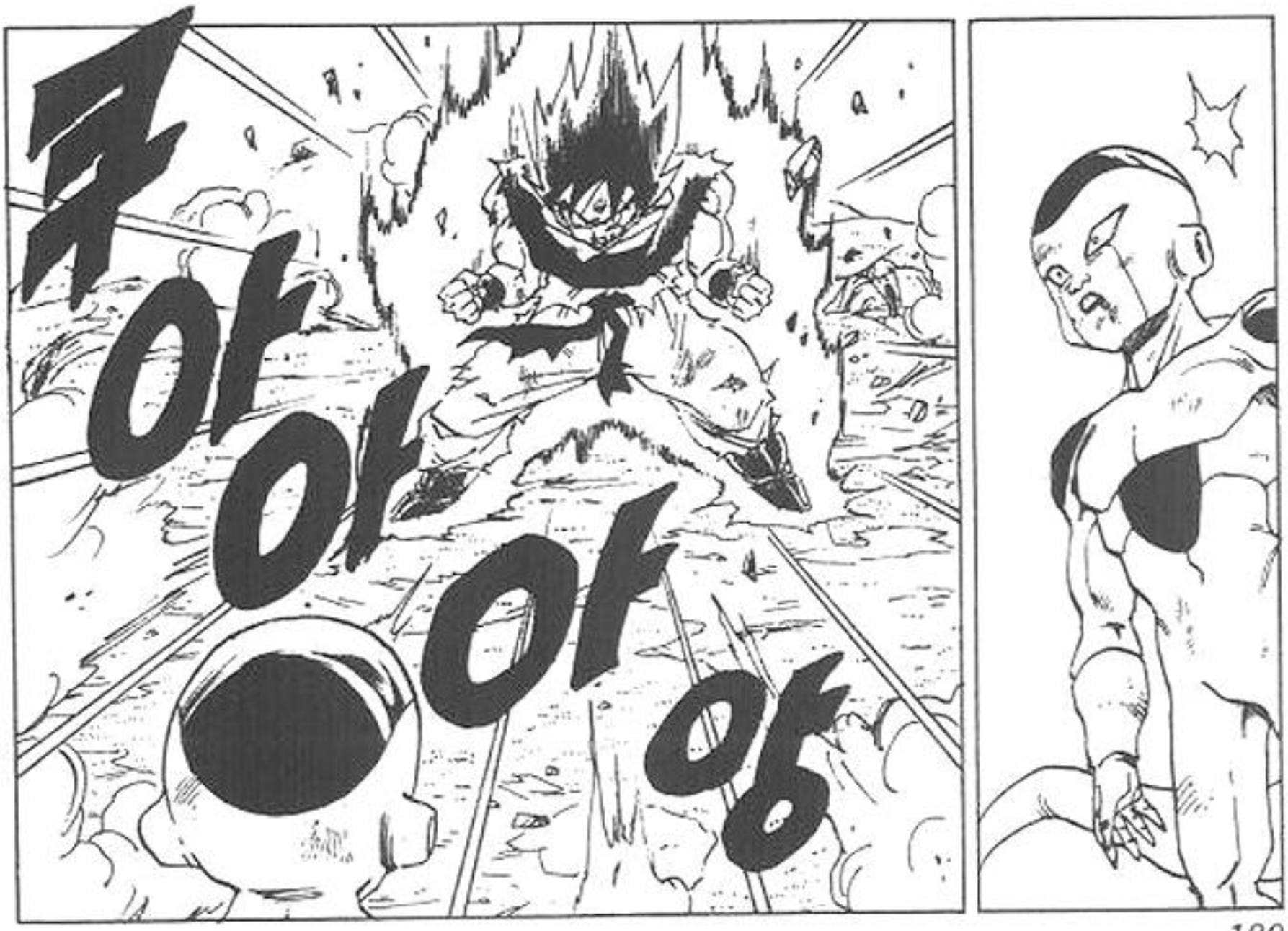
먼저
덤빈 것은
네 녀석
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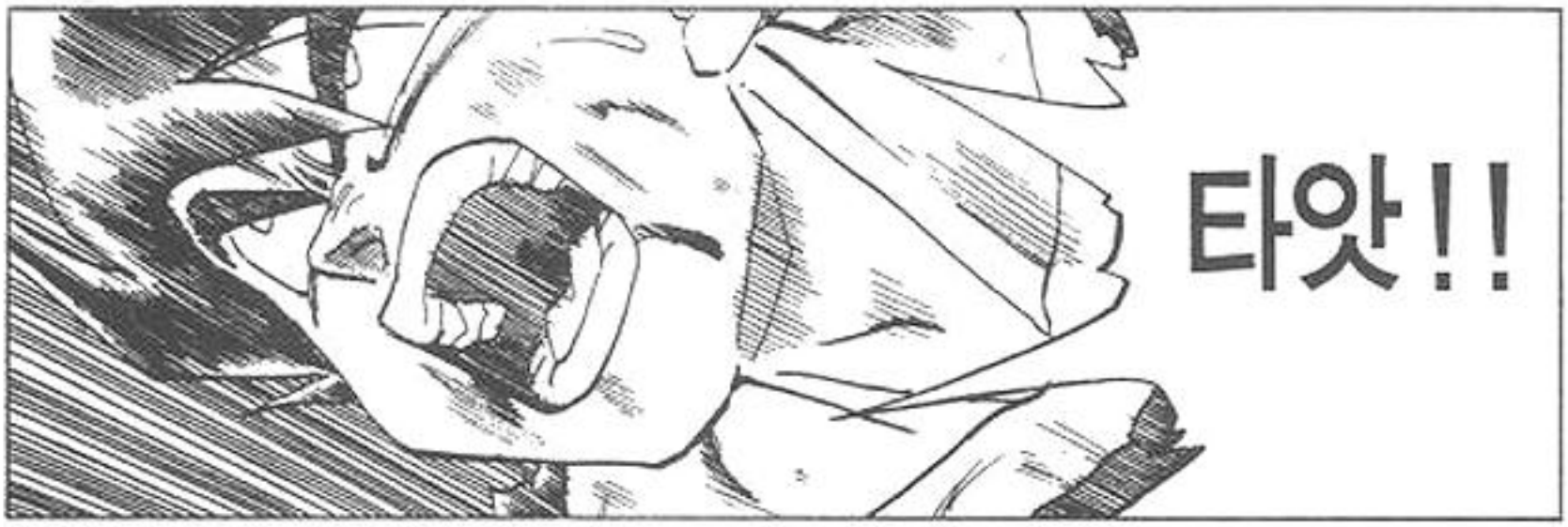
이제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제발!
이번에는
허풍이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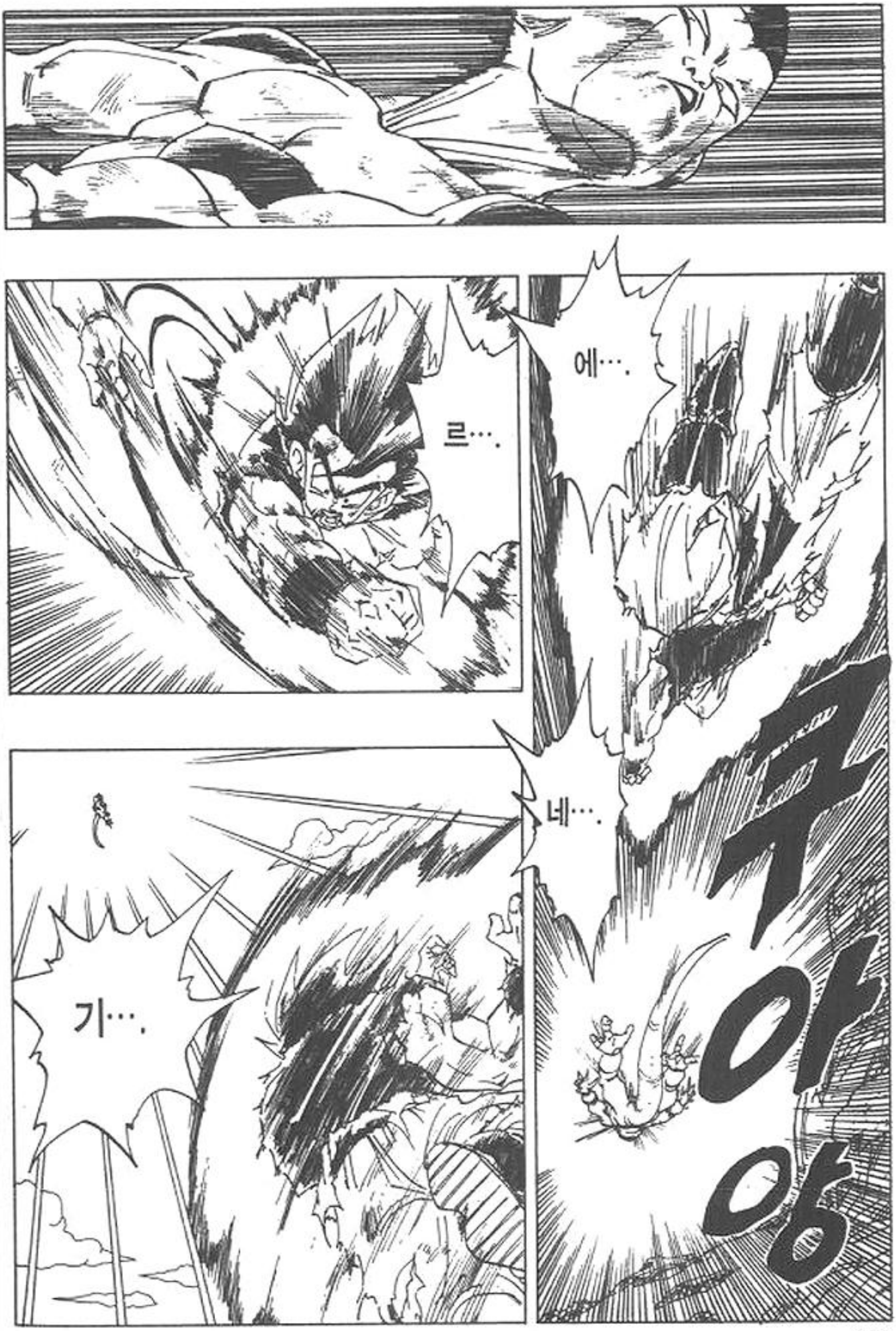
모험을
할 수밖에
… !


OF


OF
OF
OF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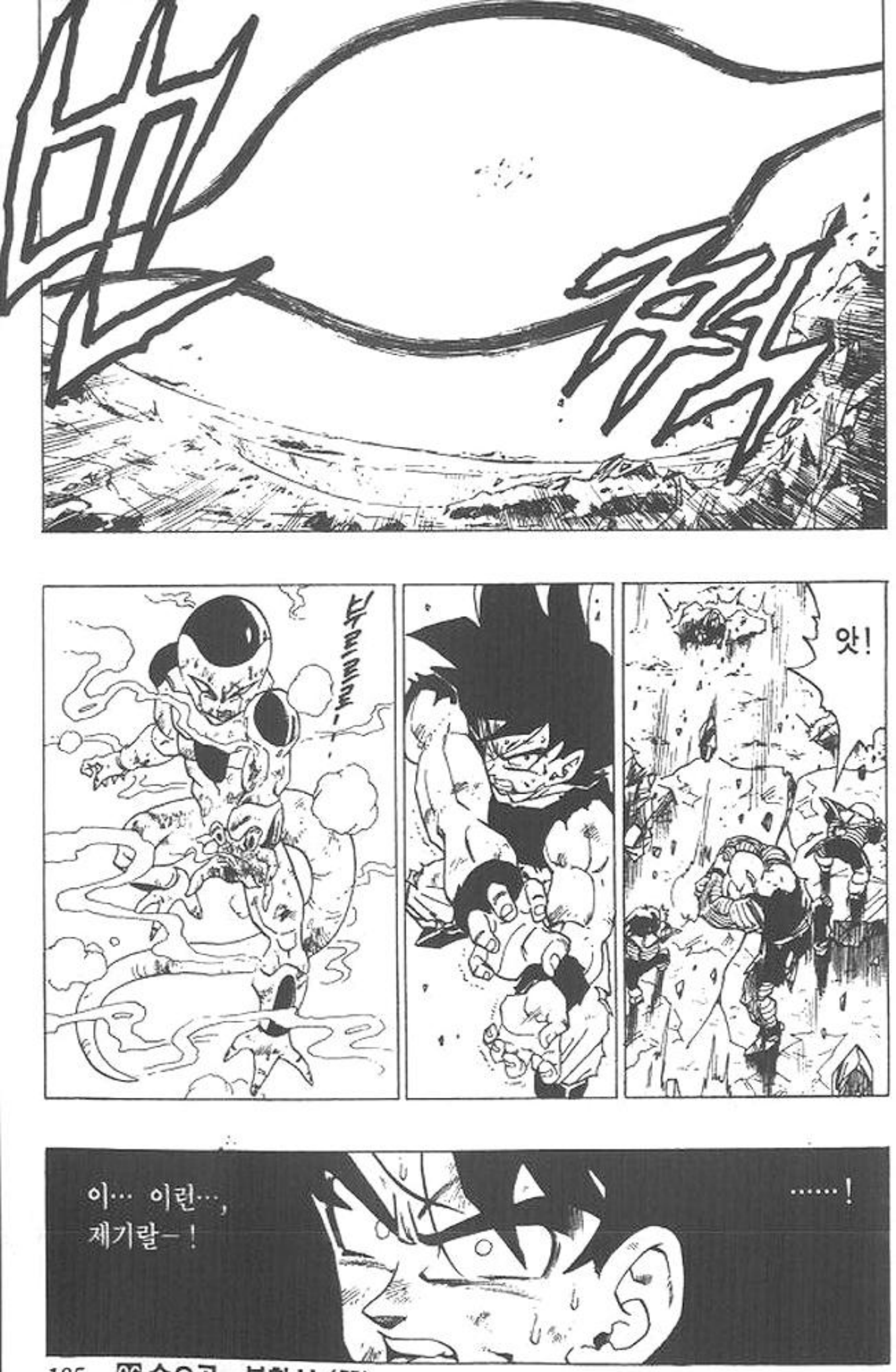

타앗!!


OH


에….
르….
네….
기….


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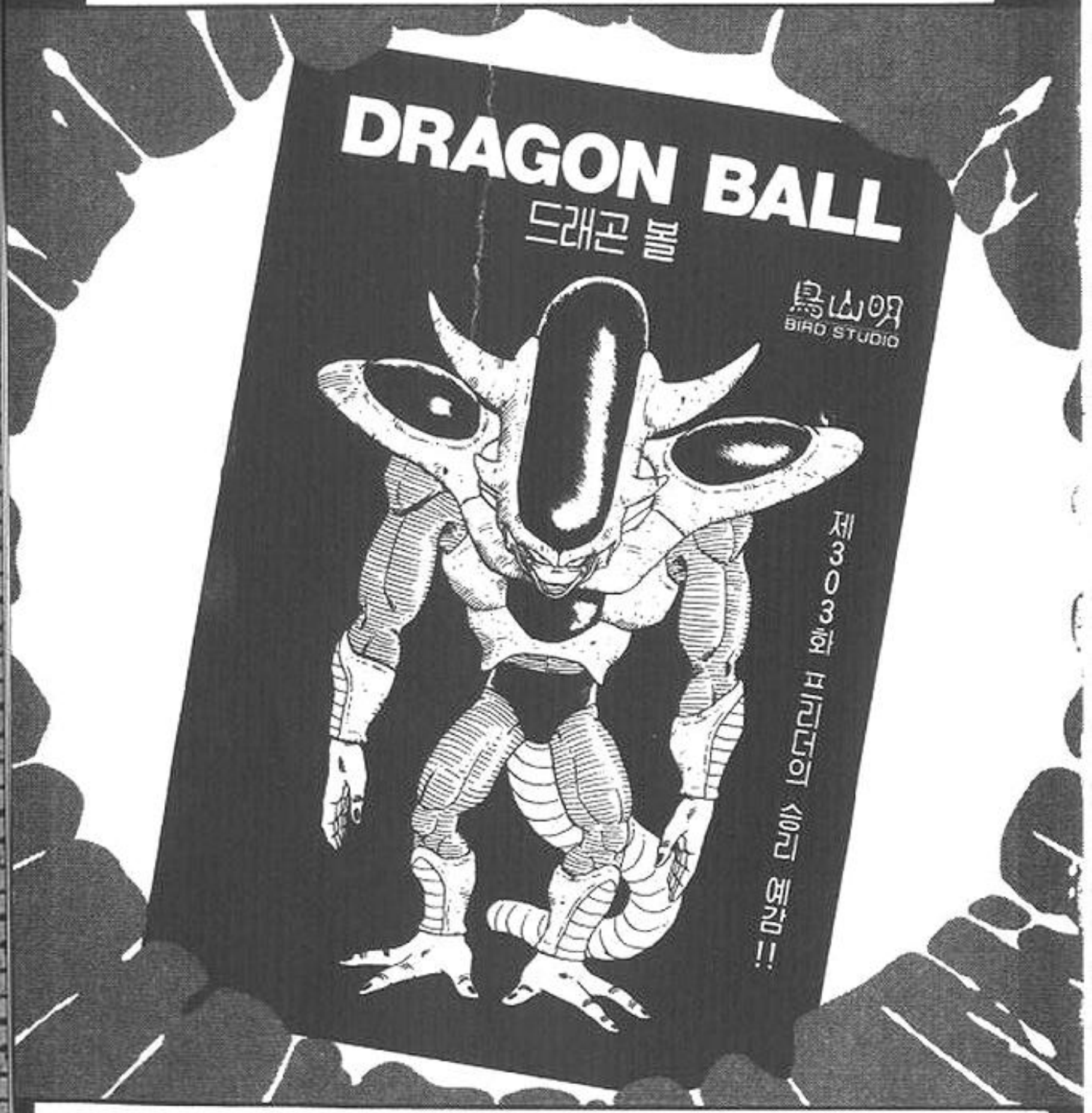

욱!!
우우….
우우우….
우와아
아앗— !!



26 손오공…부활!! (끝)

scanned by raprnb

표지 페이지 대특집XX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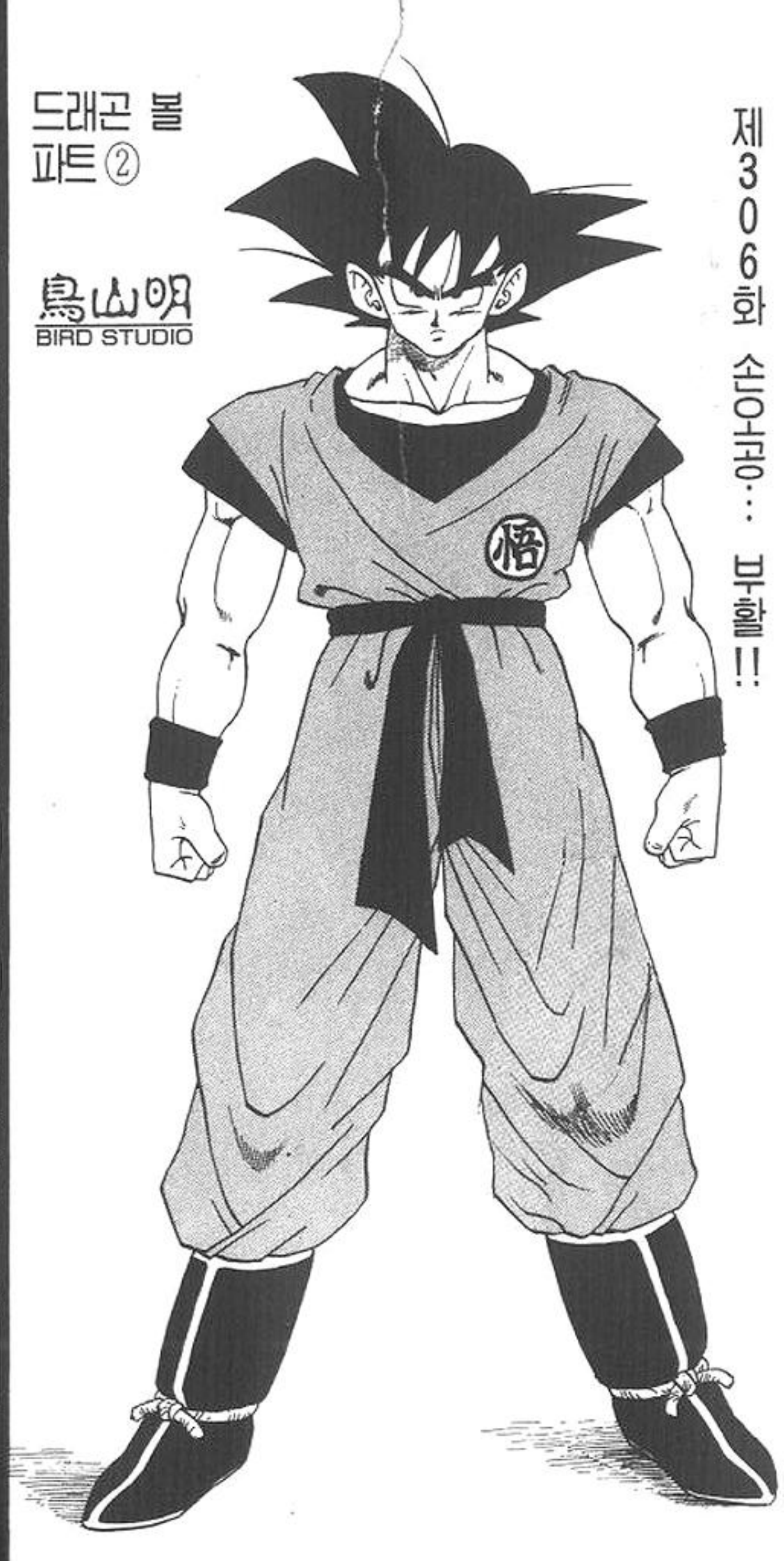
슈퍼 몬스터 프리더와 슈퍼 파워업 오공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격돌!! 전투의 행방은 누구도 예측 불가능!!
자, 이제 대인기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IQ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입니다),
이번에는 최고로 엄선한 것만 보내드립니다!!

DRAGON BALL

드래곤 볼
파트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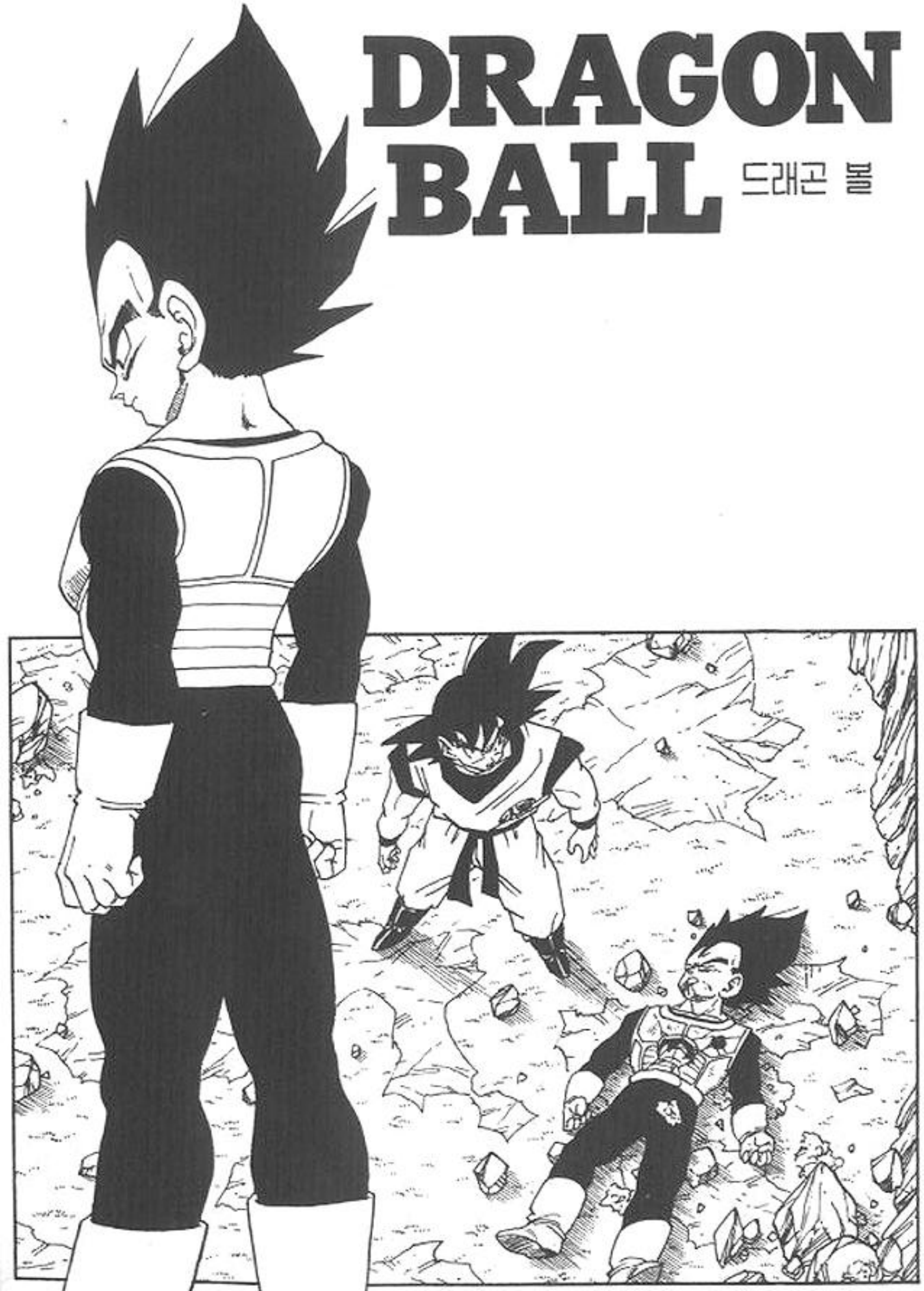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제306화 손오공… 부활!!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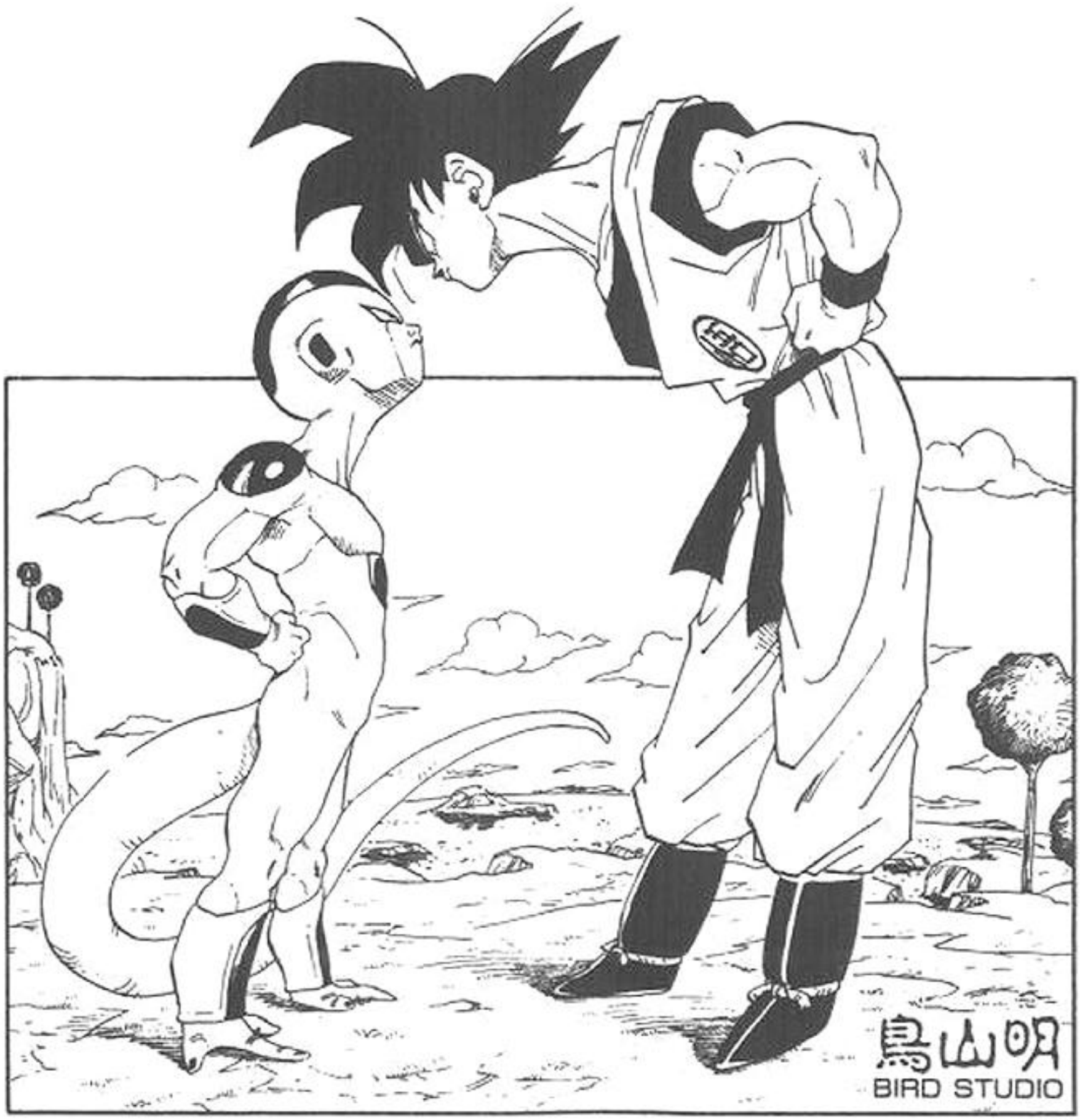
제308화 베지터의 죽음!!

BIRD STUDIO 鳥山明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09화 앙모 없는 두 전사!



드래곤볼 DRAGON BALL

BIRD STUDIO 鳥山明

scanned by rapi

제311화 육탄전

